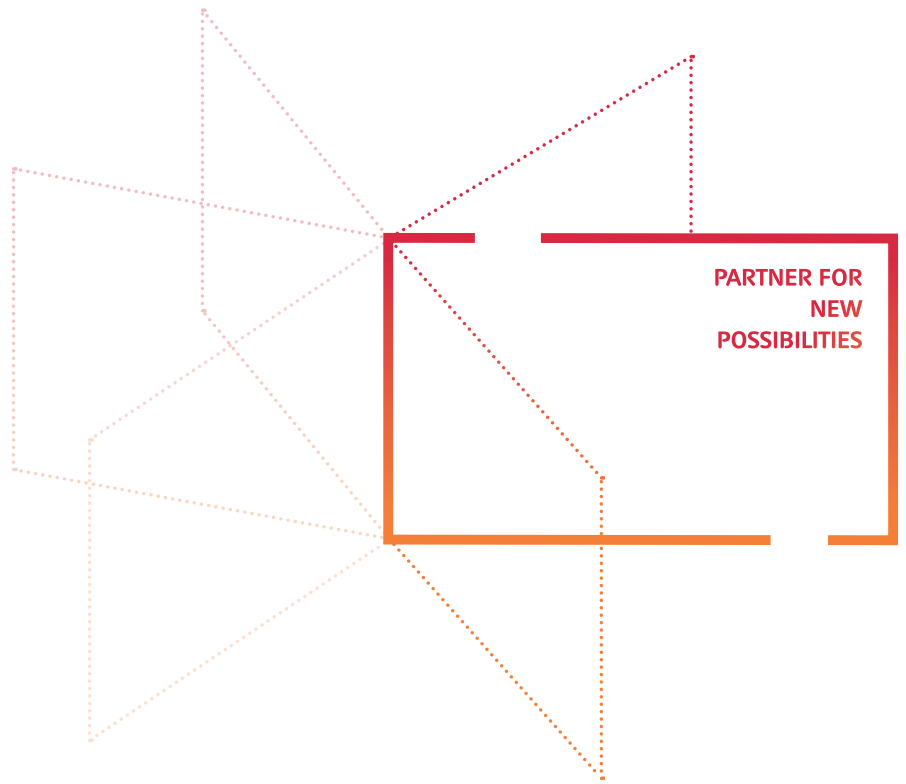




TRANSFORMATION & TURNAROUND

SK Telecom
Annual Report
2015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연례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통합 연차보고서 <Integrated Annual Report>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의 재무적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비재무적 성과와 그 저변의 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치창출 스토리(Value Creation Story)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2015년 6월 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는 재무/비재무 성과를 통합 보고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인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IR> Framework)’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IR> Framework가 제시하는 원칙과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G4’ 가이드라인의 포괄적(Comprehensive) 부합(In accordance with)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리드(LEAD) 기업으로서 UNGC 10대 원칙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UNGC의 이행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작성 원칙에 맞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의 범위와 경계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라는 표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 개별기업을 지칭합니다. 재무 데이터는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환경/사회 등의 비재무 데이터는 개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서술과 정보에 대해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SK텔레콤의 해외 지사, 자회사, 투자회사의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SK텔레콤의 재무적, 운영적 통제력과 사업 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의 지리적 경계는 매출의 99%가 발생하고 있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대한민국이며, 시간적 경계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일부 정성적 활동은 2016년 4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보고된 과거 데이터에 주의를 필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15년 7월에 발간된 <2014 SK Telecom Annual Report>입니다.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LEAD)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8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및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네트워크의 진화를 통해 통신 사업을 선도하며
세상을 새롭게 바꾼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과감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동통신 회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와 감동을 선사하는
차세대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기술과 생활을 융합하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여
모두가 꿈꾸는 미래 세상을 가장 먼저 실현하겠습니다.

Tomorrow's network

The fastest 5G

SK텔레콤이 5G로 다시 한번 이동통신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2세대 CDMA 1X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3세대 WCDMA와 4세대 LTE의 국내 최초 상용화에 이어

최소 초당 1G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목표로 5G 기술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G 상용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세대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SK텔레콤의 생활가치, 통합 미디어, IoT의 3대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초고속도, 초대용량의 5G 인프라 환경에서 또 한번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것입니다.

놀라운 편의와 다양한 즐거움, 높아진 효율로 생활은 더 행복해지고 산업은 더 발전할 것이며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차세대 플랫폼 서비스와 5G 네트워크로

모두의 미래를 바꿀 SK텔레콤의 도전을 기대해주시요.

Transforming into a "Next-Generation Platform Player"

Life Enhancement Platform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생활의 행복을 키워갑니다.

Media Platform

끊김 없는 유무선 통합 미디어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IoT Platform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편의와 기업의 효율을 제고합니다.

Leading the "5 Generation Network"

1Gbps

5G는 최소 초당 1Gbps의 초고속도와 0.001초 이하의 초저지연, 초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SK텔레콤은 빠르고 효율적인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로봇, 3D 홀로그램, 스마트홈, 자율주행 자동차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차세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와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2020

가장 먼저 5G 시대를 준비해온 SK텔레콤은 2015년에 설립한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통해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열린 'MWC2016'에서는 20.5Gbps 속도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5G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2018년 기술 표준화를 거쳐 2020년까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Life
Enhancement
Platform

Delivering new value
on daily lifestyle

SK텔레콤의 생활가치 플랫폼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소중한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공통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결제가 훨씬 간편해지는 일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통신 경쟁력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만나면 모두의 생활은 놀랄 만큼 즐겁고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생활가치 플랫폼은 아동부터 청장년, 노년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고객의 니즈와 생활 패턴에 적합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의 행복을 키워가겠습니다.



Media
Platform

Seamless enjoyment with personalized contents

유선과 무선을 망라한 SK텔레콤의 통합 미디어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기도록 해줍니다. 통합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3D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통합 미디어 플랫폼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디바이스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Smart Home

Connecting all 'Things' beyond mobile device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은 모두가 꿈꾸는 스마트 라이프를 실제로 구현합니다. 알람이나 원격 제어로 가전제품을 작동하고, 전기나 수도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문단속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홈'이 바로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IoT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꿈꾸던 스마트 라이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Temperature

HUMIDIFIER

Central Power Unit

Climate Control System

object: C-4952
status: system OK
mode: steady

92%

IoT Platform

Collecting & analyzing data from all 'Things'

강력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은 미래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프라 개발에 도전합니다. 스스로 시동을 걸고 도로 상황과 다른 차량에 맞춰 운전할 뿐만 아니라 차내 환경을 조절하고 사무실, 집 등 외부와 연결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5G를 비롯한 최첨단 ICT 기술이 집약되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앞선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V2I(Vehicle to Infra) 기술,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등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인프라 개발을 선도하여 미래 자동차 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Pursuing sustainable growth for all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회사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플랫폼 회사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면서도 항상 경제, 사회, 환경의 가치를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창조경제의 실현, '브라보! 리스타트' 등 ICT 융합형 벤처 창업 지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인프라 신산업 진출 등 기업과 사회의 공동 가치 창출에도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회사, 나아가 진정한 인텔리전트 라이프 파트너가 되어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4조 1,514 억 원

인터브랜드가 조사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6'에서 4조 1,514조 원의 브랜드 가치로 국내 서비스 기업 중 1위 (4년 연속 국내 통신사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8 years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로 2008년부터 8년 연속 다운로드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World 부문에 편입되었습니다.

NO. 1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광대역 LTE 및 LTE-A, 3G 이동통신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업계 최고 네트워크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19 years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19년 연속 1위(2016년 기준)에 올랐습니다.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을 실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기업 중 최장 기간 1위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4개팀

청장년층 대상의 ICT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는 기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는 달리 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사업화, 성장 단계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34개팀의 창업 벤처를 발굴, 육성하였습니다.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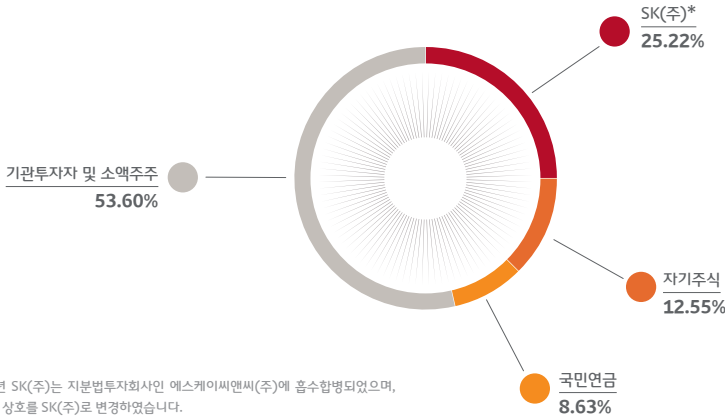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대한민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생활 가치, 통합 미디어, IoT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가입자 점유율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그리고 ‘최초’의 기술과 서비스로 대한민국 ICT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2015년 말 기준)

가입자 수	1984.03.29
임직원 수	약 2,863만 명*
자회사 수	4,253명
증권거래서 등록 현황	40개
	한국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 기준

주주현황 (단위: %)



(*) 2015년 SK(주)는 자본법투자회사인 에스케이씨앤씨(주)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법인은 상호를 SK(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주환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1,028.5 billion
주당순이익	14,262
배당금 총액	666.8 billion
배당 성향	64.8%
주당 배당금	9,400

Inside This Year’s Report

1 > Overview

CEO MESSAGE	020
OUR BUSINESS MODEL	024
YEAR 2015 ACHIEVEMENTS	026
LONG-TERM MANAGEMENT ISSUES	034
PROGRESS ON MATERIAL ISSUES	038
GOALS, TARGETS, AND PROGRESS	

2 > Articles

ARTICLE 1. TRANSFORMING TO THE PLATFORM PROVIDER	042
ARTICLE 2. SHARING THE INNOVATION	046
ARTICLE 3. NEW CERTAINTY: PARIS PACT & CLIMATE CHANGE	049

3 >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STATEMENTS	072
MD&A ON FINANCIAL STATEMENTS	080
NON-FINANCIAL STATEMENTS	089
MD&A ON NON-FINANCIAL STATEMENTS	09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07
제3자 검증의견서	109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13

4 >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S	102
FINANCIAL MD&A	110
NON-FINANCIAL STATEMENTS	116
NON-FINANCIAL MD&A	118
REPORT OF EXTERNAL AUDITOR	128
THIRD PARTY ASSURANCE STATEMENT	130
GREENHOUSE GAS ASSURANCE STATEMENT	134

5 > Appendix

CEO HUMAN RIGHTS STATEMENT	116
HUMAN RIGHTS ASSESSMENT REPORT	118
SUPPLY CHAIN REPORT	121
GRI INDEX	126
UNGC INDEX	134
SASB INDEX	136
재무 성과표(개별)	137
SK텔레콤 GLOBAL NETWORK	143
투자자 정보(INVESTOR INFORMATION)	144



>
Overview

LETTER TO STAKEHOLDERS	20
OUR BUSINESS MODEL	24
YEAR 2015 ACHIEVEMENTS	26
LONG-TERM MANAGEMENET ISSUES	34
PROGRESS ON MATERIAL ISSUES	38

Letter to Stakeholders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15년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MNO)영역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역에서도 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통신 산업의 화두는LTE 속도 및 가입자 경쟁 등 양적 경쟁을 넘어, 고품질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으로 개인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질적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5년 SK텔레콤은 상품과 서비스 혁신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며 데이터 중심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통신 사업에서의 역량과 자산을 기반으로 생활가치, 통합미디어, IoT의 3대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Transformation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SK텔레콤은 2015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17조 1,367억 원, 영업이익 1조 7,080억 원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우수 회원사 리드(LEAD)기업 활동,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 8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편입,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3년 연속 유지, 19년(2016년 기준)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미래부 네트워크 품질 평가 1위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대외 평가를 이어 갔습니다.

이동 통신(MNO) 영역의 본원적 경쟁력을 통한 마켓 리더십 강화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유지(Retention) 중심의 시장 운영을 선도해온 SK텔레콤은 2015년 2분기 이후 신규 및 기변 가입자 중 기기 변경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상품·서비스 중심의 본원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는 출시 이후 연말까지 700만 가입 고객을 확보하며 기존의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상품·서비스로의 구조적 전환을 선도하며 데이터 서비스 효용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단말기 루나(LUNA)폰의 성공은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준키즈폰, T팻 등 2nd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 출시는 2015년 말 웨어러블 시장내 압도적 점유율인 86.6%(미래부 통계기준)의 점유율로 이어지며 SK텔레콤의 차별적 경쟁력을 증명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MNO)의 구조를 효율성 중심으로 혁신하며 마켓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나가는 한편, 고객에게 통신 서비스를 넘어선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여 편의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생활가치 플랫폼',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와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 미디어 플랫폼', 빅데이터(Big Data)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Things)의 연결성 확장을 통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플랫폼' 등 3대 플랫폼 영역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회사의 핵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동 현

2016년 5월
SK텔레콤 대표이사 장동현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SK텔레콤은 2015년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클럽T키즈’, 반려동물족을 위한 ‘펫트윈’ 등 다양한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에 걸쳐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생활가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영역에서의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가치 플랫폼’ 서비스는 향후 서비스 라인업과 패키지 강화를 통해 신규 영역에서 고객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2015년 유무선 IPTV 가입자 확대와 유료 콘텐츠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2016년 초 ‘B tv 모바일’과 ‘호핀’을 통합한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인 ‘옥수수(oksusu)’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옥수수(oksusu)’를 중심으로 한 360 도 가상 현실(VR) 서비스, 전용 콘텐츠 출시, 실시간 방송 전송 속도를 최대 3초 단축시키는 초저지연 방송 기술 도입 등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oT 플랫폼 영역에서는 IoT 하이브리드(Hybrid)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을 통해 소물 인터넷 전용망 완성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시, 한국전력, 고려대학교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안·에너지·자동차·도시 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IoT 생태계 구축에 기반한 개방형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와 IoT를 망라하는 ‘Home’ 전략 추진을 통해 각각의 차세대 플랫폼 영역의 성장 단계에서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기업의 통합적 가치 창출 노력

한편,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해온 SK텔레콤은 세종·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여 조성한 ‘창조 마을’은 ICT 기술 및 스마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농업 경쟁력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ICT 융합형 벤처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SK텔레콤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는 동시에 ICT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는 통합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말까지 SK텔레콤의 지원 하에 총34개 팀이 참여하여 상품 출시, 특허 출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ICT기술 기반 사회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약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기업의 보편적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새로운 기회 창출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저전력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 책임 이행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성장 사업 모델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과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 장기 협력을 기반으로 나주에 설립한 ‘SK텔레콤-한전 협업센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무선충전 시설 및 ICT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발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은 친환경 ICT 기술 기반을 온실가스 저감·에너지 절감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학교, 도시 개발에 접목하여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業의 Transformation, 실적 Turnaround’을 통한 기업 가치 혁신

2016년 SK텔레콤은 인력, 인프라, 서비스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業의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 속도와 실력에 기반한 강력한 조직 문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플랫폼 사업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역사를 선도해온 SK텔레콤은 본원적 경쟁력과 고객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 문화를 근간으로 산업군간 경계를 넘는 혁신과 ICT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며 성장의 결실을 맺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성공적 변혁을 통해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혁신해 나감과 동시에, 미래 국가 ICT 발전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SK텔레콤을 지켜봐 주시는 고객,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Business Model

플랫폼 시대를 선도할 비즈니스 모델 확장

지난 30년간 SK텔레콤의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화해 왔습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앞선 기술로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산업의 경계를 넘어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합니다. 일상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가치 플랫폼, 개인화된 콘텐츠 니즈를 충족하는 통합 미디어 플랫폼,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는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미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Capital Input



Value Creation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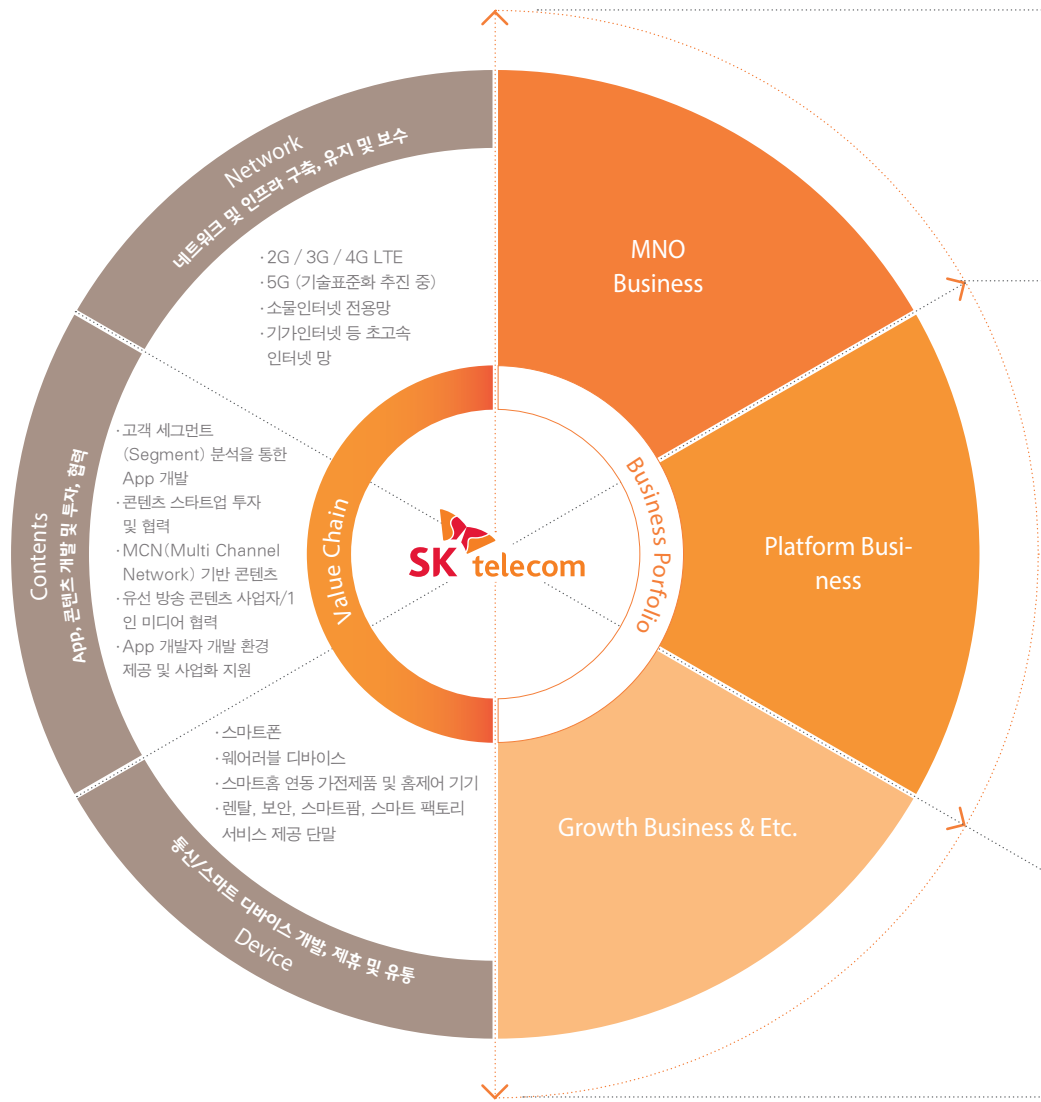


Output



Outcome

Financial Capital	SK텔레콤은 한국증권거래소(Korea Stock Exchange) 및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주주 및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금융자본에 의존하며,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Human Capital	인재는 SK텔레콤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인재는 혁신을 이끌어내고, 기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K텔레콤은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ntellectual Capital	SK텔레콤은 사업 과정에서 기술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요 자본으로 활용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허브, 오픈 플랫폼 등 ICT 생태계 육성 정책은 SK텔레콤의 역량을 공유하여 사회 공동의 지적 자산가치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Manufactured Capital	SK텔레콤의 사업은 네트워크 등의 물리적 인프라 자산에 크게 의존하며,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비용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ocial & Network Capital	SK텔레콤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는 한편, 책임을 다하는 비즈니스 추진과 ICT 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사람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ural Capital	SK텔레콤은 전국망 단위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전력을 사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간접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SK텔레콤은 ICT를 활용한 환경솔루션 제공 및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를 통해 환경자본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NO Business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유선전화 및 국제전화(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 인터넷 및 IPTV (SK브로드밴드)

Platform Business

생활가치 플랫폼
라이프스타일/연령 전 영역에서 개인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하는 차별적 커뮤니티 콘텐츠 커머스 가치 제공 플랫폼

- 클립T키즈 -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 T페이 - 앱 하나로 결제와 할인을 동시 제공 플랫폼

통합 미디어 플랫폼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플랫폼과 차세대 미디어 기반 시청경험 제공

- 옥수수(oksusu) - 모바일 개인화 미디어 서비스,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연계 차별적 시청 경험 제공
- 멀티 네트워크 채널 기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진화

IoT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기반, 사물의 연결을 통해 편의 및 생산성 제고

- IoT 솔루션 서비스, IoT 전용 네트워크 및 플랫폼 서비스
- 홈, 자동차, 리테일, 에너지, 보안, 도시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영역 확장

Growth Business & Etc.

- 11번가, 시럽, 삼척 등 커머스 사업
- 체외진단기기, 헬스케어 솔루션 등 헬스케어 사업
- 하이엔드 오디오, 스마트빔, 로봇, 앱세서리 등 라이프웨어

Products & Services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 · 서비스 · 고품질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다양한 니즈에 기반한 생활 가치 향상 서비스 플랫폼 · 최고의 미디어 콘텐츠 경험 · IoT 기반 혁신 솔루션
Customer & Consumer	혁신적인 고객 경험 · 책임 있는 마케팅 · 개인정보 보호 · 콘텐츠 책임 · 바른 ICT 추구
Community & Society	사회적 책임 실행과 국가 성장 기여 · ICT 생태계 육성 및 지원 ·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 ICT 기반 사회적 혁신 및 창조경제 기여
Financial Capital	Financial Capital · 수익 및 이윤 창출 · 주주 환원 · GDP 성장 기여(간접적 경제가치)
Human Capital	Human Capital · 직 · 간접 고용 창출 · ICT 인재 육성 및 인적자본 향상
Intellectu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 혁신적 ICT 기술,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통한 기술 발전 · 사회적 혁신 기술 기반 구축 기여
Manufactured Capital	Manufactured Capital · 개인 생활 및 기업 생산성에 기여하는 IT 인프라 (LTE & IoT 전용망 등)
Social & Network Capital	Social & Network Capital · 인터넷 접근성 (Access to Internet) 향상을 통한 사회적 자본 향상 ·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활 가치 향상
Natural Capital	Natural Capital · ICT 기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여

*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6대 자본 및 비즈니스모델 개념을 적용

業의 Transformation & 실적 Turnaround

통신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플랫폼 컴퍼니로 거듭나고자 하는 SK텔레콤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MNO에서의 효율성 확대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플랫폼 영역에서 성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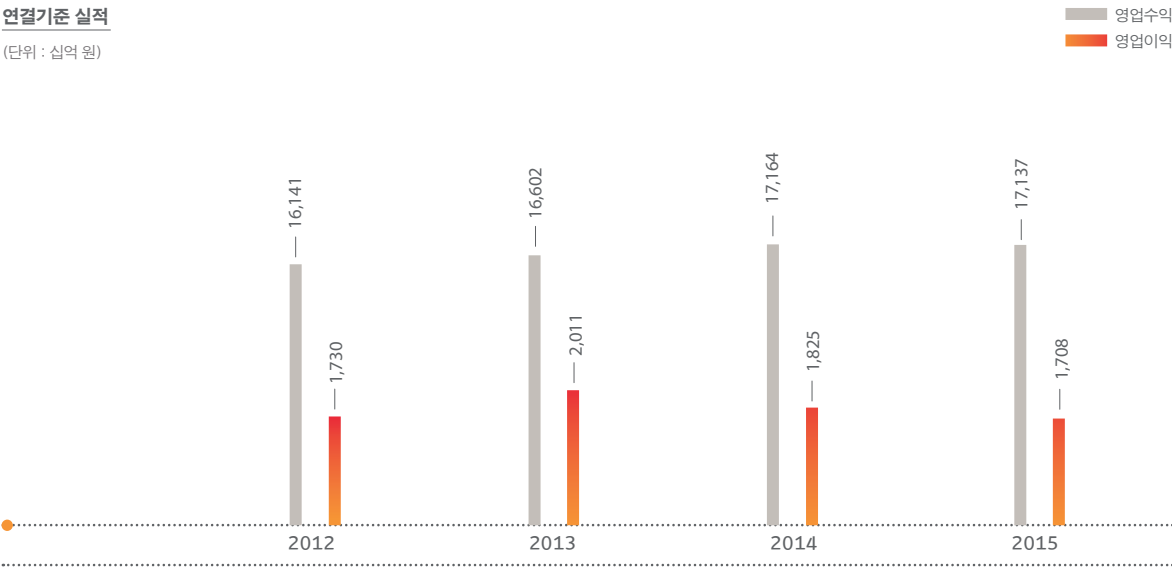
2015년 주요 성과

이동통신 영역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역에서 변화의 기틀 마련

2015년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MNO)영역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역에서도 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SK텔레콤의 2015년 연말 기준 월평균 해지율은 2004년 번호 이동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하였고, 2015년 2Q 이래로 전체 신규 가입 중 기기변경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을 고객 유지(Retention)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는 연말 약 700만 가입자를 기록하며 데이터 사용량의 증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전용단말기 루나(LUNA)의 성공은 다양한 후속 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불러오는 등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이동통신(MNO)사업의 본원적 사업구조를 혁신해 가며 시장 선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SK텔레콤은 2nd 디바이스 중심으로 MNO에서 제공하는 고객가치를 확장하는 ‘생활가치 플랫폼’ 서비스 강화와 함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의 도약을 위한 미디어 역량의 결집,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IoT 플랫폼 등 지난 해 부터 강조해온 3대 플랫폼 영역의 결실을 맺기 위한 중장기 행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실적

(단위 :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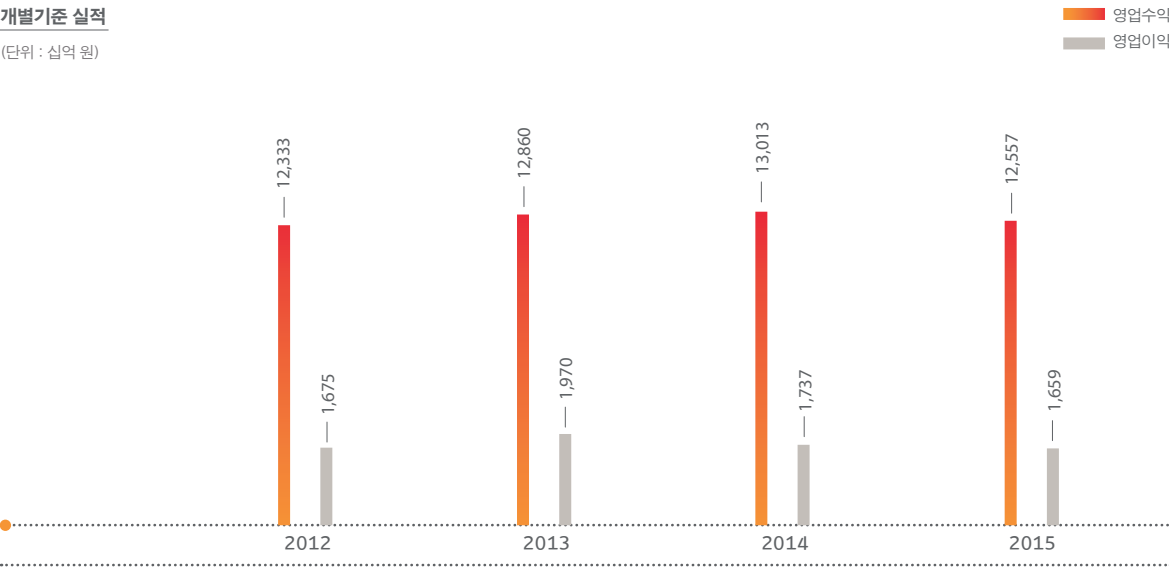
Looking for Turnaround: 통신 시장의 성장 한계 극복

2015년 SK텔레콤은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 17조 1,367억 원, 영업이익 1조 7,08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규모는 국내 통신시장의 성장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인건비 증가 및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6.4%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익은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감소 등에 의한 영향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5.8% 감소한 1조 5,15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CAPEX는 SK텔레콤 개별 기준 1조 8,913억 원으로, 가이던스 대비 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하였습니다. CAPEX는 네트워크 운영기술 발전과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별기준 실적

(단위 : 십억 원)



2016년 계획 및 전망

SK텔레콤은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동통신 시장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업의 Transformation’, ‘실적 Turnaround 달성’을 통해 전년대비 2.7% 성장한 매출 17조 6,0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가치 제공을 통한 가입자 순증 확대,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성장 사업 성과를 통한 17조 6,000억 원의 매출 목표 달성 추진
- 미디어 콘텐츠 중심 상품 차별화, 이동통신(MNO) 자산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강화
- 수요와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주파수 확보로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 경쟁력 유지
- 생활가치, 통합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영역의 3대 플랫폼 사업 성과 가시화

통신사업 본원적 경쟁력을 통한 펀더멘탈 강화

2016년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등 매출하락 요인이 존재하나 데이터 이용 가치를 높이는 신규 상품, 서비스 출시 등으로 매출 확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용 단말, 요금 제, 제휴 및 결합상품 등 통합적인 고객 니즈에 기반한 기획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함으로써 마켓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안정화된 시장 경쟁 환경 속에서 SK텔레콤은 본원적 상품 및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출시하여 LTE가입자 비중 확대 및 인당 데이터 사용량 확대에 기반하여 통신 사업에서의 펀더멘탈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기회 영역인 플랫폼 사업으로의 Transformation

SK텔레콤은 이동통신영역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적의 ‘Turnaround’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플랫폼 사업으로의 성공적 ‘Transformation’을 통해 기존 포화된 통신 시장에 서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어 기업 가치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미래의 기회 영역으로서 생활가치, 통합미디어,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3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강화로 형성된 홈 기반 경쟁력은 IoT 및 생활가치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너지가 극대화 되는 등 각 영역은 성장 단계에서 상호 연계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3대 플랫폼 사업 기반 구축

생활가치 플랫폼 영역에서는 요금, 단말기, 제휴 서비스 등 기존의 이동통신시장 영역에서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을 통해, 고객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수익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생활가치 플랫폼은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SK텔레콤을 선택하는 준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그먼트 가입자 공통 니즈와 생활 패턴에 적합한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기능을 추가,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영역에서 SK텔레콤은 연말 기준 B tv가입자 408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 유무선 방송가입자 757만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통합 모바일 채널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2016년에는 미디어의 외형 확대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통합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IoT플랫폼 분야에서 SK텔레콤은 그간 개방형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면서 제조, 공공서비스, 스마트폰 등 핵심영역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상용화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올해 제휴사 50개, 연동 제품 70개로 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IoT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제휴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전제품군을 통합적으로 아울러 고객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IoT 하이브리드(Hybri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용망 완성과 함께, 자동차, 에너지, 보안,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통해 IoT 기술을 접목하여 생태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SK플래닛과 관련해서는 커머스(Commerce), 플랫폼(Platform)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의 부문이 성장에 유연한 구조를 갖도록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커머스(Commerce) 컴퍼니는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시럽, OK 캐시백 등 기존의 경쟁력 있는 요소를 강화하며 국내 외를 모두 아우르는 넥스트 커머스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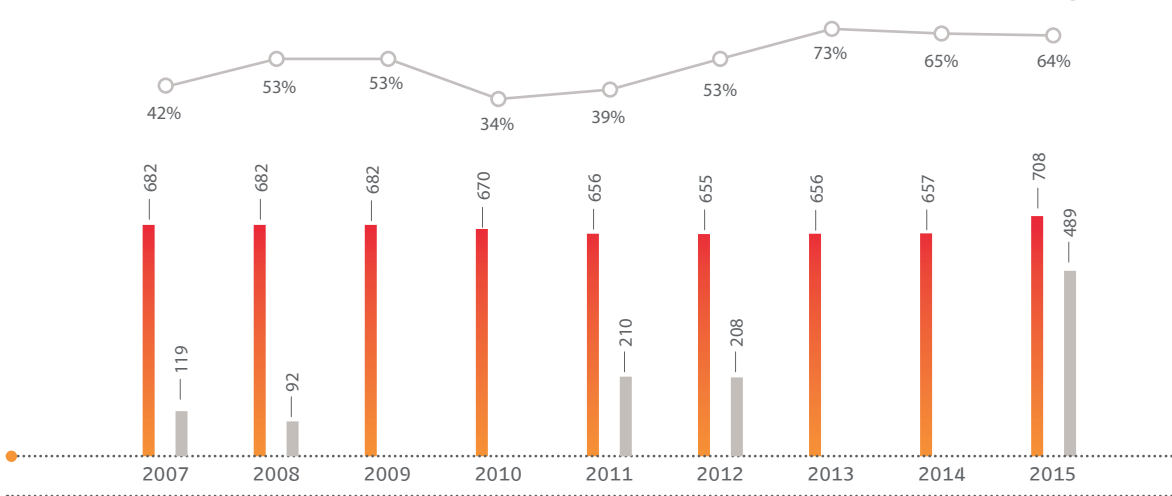
2015년 SK텔레콤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 부문에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차별화된 네트워크 경쟁력, 고객가치 지향 서비스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마켓 리더십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의 심층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2015년 SK텔레콤은 기업가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9년간 5회의 자사주매입을 시행하며 간접적인 주주환원을 실시해왔습니다. 2015년 SK텔레콤은 중간배당 1,000원을 포함하여 연간 배당을 DPS(Dividend per Share) 기준 10,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연도별 주주환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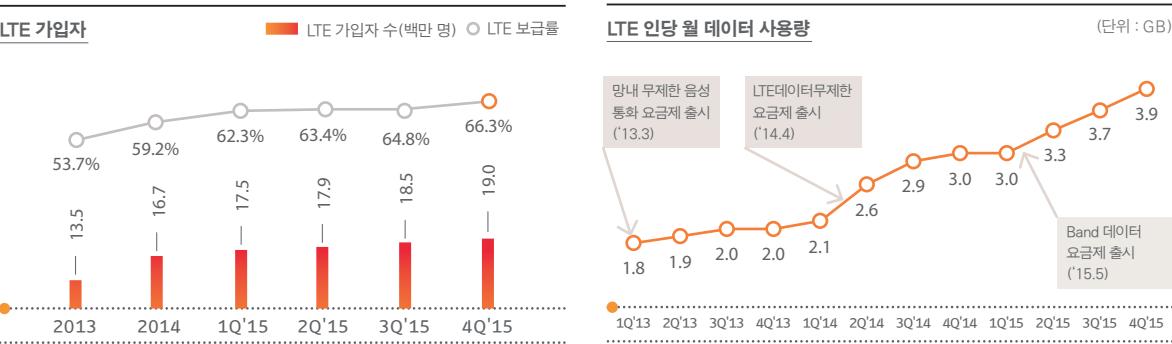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원)



OPERATION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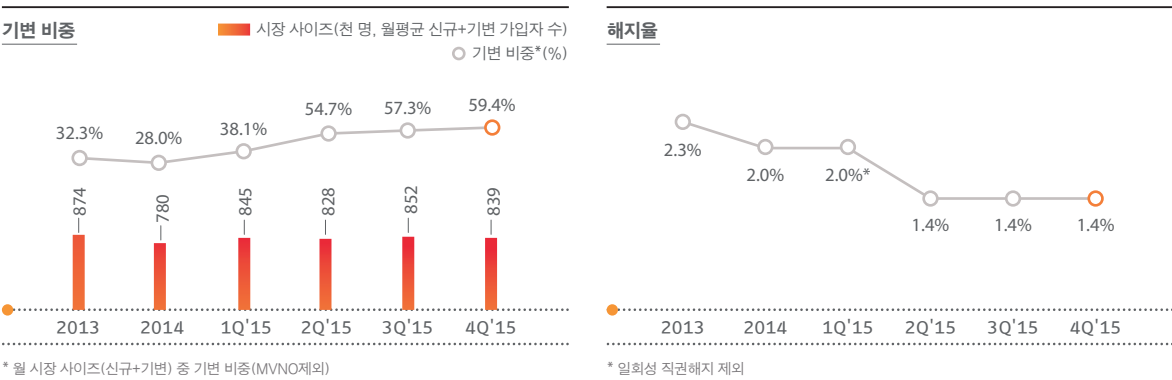
LTE 가입자 및 인당 데이터 사용량

SK텔레콤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본원적 경쟁력에 힘입어 LTE 가입자 및 LTE 인당 월데이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ARPU는 전년대비 1.3%p 상승(YoY)한 36,7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청구ARPU는 p.8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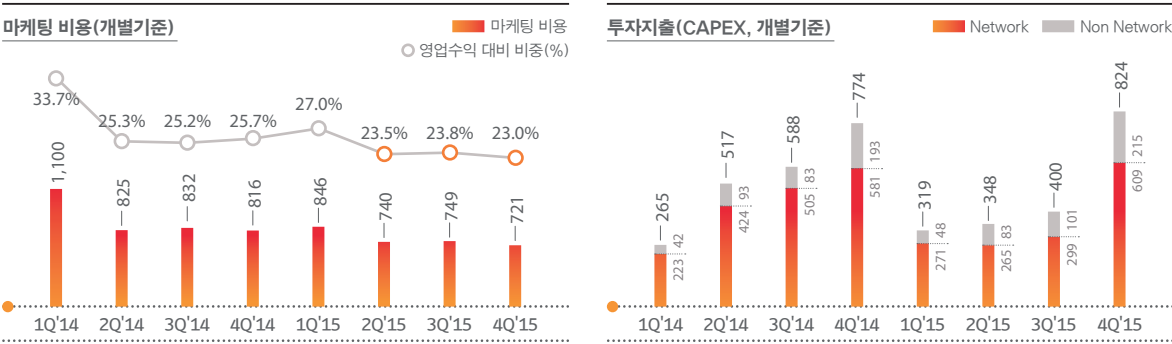
기변 비중 및 해지율

시장 안정화 및 기변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해지율은 번호이동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케팅 비용 및 투자지출

마케팅 비용은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과열 경쟁 등이 완화되어 매출 대비 23%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지출 또한 가이던스 대비 하향 집행하였습니다.



Creating ICT Synergy Through Network Hardware Platforms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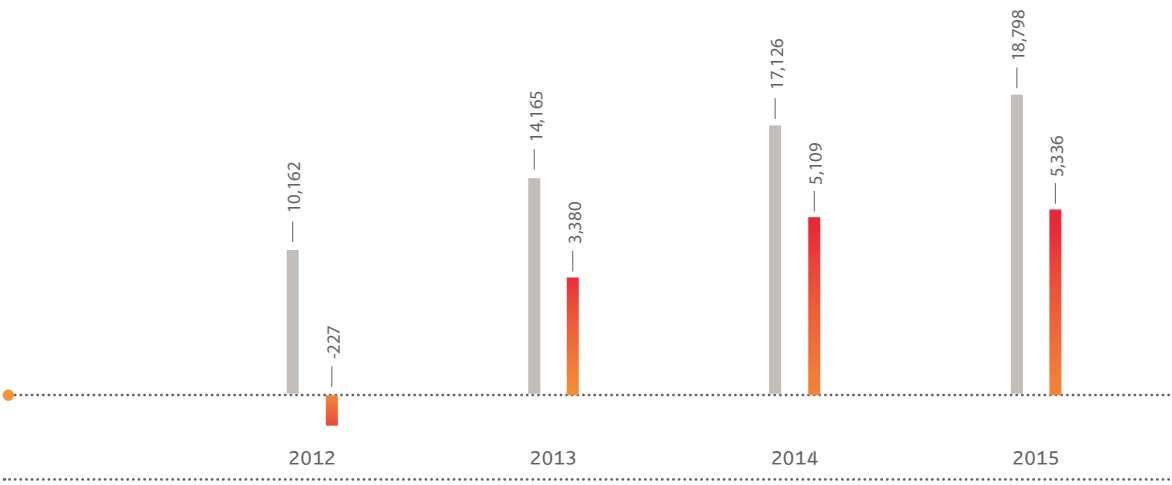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통해, 통신과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의 인수 이후 2015년 매출액 18조 7,980억 원(전년대비 9.7% 성장), 영업이익 5조 3,336억 원(전년대비 4.4% 성장, 영업이익률 28.4%)으로, 3년 연속 차사 이래 최고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주요 매출 의존처인 D램의 경우, 기기당 채용량이 증가하고 DDR4(Double Data Rate 4th Generation SD RAM) 제품의 확산 등에 따라 연 20% 수준의 수요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드플래시는 모바일 제품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SSD(Solid State Disk) 시장 확대에 힘입어 30% 대의 수요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나노 초반급 D램을 본격 양산하는 한편, 10나노급 D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장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수요 증가 둔화와 업체간의 경쟁 심화 등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2016년에도 6조원 대의 투자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고, 원가 경쟁력과 투자 효율성 개선 및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단위 :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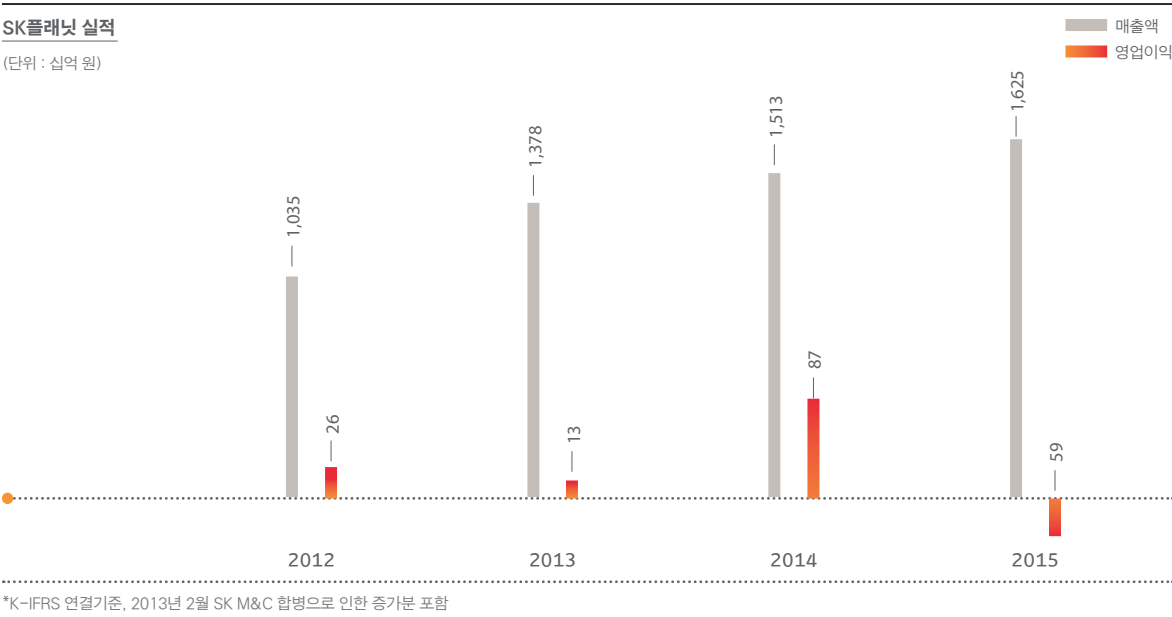


SK플레닛

SK플레닛은 온라인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하고, 모바일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가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로 고객의 삶을 보다 더 즐겁고 편리하게 만드는 통합 & 개인화 커머스(Integrated & Personalized Commerce) 전문기업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모바일 커머스 경험을 전달하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쇼핑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넥스트 커머스(Next Commerce)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5년 SK플레닛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11번가의 지속적인 성장, OK캐쉬백 및 시럽(Syrup)의 기존 서비스 강화 및 버티컬(Vertical) 서비스 확장을 통한 시장 영향력 확대,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11번가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는 기존의 커머스와 플랫폼 사업영역을 커머스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e-Commerce 부문의 시장 리더십 확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커머스플레닛과 합병하여 사업 시너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SK플레닛 플랫폼 사업 부문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SK텔레콤의 '생활가치플랫폼' 성장 동력으로서 시너지 확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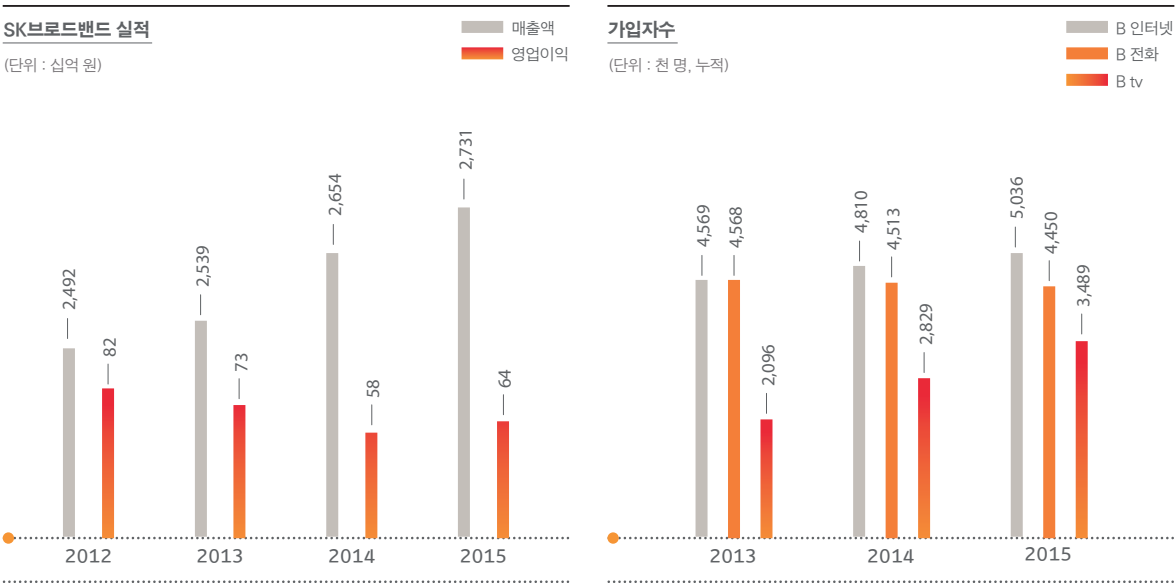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세계 최초 ADSL 서비스, 국내 최초 초고속무선 인터넷 서비스, 국내 최초 Pre-IPTV 서비스 상용화 등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기업으로, 미디어 및 B2B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 & B2B 전문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가입자 기반 확대와 브로드밴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5년 말 504만 명의 B 인터넷 가입자 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집전화는 무선서비스 대체 효과로 사용량 및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IPTV는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31.9% 증가한 347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판매망 확대를 통한 가입 편의성 제고 등 품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기존 보조금 중심 고객 확보 경쟁을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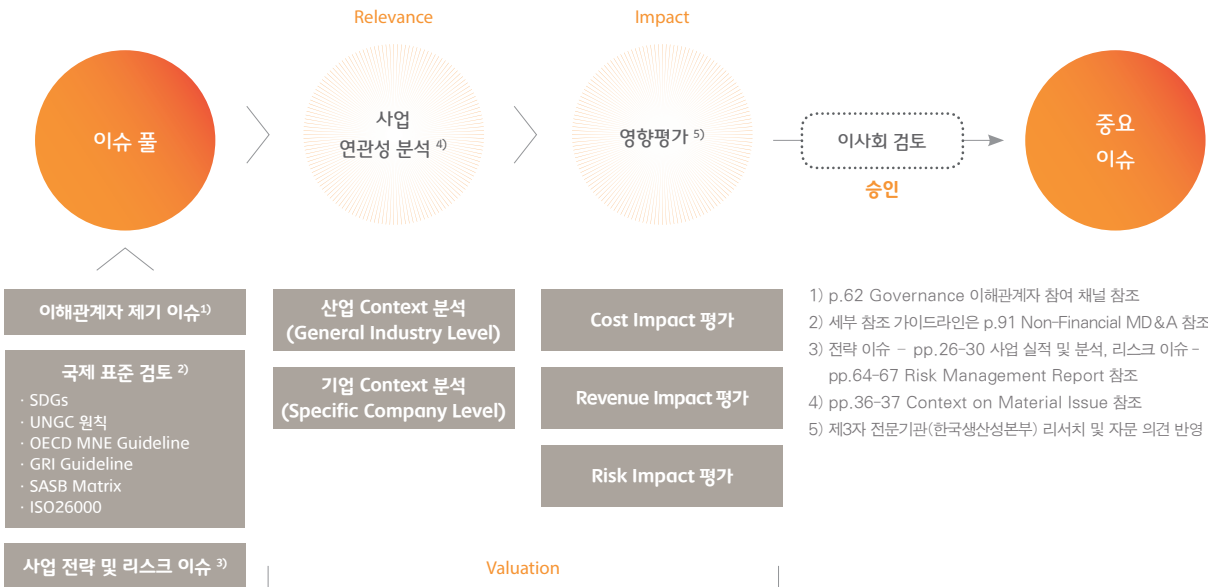


중장기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이슈 관리

SK텔레콤은 미래 가치 창출 능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환경,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여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대응과 성과를 매년 공개합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이슈들을 검토하여,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이슈(Material Issues)를 발굴하고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정의하고 있는 핵심 이슈의 '중요성(Materiality)'이란 사업 및 이해관계자에의 영향 측면에서의 연관성(Relevance)과, SK텔레콤의 지속적 가치 창출 능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Impact) 수준을 의미합니다. 핵심 이슈(Material Issue)는 기술적 분석과정을 거친 후, SK텔레콤의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Corporate Citizenship Committee)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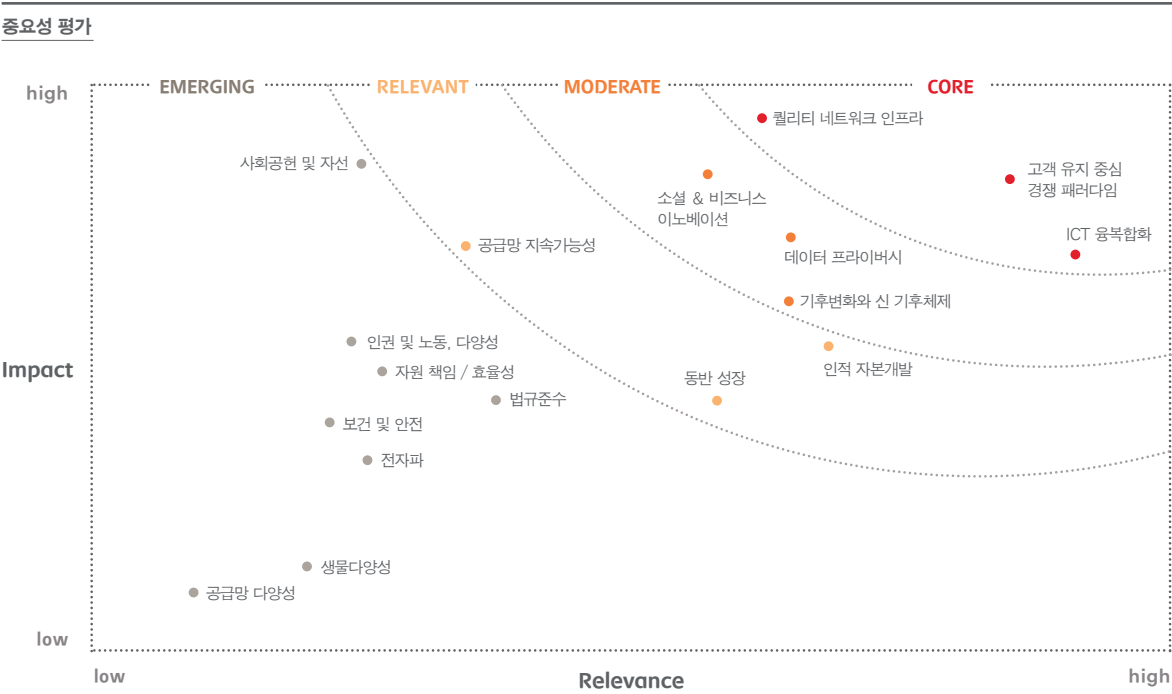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글로벌 정치-사회 이슈, 글로벌 규제, 중장기적인 사회변동 트렌드, 국제 기구 및 비영리 기관(NGO)이 제기하는 이슈, 사업 과정 내 알려진 외부 효과(Externality)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이슈 풀(Pool)로 관리되며, 매년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산업 수준(동종산업 분석) 및 개별 기업수준(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연관성 평가(Relevance) 결과와, 비용(Cost), 매출(Revenue), 리스크(Risk) 관점의 영향(Financial Impact)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 순위를 도출합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총 9개의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ICT 융복합화, 소셜 &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기후변화와 신 기후체제에 대해서는 Part 2 '비즈니스 케이스'를 통해, 나머지 중요 이슈에 관해서는 Part 4 'Non Financial Statement'를 통해 관리 방법과 성과, 목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중요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배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 p.62 Governance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참조
2) 세부 참조 가이드라인은 p.91 Non-Financial MD&A 참조
3) 전략 이슈 - pp.26-30 사업 실적 및 분석, 리스크 이슈 - pp.64-67 Risk Management Report 참조
4) pp.36-37 Context on Material Issue 참조
5) 제3자 전문기관(한국생산성본부) 리서치 및 자문 의견 반영

중요 이슈(MATERIAL ISSUES)

SK텔레콤이 2015년 선정하고 있는 핵심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MATERIAL ISSUES							
Level	Material Issues	GRI Aspect	Relevance	Impact			Page
				Cost	Revenue	Risk	
Core	ICT 융복합화 (ICT Convergence)	Economic Performance	High				pp.42-44
	퀄리티 네트워크 인프라 (Network Quality & Risk Mgt)	Non-GRI	High				pp.97-98
	고객 유지 중심 경쟁 패러다임 (Customer Retention & Responsible Marketing)	Marketing Communications	High				p.45
		Product & Service Labeling					
Moderate	소셜 &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Social & Business Innovation)	Indirect Economic Impact	Moderate				pp.46-48
	기후변화와 신 기후체제 (Climate Change & Paris Convention)	Energy / Emissions	Moderate				pp.49-51
	데이터 프라이버시 (Data Privacy)	Customer Privacy	High				pp.98-99
Relevant	공급망 지속가능성 (Supply Chain Assessment & Assurance)	Supplier Assessment	Relevant				pp.121-125
	동반 성장 (Business Partner Mutual Growth)	Non-GRI	Relevant				p.99
	인적 자본개발 (Human Capital Development)	Employment	Relevant				pp.94-95
		Training & Education					

CONTEXT ON MATERIAL ISSUES

ICT 융복합화 (ICT Convergence)

전통적인 모바일을 넘어 2nd 디바이스, 웨어러블(Wearable Device), 사물인터넷(IoT)의 본격화는 서비스와 융합된 신규 하드웨어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많은 양의 데이터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ICT 융복합화(Convergence)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장기적 추세는 SK텔레콤의 중장기적인 사업모델 및 가치창출 모델 변화와 직결되는 동시에, ICT 기술이 갖는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전략인 생활가치 플랫폼, 통합 미디어 플랫폼, IoT 플랫폼 전략을 통해 이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42-44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고객 유지 중심 경쟁 패러다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 과열을 억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및 유통구조 건전화를 목적으로 강화된 세부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법 도입에 따라 이용자 후생 확대,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기변 중심의 경쟁 구도 전환 등 시장의 경쟁상황도 변화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유치 기반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하는 본원적 경쟁력 기반의 리텐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여 마케팅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2015년 평균 해지율의 감소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번호 이동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해지율인 월평균 해지율 1.5%를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45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퀄리티 네트워크 인프라(Quality Network Infra)

4세대(4G) 네트워크에 이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통신 인프라 및 품질은 SK텔레콤의 본원적 서비스 경쟁의 기반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애는 경제 및 사회의 시스템 붕괴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연속성 위험(Business Continuity Risks)으로 까지 이어집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위험에 더욱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복력과 신뢰성 있는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다면, 대규모 서비스 실패에 따른 매출 감소, 수리 및 복구를 위한 예상되지 않은 자본 지출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품질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하는 한편, 통신장애 및 기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98-99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소셜 & 비즈니스 이노베이션(Social & Business Innovation)

ICT 기술은 모든 경제 주체간의 연결, 지식과 기술의 공유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입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이 아닌, 창조적 아이디어의 실현, 사업화 측면과 창업에도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닌 혁신과 창조에 기반하는 국가 경제 모델인 '창조경제' 실현에도 ICT기술이 근간이 됩니다. SK텔레콤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인 창조경제 실현과 ICT의 경제적 가치에서 점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ICT 생태계 진작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및 회사와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46-48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기후변화와 신 기후체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로 신 기후체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한국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한국은 2015년 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권을 총량 규제하는 방식의 기후변화 대응 규제로, 대상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기업간 자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가속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및 환경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는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공급에 의존하는 SK텔레콤에 재무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에서 청정,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의존 구조의 변동은 SK텔레콤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49-51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데이터 프라이버시 (Data Privacy)

휴대 전화,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여 고객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정보서비스),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 통신회사가 저장하고 있는 주요 정보들은 3rd Party를 통해 활용되거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연계되어 직접적 매출 발생에 기여하므로 관련 이슈의 중요성과 영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 정보의 활용은 최근 인권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사 인권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 영역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98-99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Progress on Material Issues

ICT 융복합화 (ICT CONVERGENCE)

생활가치 플랫폼

Progress	2 nd 디바이스 가입자 수	Long-term Target
생활가치 플랫폼은 1) 기존 가입자 및 2 nd 디바이스 가입자 중심으로 세분화된 니즈에 부합하는 플랫폼 제공을 통한 추가 가치 창출, 2) OTT영역에서 새로운 생활 가치를 제공하는 신규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2 nd 디바이스 (T Outdoor, T Kids, T Pocket-Fi, T Pet) 가입자 수는 59.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부 통계기준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 점유율은 86.6%입니다. '15 — 59.9만 명	- 2 nd 디바이스 가입자 누적 160만 명 확보 (by 2016) - 향후 고객의 생활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입자를 확대하여 생활가치 플랫폼 서비스 1천만 가입자 확보 (by 2018)

통합 미디어 플랫폼

Progress	B tv + B tv mobile 가입자 수 (누적)	Long-term Target
통합 미디어 플랫폼은 유선 IPTV, 케이블, 무선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토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국내 1위 미디어 사업자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13 — 355만 명 '14 — 520만 명 '15 — 757만 명	- 가입자 기반 및 콘텐츠 경쟁력 확대, 옥수수(oksusu) 서비스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확장 추진을 통해 통합미디어 플랫폼 가입자 1,500만 명, 연매출 1.2 조 원 달성 (by 2018)

IoT 플랫폼

Progress	IoT 플랫폼 부문 매출	Long-term Target
IoT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의 장점을 통해 연동 디바이스와 제휴 업체의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IoT 플랫폼 부문 매출은 사물 통신을 위한 데이터 요금제에 따른 회선 요금과 플랫폼 사용료, M2M 통신모듈, 영역별 특화 단말, 장비 대금의 솔루션 매출로 구성됩니다. '15 — 7,333억 원	- 스마트홈 누적 40만 가입자 달성 (by 2016) - IoT 플랫폼 글로벌 시장 진입 (by 2018) - B2B 포함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확대하여 8,238억 원의 매출 달성 (by 2016)

고객유지 중심 통신시장 패러다임 전환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 통한 고객가치 확대

Progress	월평균 해지율	Long-term Target
적극적인 유지 중심 정책과 본원적 서비스 차별화를 기반으로 월평균 해지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13 — 2.6% '14 — 2.3% '15 — 1.5%	- 1% 수준의 월평균 해지율을 달성하여 고객 유지 중심의 통신시장 패러다임 전환 완성 (by 2018)

New On Track Need for Improvement

퀄리티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및 운영 리스크 관리 통한 품질

Progress	중요 '통신장애' 사건 발생*	Long-term Target
SK텔레콤은 2015년 미래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가장 빠른 LTE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선정되는 등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데이터, 통화 품질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3 — 1건 '14 — 1건 '15 — 1건	- 장기적인 투자 집행 및 운영리스크 관리를 통해 (0)Zero 네트워크 장애 달성 (by 2018)

*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대형 장애 발생 건 수 기준

신 기후체제 대응전략

에너지/온실가스 운영 효율성 확대

Progress	온실가스 집약도	Long-term Target
LTE, 5G 등 망 고도화에 따라 온실가스 집약도는 소폭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기지국, 중계기 등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사옥 내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2015년 온실가스 집약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상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전력망 도입 등 온실가스 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 — 55.05 tCO₂e/십억 원 '14 — 57.09 tCO₂e/십억 원 '15 — 54.64 tCO₂e/십억 원	- 평균 온실가스 집약도 연 2% 감축 (by 2020) '18 — 54.48 tCO₂e/십억 원 '19 — 53.39 tCO₂e/십억 원 '20 — 52.32 tCO₂e/십억 원

소셜 &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SOCIAL & BUSINESS INNOVATION)

Bravo! Restart

Progress	Bravo! Restart 창업 지원 수 (누적)	Long-term Target
Bravo! Restart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창업 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 BM을 발굴하는 플랫폼으로도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 — 10개팀 '14 — 23개팀 '15 — 34개팀	- 지속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5개 팀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by 2018)

데이터 프라이버시

고객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Progress	유통망 고객정보 보호 실태 점검	Long-term Target
현장조직, 비즈니스 파트너, 유통망에서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핵심적인 보안 이슈를 발견 및 조치하였습니다.	'13 — N/A '14 — 1,800개(41.9%) '15 — 4700개(100%)	- 중대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0 (Zero) 유지, 연간 유통망 대리점 방문 Audit 비중 100%(전수조사) 유지 (by 2016~2018)



>
Articles

ARTICLE 1. TRANSFORMING TO THE PLATFORM PROVIDER	42
ARTICLE 2. SHARING THE INNOVATION	46
ARTICLE 3. NEW CERTAINTY: PARIS PACT & CLIMATE CHANGE	49

미래 본격 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

SK텔레콤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혁신적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전환을 통해 이동통신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의 확산으로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가 정보통신(ICT) 시장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양적, 질적 팽창으로 인해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별적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다양한 고객 그룹들 간의 거래를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개 수단(Intermediary)으로서, 가입자와 이용자를 끊임없이 모으게 하고 록인(lock-in) 효과를 갖도록 하는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플랫폼은 기술적인 운영표준(iOS, Android OS 등), 가입자 기반 서비스 체계(Facebook, Twitter 등), 시장(Amazon, Google store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최근 ‘개방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그 형태와 규모가 진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족 위한 맞춤형 생활가치 플랫폼 ‘펫트윈’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에 충분히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화(Transformation)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넘은 개방과 협력을 실천하여 과감한 성장 사업 포트폴리오를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가치, 통합미디어, IoT 3대 플랫폼을 축으로 기존 SK텔레콤의 통신 자산 및 역량을 활용해 각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강화로 형성된 “홈” 기반의 경쟁력은 IoT 및 생활가치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너지가 극대화 되는 등 각 영역은 성장 단계에서 상호 연계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헬스케어, 솔루션 등 기존 성장사업은 3대 플랫폼 영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성장성을 가진 사업기회를 지속 모색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하고, 개방과 공유의 원칙하에 벤처스

무엇이 이슈인가?

-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고도화, ICT 기술 융복합화에 따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사업모델 및 가치 창출 모델에 변화로 이어짐
- ICT기술이 갖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통합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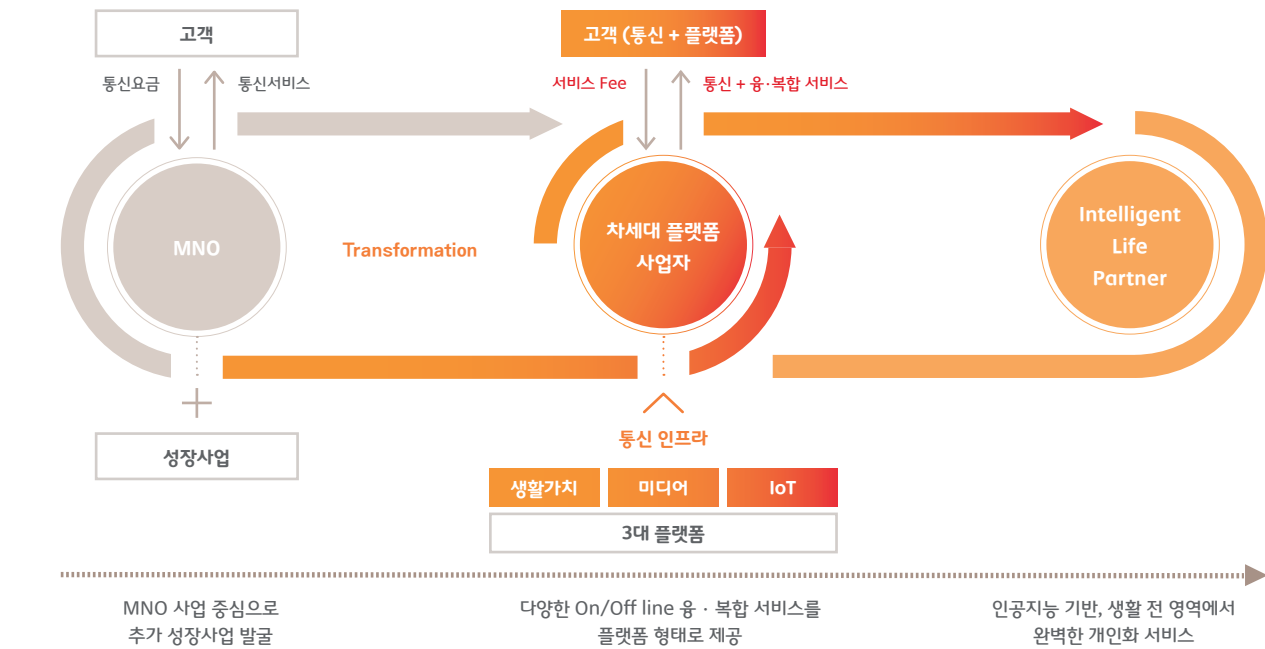
SK텔레콤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통신 인프라 및 가입자 기반으로, ‘생활가치플랫폼, 통합 미디어 플랫폼, IoT 플랫폼’의 3대 차세대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사업모델 변화
-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가치 혁신 주도

어떻게 성공을 측정하는가?

- 2018년까지 생활가치 플랫폼 50개 서비스 출시, 가입자 1천만 명 확보
- 2018년까지 통합 미디어 플랫폼 가입자 1,500만, 연 매출 1.2조 원 달성
- 2018년까지 IoT 플랫폼 매출 4,500억 원 달성

통신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타트업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 변화해 가겠습니다.

생활가치 플랫폼 - 고객의 일상 영역에서 통신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 제공

SK텔레콤의 첫 번째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은 고객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생활가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생활가치 플랫폼이란 불편한, 비효율이 존재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고객에게 통신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여 편의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플랫폼 사업을 의미합니다. 생활가치플랫폼은 가입자기반, 빅데이터, 요금제, 단말, 제휴, 멤버십 등 기존

MNO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규 마이크로 세그먼트(Micro Segment) 시장을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다양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해 각 세그먼트에 최적화된 콘텐츠, 커뮤니티 및 커머스 기능을 제공하고, 월정액·커머스·광고·수수료 등 서비스 특성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하여 SK텔레콤은 2015년 T키즈폰, T아웃도어, T펫 등 2nd 디바이스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으로 진화 가능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입자 기반을 벗어난 OTT영역의 상품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나가는 영역의 two-track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객의 생활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입자를 확대하여 ‘18년 50여 개 서비스, 1천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통합 미디어 플랫폼 -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두 번째 차세대 플랫폼 전략은 ‘통합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유무선 미디어 경쟁력을 지속하는 한편, 분절되지 않은 통합된 경험(Seamless)을 제공하는 통합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합 미디어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와 시청경험을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유선 IPTV, 케이블, 무

044



1



2

1. 부모의 통신사 관계없이 연동할 수 있는 '클럽T키즈'
2. 실종 위험에 취약한 치매어르신 안전을 위한 'T케어(T Care)'

선 OTT 등 멀티 채널(Multi-Channel)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토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IoT 서비스 플랫폼 -

모바일 기기를 넘은 모든 것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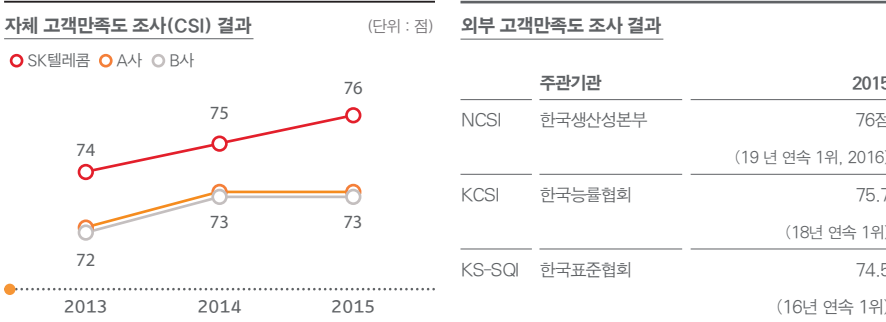
SK텔레콤의 세 번째 '차세대 플랫폼' 전략은 'IoT 서비스 플랫폼' 육성입니다.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의 확산, 타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SK텔레콤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솔루션 운영, 가입형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IoT 서비스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oT 하이브리드(Hybrid) 네트

워크 구축 등 소물인터넷 전용망을 기반으로 부산, 대구 등과 '스마트시티' 협력, 고려대 '스마트 캠퍼스', 한전 나주 에너지밸리의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건설, 에너지, 보안, 자동차, 도시 인프라 등 이종 산업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 까지 최고 수준의 IoT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겠습니다.

045

CASE : SK텔레콤, 1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달성

*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기준



SK텔레콤은 최고의 고객가치를 지향하는 고객공감 CEM(고객경험관리,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월 CEO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들이 모여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하면서 회사의 운영방향을 정하는 '고객중심경영회의'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SK텔레콤은 국내 3대 고객만족도(NCSI, KCSI, KS-SQI)에서 최장기간 1위 기록(NCSI 기준 19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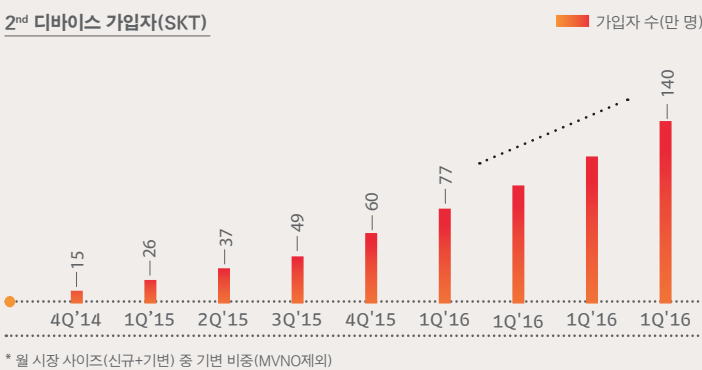
LINK TO FINANCIAL MATERIALITY 1

2nd 디바이스 시장 주도를 통한 장기적 수익 창출

2015년은 스마트워치, 밴드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며 2nd 디바이스 기기가 대중화된 원년입니다. 국내 미래부 통계 기준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 수는 2015년 연말 기준 36만 3천 여 명으로, SK텔레콤은 86.6%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2nd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입자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전세계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은 2019년 까지 연 평균 42.6%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T키즈, T아웃도어, T펫, T포켓파이 등을 중심으로 2nd 디바이스 시장 성장을 이끌며, 2nd 디바이스 고객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생활가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가치 플랫폼은 디바이스 연계 상품 출시를 넘어 향후 라이프사이클,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타겟 세그먼트(Segment)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말까지 140만 명의 2nd 디바이스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140만 명의 가입자는 2nd 디바이스의 가입자당 요금을 10,000원으로 추정하여 계산시 약 1,680억 원의 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2nd 디바이스 가입자 목표

약 **140** 만 명

가입자 달성시 연 수익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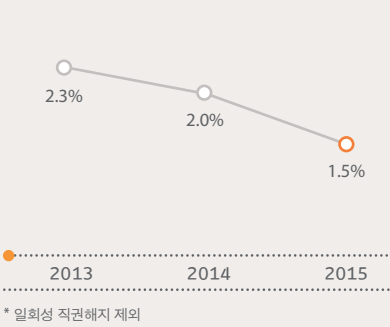
약 **1,680** 억 원

*2nd 디바이스 평균 요금 10,000원 적용,
가입자 140만 명 달성 가정시 추정

LINK TO FINANCIAL MATERIALITY 2

고객 유지(Retention) 중심 정책을 통한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의 재무적 효과

월평균 해지율



해지율 감소에 따른 연간 고객유지 효과

약 **169** 만 명

연간 가입자 유치 비용 절감 효과

약 **4,147** 억 원

번호이동시장의 경쟁 과열은 가입자 이탈 가속화 및 장기고객 이탈 확산으로 이어져 SK텔레콤의 수익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비용 소모적인 번호이동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기변 중심의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소모적 보조금 지출을 통한 신규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원적 상품 및 서비스 경쟁 위주로 마케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기변경 중심 기조를 유지하여 비용 효율적 시장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기변 중심 시장 운영은 고객 이탈 방지 등 중장기적으로 고객 로열티 제고에 기여하여 안정적 고객기반 유지 및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된 가입자 기반은 향후 생활가치 플랫폼 등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고객 유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인 해지율의 경우, 2015년 전체 월 평균 해지율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해지율입니다. SK텔레콤의 2015년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모집 수수료 기준 1조 1,708억 원 수준이며, 신규 가입자 1인당 비용은 약 24.4만 원입니다. 2015년 월평균 해지율 0.5% 감소는 연간 약 169만 명 이상의 고객 유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147억 원의 가입자 유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ICT 기반 사회적 혁신 (Social Innovation)의 현재와 미래

SK텔레콤은 ICT 기술에 기반하여 변화를 이끄는 한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사회적 혁신을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Braille Smart Watch'

무엇이 이슈인가?

- ICT기술은 모든 경제 주체간의 연결, 지식과 기술의 공유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 기술로 창업,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통신 기술 역량 및 ICT 기업 가치사슬내 자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 극대화 필요

SK텔레콤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브라보리스타트' 프로그램으로 ICT를 통한 소셜이노베이션 기반 확대
- IoT 전용망 구축 및 생태계 조성, 오픈형 데이터 센터 등 지속적인 사회-사업 혁신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사업자간 연합을 통해 혁신의 규모화 달성

어떻게 성공을 측정하는가?

- 2018년까지 누적 65개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 2020년 까지 세계적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이노베이션 플랫폼 주도 지속
- 2020년까지 국제표준기준 5G 상용화 및 시범서비스 성공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원

SK텔레콤은 2014년부터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세종·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여 조성한 '창조마을'은 스마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농촌에 ICT를 접목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의 무인판매시스템 도입, 저온창고 모니터링, 스마트 팜 등 ICT 농촌에 농업의 경쟁력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창조 마을'은 농촌 마을의 ICT형 롤 모델로서, 2015년 12월 평창 계촌마을(무인판매대), 문경 오미자권역(스마트팜), 강진 녹향월촌(관광안내) 등 3곳의 '창조마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부터 전국 확대될 계획입니다.

'브라보! 리스타트'로 이끌어 내는

기술기반 사회 혁신

'브라보! 리스타트'는 기존의 창업 지원 체계와 차별화된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결집하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성

장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적 지원 체계를 통해 '창조경제'의 한 축인 ICT 기반의 창업을 달성합니다. '브라보! 리스타트' 3기의 가장 큰 성과는 참여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이디사운드와 비주얼캠프 등이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마그나랩의 애플리케이션은 2015년 구글플레이 전 세계 추천앱에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닷은 지난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ITU(국제전기통신연맹) 텔레콤 월드 2015'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4개 팀이 참여한 '브라보! 리스타트'에는 대한민국 ICT 분야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단계 4기 모집에도 759개 팀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Braille Smart Watch'

'브라보! 리스타트' 3기로 참여한 '닷(DOT)'은 점자 '스마트워치' 완제품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브라보! 리스타트'를 통해 '닷'이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획 컨설팅, 개발 자금, 사무공간 등을 1년간 지원해왔으며, MWC에도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대표회사로 소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닷'의 '점자 스마트워치'는 총 30개의 작은 핀이 내장된 세계최초 시각장애이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스마트폰 문자와 SNS 등 텍스트를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핀의 모양을 변형해 점자 형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기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TTS(-Text-to-speech)' 서비스는 텍스트를 소리로 변환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스마트워치'는 기기

를 착용한 고객만이 손가락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SK텔레콤은 IoT 통신기술 연합인 LoRA Alliance의 회원사로서 '16년 3월 LTE-M 전국망 상용화에 이어 '16년 상반기내 국내 최초로 LoRA 전국망을 구축하여 LTE-M+LoRa Hybrid 형태의 IoT 전용망을 완성함과 동시에, 기존 통신산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함께 IoT 산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과감한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900MHz 대역 IoT 주파수 출력기준 상향 행정예고와 함께 국내 IoT 관련 신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은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통해, 첫째 빠른 속도를 보장하지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존 네트워크와는 달리, 저용량, 저전력 특성 기술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미래 IoT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IoT 유망 벤처와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여 IoT 서비스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IoT 서비스 활성화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객 지불의향 수준이 낮아 망을 제공하고 월정액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BM)만으로는 운영되기 어려운 IoT 서비스 특성에 착안하여,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벤처와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Playground'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월정액 방식의 모델을 넘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벤처 및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디바이스 제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벤처 및 스타트업의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SK텔레콤의 IoT 생태계 조성 노력은 그간 통신업계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해오던 차원을 넘어 전용망, 디바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이동통신사간 경쟁구도는 물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벤처 및 스타트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글로벌 통신 - 모바일 서비스 연합체 'TIP' 설립

SK텔레콤은 2016년 인프라 고도화 및 모바일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글로벌 연합체 'TIP(Telecom Infra Project)'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TIP'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하여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 등 각국을 대표하는 통신사들과 페이스북, 노키아, 인텔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IP' 멤버들은 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통신 인프라 핵심 기술 공유 및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TIP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선진시장(Advanced Market)을 위한 5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페이스북이 설립한 데이터처리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 'OCP(Open Compute Project)' 내 'OCP Telco Project'의 주요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TIP'은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하면서, 통신 인프라를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TIP', 'OCP'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글로벌 이동통신사들과 공유해 5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상 수상
2. 대형 재난 상황에서 공중 방송 채널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그룹통신기술을 노키아와 공동개발



5G 혁명을 위한 글로벌 혁신센터

5G 기술 통해 미래를 열 ‘글로벌 혁신 센터’

한편, SK텔레콤은 범 국가적 아젠다인 5G 관련 기술 역량 축적 및 Tech leadership 제고를 위해 종합기술원 산하 5G Tech Lab을 '15년 신설하여 주요 장비 제조사와 공동으로 5G 핵심 기술 개발 및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5G 포럼 의장사로서 국내 5G 생태계 선도와 함께, 종합기술원 5G 테스트베드(Test-Bed)를 기반으로 관련 중소 기업 및 신규 스타트업에 5G 시험 환경 제공 및 신규 서비스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인텔, 로데슈바르츠 등 5G 기술 진화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테스트베드와 미래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공간을 포함한 5G 혁신센터를 지난 2015년 10월 구축하였

습니다. SK텔레콤은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전초기지 삼아 2018년 기술 표준화, 2020년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5G는 고용량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최소 초당 1Gbps의 빠른 전송 속도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우리의 삶의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혁신센터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영상/동작 인식, 드론, 로봇, VR/AR 등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 될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진화시키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신 기후체제 대응

SK텔레콤은 글로벌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ICT 기술과 플랫폼을 통한 기후 변화 방지 노력과 함께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New Certainty: Paris Pact & Climate Change

파리협약에 따른 신 기후체제 출범

1997년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체제는 일부 선진국가들에 한정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비롯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에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총 195개국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 참여국들은 자발적으로 수립한 국가별 기여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5년마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제출하도록 되었으며, 신 기후체제의 실체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게 됩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15년 6월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높은 수준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발전량의 70% 가까이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 배출 목표량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구조의 저탄소화가 촉진되고 기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역시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사업 환경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도는 탄소배출권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후변화 대응 규제로, 2025년까지 3차의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을 유·무상 할당하고, 이를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기업간 거래하도록 하여 사회·환경적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정, 2011년의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2012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꾸준히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고, 2015년 1월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방식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연도별로 할당한 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상쇄 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을 인정하며, 외부 감축 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에 발생 예정 배출권인 'Credit'은 기업간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할당 목표 미준수 시에는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배출권거래제

SK텔레콤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1차 이행기간(2015년 ~ 2017년) 동안 예상 배출량은 누적 234.3만 톤, 정부 할당량은 199.1만톤으로 총 35.2만 톤의 배출할당량 부족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배출권 매입을 시작할 경우 가격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규제 및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호적 배출권거래제 환경 조성, 효과적 배출권 거래제 대응,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3대 전략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호적 배출권거래제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친환경 ICT 솔루션 활용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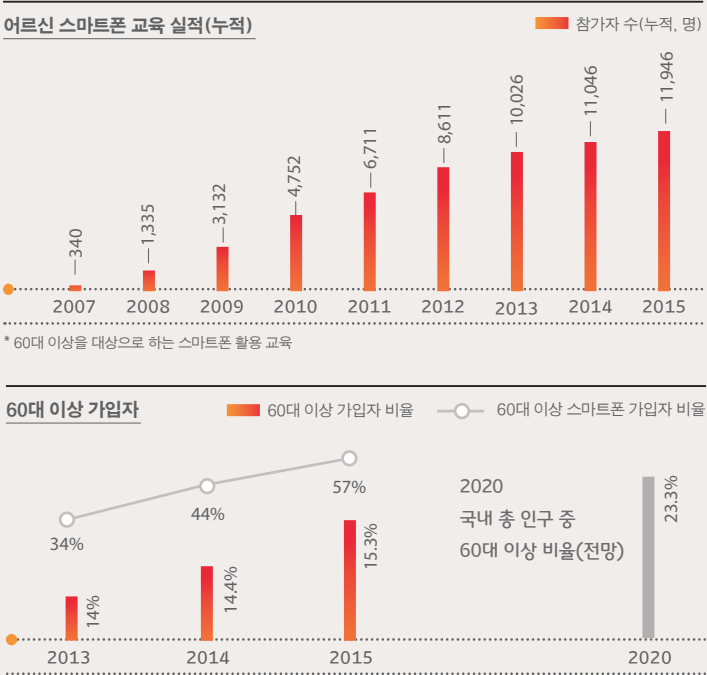
LINK TO FINANCIAL MATERIALITY 3

실버층 디지털 격차 해소(Digital Inclusion)로 장기적 성장 모색

국내 정보격차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장노년층의 스마트정보화 수준은 56.3%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정보화 수준이 낮은 장노년층은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노출도 높습니다.

SK텔레콤은 장노년층을 위한 실버 요금제,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T실버 서비스 등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은 60대 이상 고객 비중(3년간 1.3% 증가) 및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의 장기적 증가(3년간 23%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K텔레콤의 장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은 사회적인 정보 격차에 따른 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장노년층 고객의 스마트폰 전환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및 성장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015년 말 기준 60대 이상 가입자가 100% 스마트폰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SK텔레콤은 연간 3,937억 원의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2

1. 무인점포를 위한 스마트에너지 관리서비스 개발
2. 편리성, 안전성과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적 실행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산업이며 GeSI, UN-ITU 등 ICT 솔루션의 온실가스 감축 연구 활성화 및 사업 확대를 통해 통신업계의 배출권 확보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업종의 배출 특성 및 상이성을 고려한 잠재 감축량에 대해 민·관 공동 연구를 실시하여 통신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네트워크 및 사옥관리 부문의 내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배출권 및 탄소크레딧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할당 목표를 달성해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2017년까지 연간 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중계기 효율화, 자연공조 확대 적용 및 WCDMA망과 2.1Ghz LTE망의 통합 등 다양한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옥관리 부문에서는 기존 장비 고효율화, 전등부하 감소, 냉·난방 온도 변경 등을 통해 연간 1.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부 감축 활동을 통해 충족되지 못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다각적 거래방식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 온실가스 수집·산정·보고 체계를 강화 및 배출권거래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중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산정계수 및 알고리즘 변경, 데이터 이력 관리 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수집 및 산정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시행 및 기후변화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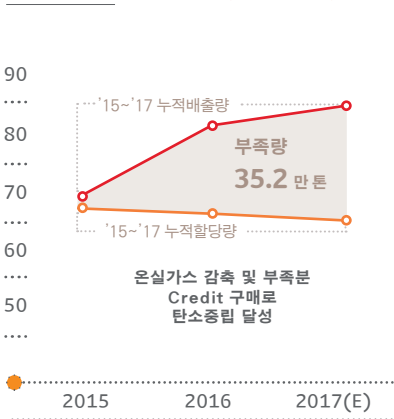
ICT 융합 에너지 신사업추진

파리 협약 이후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 100조원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에너지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SK텔레콤은 2016년 1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신사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SK텔레콤과 한국전력 공사는 2020년까지 총 5,000억 원(SK텔레콤 2,000억 원, 한전 3,000억 원) 규모를 에너지 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전력과 ICT 기술이 융합된 에너지사업 분야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협력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신사업 관련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4월에는 나주 빛가람에너지밸리 내 'SK텔레콤-한전 Collaboration Center'를 오픈했습니다.

SK텔레콤, K-water와 스마트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계획



첨단 전력과 ICT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oT 전용망을 에너지밸리 내에 우선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통신망 구축 사업과 IoT 전용망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계측 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의 성능 검증을 추진합니다.

미래형자동차 분야에서는 도로의 시설물과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차량운행 관련 교통·도로정보·날씨정보 등을 수신하여 차량 돌발 상황을 사전 인지하는 V2I(Vehicle to Infra) 기술과 유선 충전기 없이 차량을 충전공간에 주차하면 자동 충전하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기충전인프라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스템과 정산시스템 간 연계기술 개발, T맵에 충전소 위치·충전기 종류·요금 등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반영한 주행경로 추천 기술 개발 등 전기차 충전 기술 개발과 시범운행을 통해 향후 관련 사업 모델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LINK TO FINANCIAL MATERIALITY 4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에너지 신사업

2015년 에너지 솔루션* 매출

약 **558** 억 원

*에너지솔루션: BEMS, FEMS, TEMS, 스마트그리드 및 무선원격검침(AMI) 솔루션 포함

에너지 솔루션 매출(2012-2015) 누적

약 **1,170** 억 원

SK텔레콤의 대표적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인 'EMS(Energy Managemet System)'은 빌딩, 공장, 공공기관, 차량, 시설물 대상의 설비 운영 개선점과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SK텔레콤은 빌딩, 공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절감방안을 도출하고, SK텔레콤이 EMS 솔루션, 고효율 장비 등을 선 투자, 구축한 뒤 절감 성과를 보증하여 계약기간 동안 절감 금액을 나누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클라우드 EMS는 대형빌딩, 백화점, 병원 등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 수집하며, 분석된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회,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2015년 SK텔레콤이 EMS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경우 약 1억 6,800만 원, 남양주 한양병원 은 1억 1,600만 원, 제주 한라병원은 1억 7,50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SK텔레콤은 에너지 최적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EMS 상품 경쟁력 제고, 스토어 및 홈 부문에서 신규 EMS 상품 출시, 수요관리 플랫폼 개발 등 EMS 관련 기존 상품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에서는 제주도, 창원, 부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총 490억 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 실행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송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한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Governance

이사회 프로필	54
거버넌스 리포트 (GOVERNANCE REPORT)	56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 (RISK MANAGEMENT REPORT)	64
투명성 리포트(TRANSPARENCY & INTEGRITY REPORT)	68



정재영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2008.03)

(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2010~현재)
(전) 아태경제학회 회장 (2013~2014)
(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2003~2006)
기업시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장동현

대표이사 사장
(2015.03)

(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2015~현재)
(전) SK플래닛 COO 부사장 (2013~2014)
(전) SK텔레콤 CMO 마케팅부문 부사장(2011~201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오대식

사외이사
(2013.03)

(현)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대표 (2016~현재)
(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08~2016)
(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07~2008)
감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이재훈

사외이사
(2014.03)

(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2014~현재)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2008~2009)
(전) 산업자원부 제2차관(2007~2008)
감사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안재현

사외이사
(2014.03)

(현)KAIST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2015~현재)
(전) KAIST 경영대학 대외부학장(2013~2015)
(전)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2011~2013)
감사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조대식

사내이사
(2013.03)

(현)SK(주) 대표이사 사장 (2013~현재)
(전)SK(주) 사업지원부문장 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
(2011~2012)
(전)SK(주) LNG사업추진TF장 (2011)

SK텔레콤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 4명의 사외이사로 총 6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모두 SK텔레콤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영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여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 이후 독립성을 충족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에 대해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에 준하여 이사회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 산업경험 및 경력(experience & tenure) 등 전문성, 독립성의 수준 등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출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더불어 SK텔레콤 이사진의 전문역량의 균형과 다양성(Skill Balance & Divers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경영·회계·법률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의 발전, 리스크 관리,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함을 SK텔레콤 기업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가 목표로 하는 이사회

의 전문성에 비교하여 부족한 부문(Skill Gap)의 전문가를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기준

독립성 결격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해관계 상충	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관련자 2.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3. 회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이사 선출 프로세스



이사회

SK텔레콤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8명(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3명)으로 운영하던 이사회 규모를 6명(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2명)으로 축소하여 사외 이사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비중은 66.7%로 국내 대기업 상장사 평균(49.5%,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13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사의 참석률은 99%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내 산하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로 구성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멤버를 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SK텔레콤은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의 심의,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사항, 내부

회계 관리자와 외부 감사인이 보고한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등을 감사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이사회

SK텔레콤 이사회는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계획, 내부거래 등의 이해관계 상충, 투명한 보상 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과 함께 회사가 처할 수 있는 조세리스크, 재무적리스크,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등 회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검토 및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및 평가

SK텔레콤은 이사의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임기 만료 후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평가에는 사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 이사회 책임 및 역할, 이사회 활동 수행 평가 등이 포함되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합니다. 임기 만료 이후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기존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과 책임

위원회명	구성	권한 및 책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1 / 사외이사 2 사외이사 3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이사 직무집행 및 재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상법에 따른 이사회에 대한 조사,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일정 규모 이상 계열회사 수의계약 등 특정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사외이사 3 사외이사 4	- 대표이사의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 심의 - 차기 연도 투자계획 심의 및 당해 사업계획 일괄 변경 시 투자계획 심의 - 주요 투자의 변경(CAPEX의 10% 초과 시) /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 집행 실적
기업시민위원회	사외이사 3	- CSR 추진 방향 설정 및 심의 / CSR 추진활동 관련 이사회 보고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고충 처리 - 회사의 사회적, 환경적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종합적 검토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업시민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활동 현황(2015)				
회사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제 371차	2015.02.05	제31기 제무재표(안) / 제31기 영업보고서(안) / 사채 발행(안) SK브로드밴드와의 남산사옥 전대차 거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014년 4/4분기 사후 보고사항	87.5%	
제 372차	2015.02.24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100%	
제 373차	2015.03.20	대표이사 선임(안) / 이사회 의장 선임(안) / 위원회 위원 선임(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과 자금운용 거래(안) / SK브로드밴드(주)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안) / 자기주식 처분(안)	100%	
제 374차	2015.04.23	(주)네오에스네트웍스 성장 추진을 위한 출자(안) / 준법지원인 재선임(안) 2015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안) / 2015년 1/4분기 사후 보고사항	100%	
제 375차	2015.05.06	SK브로드밴드(주)와의 주식교환계약 승인(안)	100%	
제 376차	2015.05.29	SK브로드밴드(주) 주식매수(안) / SK플래닛(주)와의 Cloud Streaming 사업 인적분할 관련보고	100%	
제 377차	2015.06.25	2015년 3/4분기 SK C&C(주) 거래(안) / 2015년 3/4분기 인포섹(주) 거래(안) 사채발행(안) /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100%	
제 378차	2015.07.23	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 용역거래(안) / 엔트릭스(주) 성장 추진을 위한 출자(안) KIF(Korea IT Fund) 만기연장 추진(안) / SK텔레콤 CVC연장 추진(안) 중간배당(안) / 2015년 상반기 결산 보고 / 2015년 2/4분기 사후 보고사항 SK텔레콤 미디어 사업 추진현황	100%	
제 379차	2015.09.24	차세대 IT추진(안) / 2015년 4/4분기 인포섹(주) 거래(안) / 2015년 4/4분기 SK(주) 거래(안) SK플래닛(주)와의 유가증권 거래(안) / 자기주식 취득(안) /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계획	100%	
제 380차	2015.10.19	사채발행(안) / 2015년 3/4분기 사후 보고사항	100%	
제 381차	2015.11.02	(주)CJ 헬로비전 지분인수(안)	100%	
제 382차	2015.11.26	2016년 SK임업과의 거래(안) / 2016년 업무용 항공기 공동관리 계약(안)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 2016년 기지국 유지보수 용역(안) /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100%	
제 383차	2015.12.18	2016년 경영계획(안) / 2016년 1/4분기 SK(주) 거래(안) / 2016년 인포섹(주) 거래(안) / 2016년 SK브로드밴드와의 유선상품 재판매(안) / 계열 금융회사(SK증권)과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계열 금융회사(SK증권)과의 자금운용 거래(안) / 2016년 PS&M 고객단말채권 매입(안) / 2016년 고객점점채널 운영 용역(안)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2015)

위원회명	위원	개최일	의안 내역	이사 참석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장동현, 이재훈 안재현	2015. 4. 23	위원장 선임(안) - 장동현 이사	100%

투자심의위원회 활동 내역(2015)

위원회명	위원	개최일	의안 내역	이사 참석률
투자 심의위원회	정재영 오대식 이재훈 안재현	2015.04.22 2015.09.23 2015.11.25 2015.12.17	위원장 선임(안) - 이재훈 이사 주요 투자회사 현황 보고 주요 투자회사 현황 보고 2016년 투자계획(안)	100%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2015)

위원회명	위원	개최일	의안 내역	이사 참석률
감사위원회	오대식 이재훈 안재현	2015.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100%
			2014년 하반기 경영진단/감사 실적 및 2015년 감사 계획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SKTCH 용역계약(안)	
			2015년 1/4분기 인포섹(주) 거래(안)	
			2015~2017 외부감사인 선임(안)	
		2015.2.23	2014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201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제31기 감사보고서(안)	
			2015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5.3.19	2015년 고객사은품 지급 관련 계약(안)	
			2015년 2/4분기 SK C&C(주) 거래(안)	
			2015년 2/4분기 인포섹(주) 거래(안)	
			2015년 SK플래닛과의 VIP 프로그램 관련 거래(안)	
		2015.4.22	위원장 선임(안)	
			행복나래(주) 소모성 자재 구매(안)	
			2015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2015년 외부감사인 용역제공 일괄 승인(안)	
			2015년 회계감사 계획	
		2015.5.29	2015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5.7.22	2015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 증액(안)	
			201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결과	
		2015.11.25	2015년 상반기 경영진단/감사실적 및 하반기 계획	
			2016년 교환기 유지보수 용역(안)	
			2016년 전송장비/광선로 유지보수 용역(안)	
		2015.12.17	2016년 전기통신설비 임차거래(안)	
			2016년 유선망 용역 위탁(안)	
			2015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6년 매출채권 추심위임(안)	
			2016년 SK와이번스와의 용역거래(안)	

보상심의위원회 활동 내역(2015)

위원회명	위원	개최일	의안 내역	이사 참석률
보상심의 위원회	정재영 오대식 이재훈	2015.04.22	위원장 선임(안) - 정재영 이사	100%

기업시민위원회 활동 내역(2015)

위원회명	위원	개최일	의안 내역	이사 참석률
기업시민 위원회	정재영 오대식 안재현	2015.04.22	위원장 선임(안) - 안재현 이사	100%
			'BRAVO! Start Up' 추진경과 및 성과강화 방안	
		2015.06.24	2014 Annual Report(통합보고서) 핵심이슈	
		2015.09.23	2015년 윤리경영 실천 추진 현황 및 계획	
			2015년 동반성장 추진 전략 및 주요 성과	
			고객 공감 CEM 추진 활동	
		2015.11.25	배출권 거래제 대응방안	

성과와 연동한 임원 보수 지급

SK텔레콤은 2014년부터 총 보수 5억 원 이상의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수행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성과보수는 매출액, 영업이익, EVA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성과에 대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략과제 달성도, 전문성 및 기타 회사 경영성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기준 연봉의 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경우, 3대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 지속가능성 평가 성과 등 외부 인지 지표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솔루션 매출, 사회기여 솔루션 사업 매출 등의 환경·사회적 지표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보수 수령자 대비 임직원 보수 평균값 비율

최고 보수 수령자	직원 보수 평균값	비율	전년대비 증감비
716 백만 원	101 백만 원	7.09	-50.4%*

*2014년 비율 14.29 기준 2015년 비율 7.09의 증감비 계산값

이사 보수 지급 현황

	인원 수 (명)	지급 총액 (백만 원)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사내이사	4	2,266	567
사외이사	2	132	66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3	199	
총계	9	2,597	-

*2016년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

*2016년 보고일 현재 총 인원 수는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3명)

이사/임원 개인별 보수 지급 현황

	직위	지급 총액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
하성민	사내이사	716 백만 원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퇴직급여충당금 ○ 보수총액 716백만 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근로소득: 급여 163백만 원('15년 연봉. 이사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행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Position Grade에 따라 산정. 연간 급여 총액의 1/12를 매월 균등 지급하였으며 163백만 원은 이사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성과급 553백만 원('15년 초에 지급한 '14년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이며 Target Incentive와 Profit Sharing으로 구성. 이사의 성과보수 지급은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략과제달성도, 전문성 및 기타 회사 경영성과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 연봉의 0~200% 범위 내에서 지급. '14년 매출액 17조 1,600억 원, 영업이익 1조 8,250억 원(연결기준) 등 계량지표 측면에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시장 과열에도 불구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Market Leadership을 공고히 하였으며 (NCSI 17년 연속 1위, 세계최초 L3 상용화 등) Solution, IPTV, Healthcare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업의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Sustainability를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영성과급 553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기타소득 및 퇴직 소득은 해당사항 없음
지동섭	사내이사	527 백만 원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퇴직급여충당금 ○ 보수총액 527백만 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근로소득: 급여 82백만 원('15년 연봉. 이사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행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Position Grade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연간 급여 총액의 1/12를 매월 균등 지급하였으며 82백만 원은 이사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성과급 441백만 원('15년 초에 지급한 '14년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이며 Target Incentive와 Profit Sharing으로 구성. 이사의 성과보수 지급은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략과제달성도, 전문성 및 기타 회사 경영성과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 연봉의 0~200% 범위 내에서 지급. '14년 전략기획부문장으로서 매출액 17조 1,600억 원, 영업이익 1조 8,250억 원(연결기준) 등 계량지표 측면에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Market에서 SKT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영성과급 441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기타소득: 4백만 원 (사내 의료비 및 학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약 4백만 원 지급) - 퇴직소득은 해당사항 없음

* 2015년 지급 보수 5억 원 이상 이사/임원 기준, 퇴직한 이사/임원을 포함하여 기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이해관계자 참여 추진

책임 경영 거버넌스

SK텔레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핵심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8년 5월 기업시민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책임 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SK텔레콤 책임 경영 활동의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과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는 사외이사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중심경영, 동반성장, CSV 및 사회공헌, 투명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지속가능 경영 5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CSR 및 CSV 추진 활동 자문, 주요 이슈 및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RI 가이드라인(GRI G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행 보고서(COP) 등 지속가능성 국제 표준 기관들의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역할 및 참여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기업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등 기업시민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이사회와 지속가능경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업시민위원회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협의체 리드(LEAD) 편입 기업으로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회 대상 책임 경영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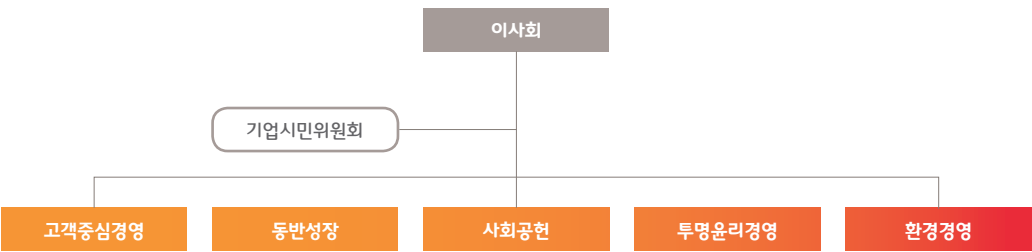
은 기업시민위원회에 대한 CSR 교육, 성과 평가 등 당사 최고이사결정기구의 CSR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SK텔레콤은 이해관계자를 고객, 협력회사, 구성원, 지역사회·NGO, 주주, 정부 등 6대 이해관계자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통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존속과 발전이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과 사회·경제의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밀접함이 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수립·공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SK텔레콤의 Commitment를 대내외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SK텔레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은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SK텔레콤의 모든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의, 사내 관련 조직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전사적 관점의 지침과 이해관계자 이슈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정책을 해외 법인을 포함한 SK텔레콤의 모든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사회적 책임' 관장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관리 및 처리하도록 담당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제로 운영됩니다.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조치 사항은 영향도가 크거나 중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됩니다.

CSR 고충 및 불만 접수

SK텔레콤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거나,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사례나 피해 사례에 대한 고충 및 불만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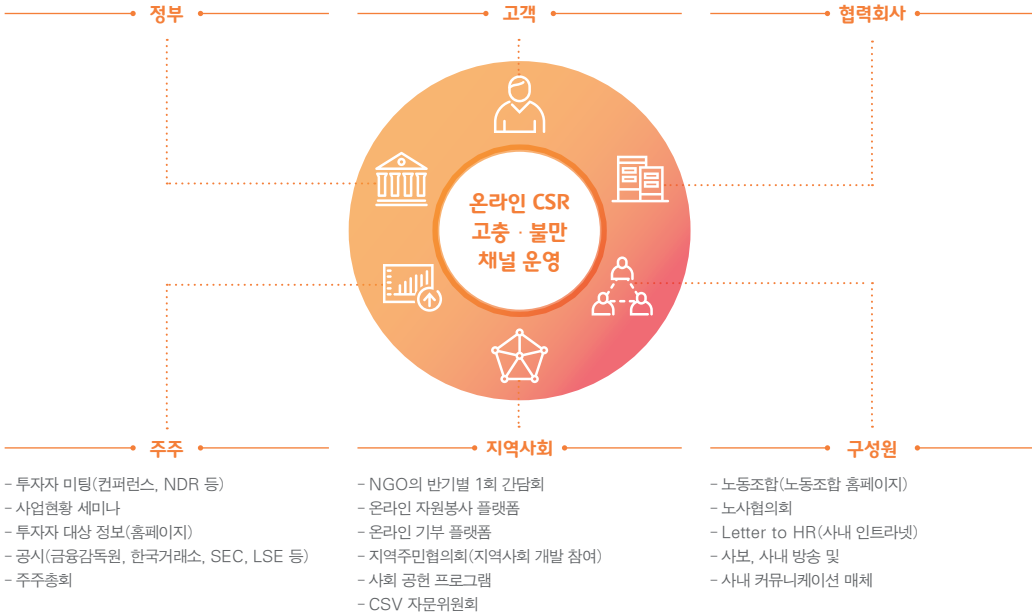
악하고 적극적으로 CSR 이슈를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홈페이지 내에 노동·인권·환경·윤리 등 이해관계자 CSR 고충·불만을 통합 수렴하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SR 고충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고충 내용은 사실 여부 확인 후, SK텔레콤 실무부서의 모니터링, 실사 등을 통해 적극 해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CSR 이슈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판단·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을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 정부 주관 정책간담회·토론회 참여 등을 통한 정책 제안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동반성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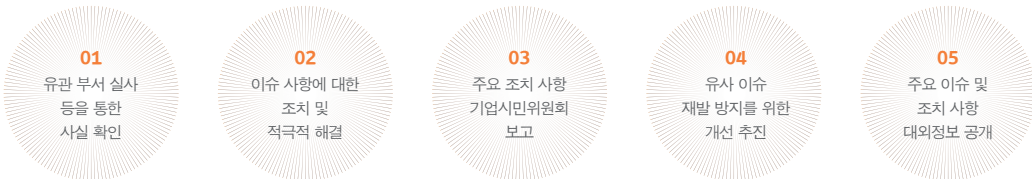
- 온라인 고객센터 T World
- CRM 설문조사
- 고객만족도 조사
- SK텔레콤 블로그
-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채널
- 연중 간담회 및 이벤트 실시

- VoP 접수 채널
- 협력회사 포털(Open2U)
- 상생협의회
- Partner's Day
- One-on-One 미팅
- 상생혁신센터 홈페이지



CSR 고충·불만 채널 운영

인권·노동·사회·환경·정보보호 이슈 관련 고충 및 불만 접수 프로세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SK텔레콤은 2007년 국내 4대 기업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한 이래, 로컬 협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창립 멤버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외 사회 문제 해결 및 글로벌 CSR 트렌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개 부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유엔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우수 기업 협의체인 리드(LEAD) 기업에 편입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 기업으로서 리드(LEAD) 중점 프로젝트인 보드(Board) 프로그램(이사회 대상 CSR 교육)을 기업시민위원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글로벌 CSR의 우수 실천 사례를 국내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유엔 인권 기본 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CEO 명의로 천명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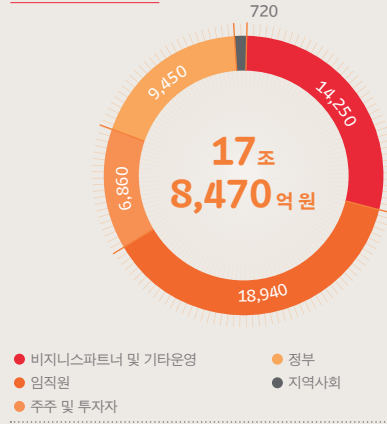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시스템 표준인 ISO 26000 준수를 비롯하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통합 보고(IR, Integrated Reporting)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SK텔레콤의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08년부터 8년 연속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월드에 편입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분배

SK텔레콤은 2015년 연결기준 17조 1,370억 원의 영업수익을 포함한 재정 투자 수익, 자산 매각 수익, 기타 수익을 합해 총 18조 4,78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창출된 가치 중 총 17조 8,470억 원이 기업의 미래가치와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었으며 모든 분배를 마치고 유보된 총 6,31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자본 총계에 가산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5년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 생산성 향상 투자, 에너지 절약 투자 등으로 정부로부터 총 270억 원의 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경제적 가치의 배분

(단위: 억 원)



유보된 경제적 가치

6, 310 억 원

비즈니스파트너 배분 및 기타운영 비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 공급회사 지급 수수료, 상품 구매 비용, 연구 및 개발, 네트워크 투자 등 비즈니스 파트너 배분 및 기타 운영 비용
임직원 배분 : 급여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주주 및 투자자 배분 : 주주 배당 및 이자 비용
정부 배분 : 법인세 및 기타 세금, 전파 사용 비용
지역사회 배분 :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적 투자, 인프라 지원 등의 간접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기부금

독립적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전사적 리스크 프로필과 리스크별 한도 수준을 정의하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별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사안별 잠재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즉, 회사가 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인지와 전략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 투자 리스크, 운영 리스크 및 명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노출 허용범위, 대응전략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전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은 CEO 직속 현장경영실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현장경영실은 리스크 프로필의 관리, 주요 리스크에 대한 담당 부서 매핑, 리스크별 대응 방안을 정의하고,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의된 리스크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리스크 인지와 전파, 대응 실행을 총괄합니다. 현장경영실은 긴급 리스크 발생시 CEO에 보고하고, 리스크 관련 사업총괄(COO)이 주관하는 전사 위기대응 상황실을 소집할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리스크

SK텔레콤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범위는 전략 리스크, 재무 리스크(시장, 금리, 조세, 환), 규제 리스크 등 사업 리스크 부문과 대형 고객불만, 고객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업 운영 리스크, 불공정거래, 금품 및 향응 등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성(사회책임) 리스크 등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괄합니다.

위기 대응 프로세스

SK텔레콤은 2014년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사 위기 대응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사 위기대응상황실은 사내 여러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특정 상황에 대한 언론 및 소셜 네트워크(SNS) 보도가 급증하거나, 동일 유형의 고객 불만(VoC)이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소집됩니다. 이러한 전사적 위기 상황은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장

애 발생,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와 관련한 수사 또는 보도 등을 포함합니다.

리스크 인식 범위 확대 및 기준 강화

2015년 SK텔레콤은 리스크 발생 시 관련 사업부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인지 및 전파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애에 관한 내부 리스크 인지기준을 강화하여, 이전 대비 낮은 고객 VoC 접수에도 리스크 상황으로 인지하여 사전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주요 장비 고장, 주요 포털 등의 실시간 검색어, 온라인 기사, SNS 이슈화 여부 등 인지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보 보안, 비즈니스 리스크, 명성 리스크 등의 인지 기준 또한 주요 포털 및 지상파 방송, 일간지 보도에 더불어 온라인 및 SNS의 여론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고객 및 대중의 인지 수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인식 기준 강화는 투자회사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부문별 자율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를 정립하

여 각 사업 부문의 자율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업부문별 선행점검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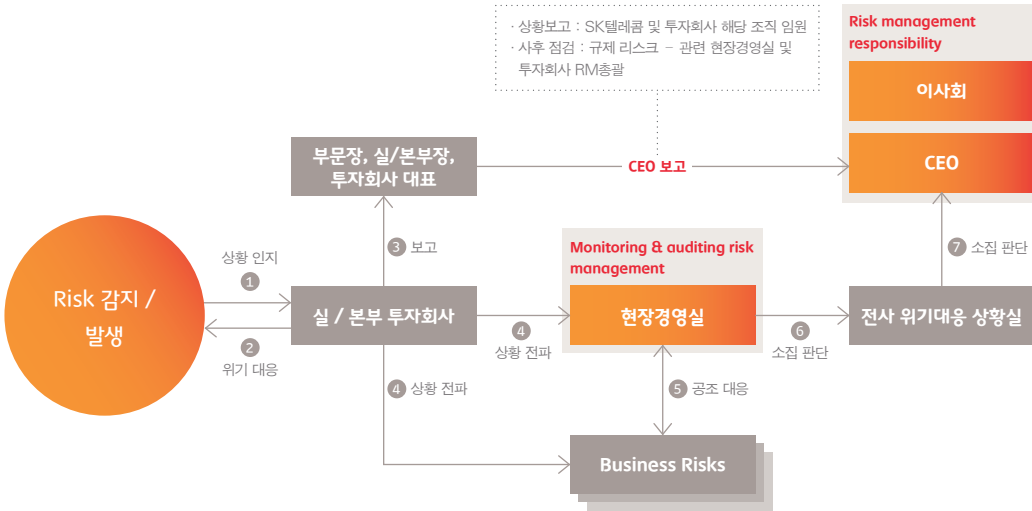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주요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리스크별 회사 간 명확한 상황 전파 기준을 두고,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자회사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가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잠재 리스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자회사 참여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의를 정례화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영역 및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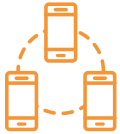
Business Risks	· 전략 - 고객 니즈 및 수요 예측, 사업 의사결정,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 등 · 규제 리스크 -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급변 등 · 재무 - 환율, 금리변동, 유동성, 신용, 자산, 부채 관리 · 운영 프로세스 - 조직설계의 적절성, 잘못된 프로세스 수행
Employees	· 개인 비리 - 기업정보 유출, 고성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부당이익/사용, 공공횡령, 검직/결업 금지 위반 등 · 성윤리 위반 - 성희롱, 성차별 등 · 구성원 간 갈등 - 구성원/리더/회사 간 갈등 · 구성원 사건/사고 - 부주의 사망·중상 사고, 업무상 사고, 사회적 물의(폭행 등) ·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 매출, 자산관리 소홀 등
Customer Values	· 고객 (집단) 행동 · 대형 고객 불만 - 서비스 장애, 전산 오류 등 · 고객정보 유출 - 가입자 인적사항 유출, 단말정보 및 통화내역 유출 등 · 언론보도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부정 여론 확산
Business Partner	· 불공정 거래 - 친인척/차명회사 거래, 부당거래, 특정사 특혜 및 하자 봐주기 등 · 금품 및 향응 제공/수수 · BP정보보호위반 - BP영업비밀 외부 유출, BP 사업정보 부당 사용 등 · 협력사와의 갈등 - 폭력, 성희롱,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 등 · BP의 불법 행위 - 대리점/판매점 고객 사기 등
Governance Relationship	· 공정거래 위반 - 불법보조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담합 등 · 부적절한 접대 행위 - 뇌물/향응 제공 등 · 회계부정 -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공시위반 등 · 국가 기관의 조사/수색 - 법규 위반, 회사 영업 정책 조사 등에 대한 수색/조사

리스크 발생 시 전사 대응 체계



Long-term Risks & Opportunities

회사 경영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단/중/장기 영향도에 따라 리스크를 분류하여 전략적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고려하는 강화된 리스크 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Risk	Context
 시장성숙기에 따른 경쟁심화	· 정부의 보조금 규제, 단말기 유통법 등 시장과열 방지 및 안정화 정책 기조이나, 절대적 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한 사업자간 경쟁이 유발 가능성 존재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진화 대응	·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에 따라 최적의 주파수, 네트워크 용량(Capacity) 확보와 최상의 품질 유지 필요 · 새로운 통신망 및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대응 실패는 장기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어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 신뢰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본 의무임 · 개인 정보 보호는 기본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나, 범죄 용의자 특정, 테러 및 국가 안보 등 다른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제한되기도 함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제도 변동	· 기후변화 위험이 글로벌 거버넌스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등 규제가 변동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함 · 정부는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 말 COP21 (Paris Pact) 에서 포스트 교토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시장 및 비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Potential Impacts on SKT

-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4,000만 대, 보급률 11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장 성숙에 따라 가입자 성장세가 장기 정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영업수익의 77% 를 이동통신 매출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확대 한계는 SK텔레콤의 성장한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데이터 및 미디어 중심 서비스, 사물인터넷(IoT)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부가 가치 전달을 통한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 무선통신산업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존합니다. 2013년 LTE-A 서비스의 성공적인 상용화 이후 CA(Carrier Aggregation) 기술 도입, 2014년 3-Band LTE-A 상용화, 2015년 3-Band LTE-A 서비스의 지역 커버리지 50% 이상 달성 등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 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 경쟁력 확보가 MNO 사업의 장기적 핵심 경쟁력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품질 경쟁력은 고객 기반 및 시장 경쟁 우위 확보, 매출 등 재무적 성과, 대외 인지도, 미래 성장 사업을 위한 기반 기술력 확보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5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이행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 SK 텔레콤은 중장기적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적의 주파수 확보,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기술 개발에는 높은 수준의 자본 비용이 소요되어, 중장기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신뢰 훼손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 정부 및 규제기관의 벌금 및 일시정지 조치 등의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해킹, 바이러스, 스팸 등 물리적 가입자 피해 예방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평등한 정보 접근권, 개인의 통신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정치권의 개인 정보 제공 요구와 고객 보호 사이에서 분명하고 균형 잡힌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동전화 기준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국가 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2014년 상반기 8만 6천여 건에서 2015년 상반기 10만 4,000여 건, 통신자료 제공은 2014년 상반기 37만여 건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공의 보안 및 범죄 등에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K텔레콤은 망 고도화를 통한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해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에 다량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여 사업 운영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재무적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낮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장기적 불확실성은 환경부채 발생 등 SK텔레콤의 재무적 부담과 함께 미래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What are we doing about it?

- 본원적 경쟁력을 통해 Retention 제고 및 마케팅 효율성 강화를 통한 이익 개선 추구 노력과 함께, 포화된 시장에서 2nd 디바이스, Young Target, 외국인 등 신규 순증 가입자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객에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 기반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통적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통신 사업에서의 SK텔레콤의 가입자 기반, Big Data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생활가치, 통합미디어, IoT 3대 플랫폼을 축으로 각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통신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수익 창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 최상의 품질 제공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도적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한 적절한 투자와, 네트워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 분석 및 데이터 네트워크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최적의 주파수 확보 계획 수립과 경제 전략 운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간 합리적 수준의 CAPEX 집행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최선을 다합니다.
- 5G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국내외 5G 기술표준화 Initiative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 장비 개발사, 스타트업에 5G 시험환경 제공 및 신규 서비스 공동개발을 추진합니다.
- 또한 재난 등 심각한 수준의 네트워크 실패 및 네트워크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정책 (Contingency Pla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SK텔레콤은 'UN 인권기본헌장' 과 UN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에 대한 공개 지지와 함께 공식화된 기업인권정책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및 기술오용에 대한 인권 원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는 현행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와 제한에 따라 진행되나, 잠재적인 이용자에의 권리침해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 진단 활동과 함께,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시에도 고객데이터의 세분화 및 Big Data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유용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전담조직인 정보보호기획팀을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위한 ICT 기술 활용 고객 정보 보호 및 침해 차단 기술, 안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정보 유출 건수 0건의 목표 달성 추구하고 함께, 장기적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 운영상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한편, 저전력 중계기 등 고효율 통신 장비 개발 및 적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네트워크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T맵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등 ICT를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문화 구축

SK텔레콤 행동강령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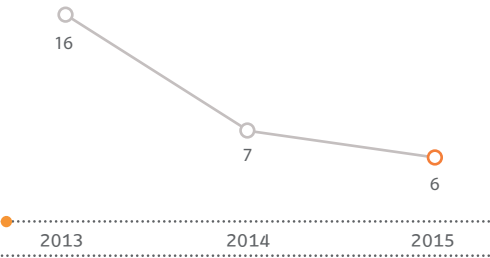
Prevention 기능 강화

SK텔레콤은 Prevention - Detection - Response 관점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Prevention 영역의 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SK그룹 경영시스템인 SKMS 실천 진단 항목을 점검하여 윤리 인식, 발생시 조치, 신고 의무 등의 신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내부 조사(Survey)를 실시하여 윤리경영 잠재 리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2015년 조사 결과, 회사의 정보 유출 리스크에 대한 정보 보안 윤리, 남녀 성희롱, 사내 · 외 지위 남용 관행 등이 윤리 경영 주요 리스크로 파악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파악된 잠재 리스크에 대하여 예방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례 발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구성원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윤리실천 서약 및 윤리 교육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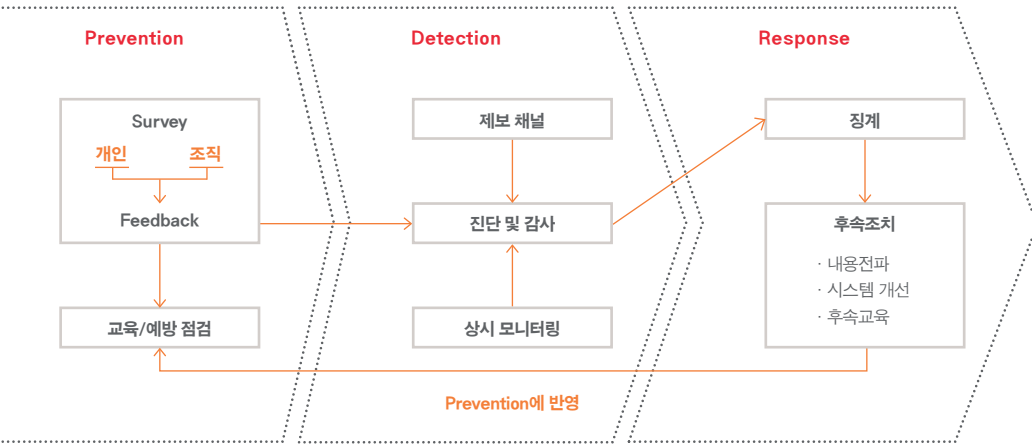
구성원 윤리경영 실천 내재화 노력

SK텔레콤은 구성원 및 협력회사의 윤리 인식 고취 및 윤리 경영 실천 내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 대상 범위를 협력회사 및 유통망까지 확대하여 SK텔레콤 구성원에게 실시되는 윤리경영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윤리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건 수 추이



윤리경영 Prevention - Detection - Response Process



행동 강령 및 실천 지침

SK텔레콤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통해 구성원 · 협력회사 · 고객 · 주주 · 지역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SK텔레콤의 책임을 선포하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적용 기준, 자세 등 윤리 경영 전반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

으로 구체적인 윤리 실천 사항을 윤리 규범과 실천지침으로 정립하여, SK텔레콤 행동강령 및 윤리 기준에 대한 개인의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윤리 이슈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원들 대상으로 윤리실천 가이드(FAQ)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윤리실천 가이드 개정을 통해 가이드 지침의 구체성과 실천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015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구분	건수	조치사항
항응 · 접대수수	2	면직 / 감봉
허위보고 · 예산낭비	0	
회사비용 부당편취	0	
품위손상	0	
금전대차	0	
성희롱 및 직장 예절	4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근무규정 위반	0	
관리책임	0	
공정거래 규정 위반	0	
계	6	

윤리 상담 및 제보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이슈를 상시 제보하고 상담 할 수 있도록 윤리상담 ·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비롯하여 고객, 협력회사 등 윤리 상담 및 제보가 필요한 모든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웹사이트 · 대면 상담 · 서신 등의 온 · 오프라인 채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은 부정 · 비리 등에 관해 제보할 수 있는 제보 창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상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 · 상담자의 신분과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써, 관련 내용이 제보자 · 상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부 윤리 상담 및 제보 채널을 운영합니다. 직접 제보를 원할 시에는 감사위원장 직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My Counselor’, ‘Letter to HR’, 성희롱 전담 여성 상담 인력, 인트라넷 채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내부 구성원의 윤리 및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 강화

SK텔레콤은 2015년 9월 내부 제보자 보호 방침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실천지침에 내부 제보자의 신분, 상담 및 신고 내용 보호 조항을 명문화 하고, 제보자의 신분 노출 등에 따른 징계 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거래 문화

SK텔레콤은 협력회사의 공정 경쟁 및 거래 투명성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CSR 실천 동의서에 공정 · 투명거래 항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준수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SK텔레콤의 협력회사로 등록을 불허하거나 기존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등 기준 준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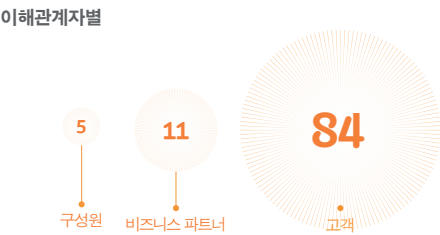
SK텔레콤이 속해 있는 SK그룹은 2008년 이후 ‘SK 컴플라이언스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 관계사에 배포하는 등 공정거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어떠한 반독점 조사에도 개입된 바 없으며, 공정거래 관련 사항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ICT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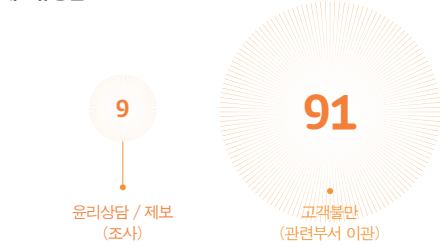
공공정책 협력

SK텔레콤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반부패 · 공정거래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고용 창출, 양성평등, 창조경제 등 공공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센터 운영 현황 (단위 : %)



제보유형별



> Financial & Non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STATEMENTS	72
MD&A ON FINANCIAL STATEMENTS	80
NON-FINANCIAL STATEMENTS	89
MD&A ON NON-FINANCIAL STATEMENTS	9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07
제3자 검증의견서	109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13

072 Financial Statements

제 32 기 2015.12.31 현재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자산			
유동자산	5,160,242	5,083,148	5,123,415
현금및현금성자산	768,922	834,429	1,398,639
단기금융상품	691,090	313,068	311,474
단기투자자산	92,262	280,161	106,068
매출채권	2,344,867	2,392,150	2,257,316
단기대여금	53,895	74,512	79,395
미수금	673,739	690,527	643,603
미수수익	10,753	10,134	11,941
선금금	96,570	70,772	20,966
선금비용	151,978	134,404	108,909
유동파생금융자산	0	0	10
재고자산	273,556	267,667	177,120
매각예정으로분류된자산	0	10,510	3,667
기타의유동자산	2,610	4,814	4,307
비유동자산	23,421,145	22,858,085	21,453,100
장기금융상품	10,623	631	8,142
장기투자자산	1,207,226	956,280	968,527
관계기업투자	6,896,293	6,298,088	5,325,297
유형자산	10,371,256	10,567,701	10,196,607
투자부동산	15,071	14,997	15,811
영업권	1,908,590	1,917,595	1,733,261
무형자산	2,304,784	2,483,994	2,750,782
장기대여금	62,454	55,728	57,442
장기미수금	2,420	3,596	0
장기선금비용	76,034	51,961	32,008
보증금	297,281	285,144	249,600
파생금융자산	166,399	70,035	41,712
이연법인세자산	17,257	25,083	26,322
기타의비유동자산	85,457	127,252	47,589
자산총계	28,581,387	27,941,233	26,576,515

073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부채			
유동부채	5,256,493	5,420,310	6,069,220
매입채무	279,782	275,495	214,716
미지급금	1,323,434	1,381,850	1,864,024
선수금	136,844	129,255	102,931
예수금	865,327	1,053,063	728,936
미지급비용	920,739	952,418	988,193
미지급법인세	381,794	99,236	112,316
선수수익	224,233	327,003	441,731
유동파생금융부채	0	0	21,171
유동성충당부채	40,988	51,075	66,775
단기차입금	260,000	366,600	260,000
유동성사채및장기차입금	703,087	590,714	1,042,276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6	3,804	19,351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20,185	189,389	206,800
매각예정으로분류된부채	0	408	0
기타의 유동부채	54	0	0
비유동부채	7,950,798	7,272,653	6,340,738
사채	6,439,147	5,649,158	4,905,579
장기차입금	121,553	149,720	104,808
장기미지급금	581,697	684,567	838,585
장기선수수익	2,842	19,659	50,894
금융리스부채	0	26	3,867
확정급여부채	98,856	91,587	74,201
파생금융부채	89,296	130,889	103,168
비유동충당부채	29,217	36,013	28,106
이연법인세부채	538,114	444,211	168,825
기타의비유동부채	50,076	66,823	62,705
부채총계	13,207,291	12,692,963	12,409,958
자본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자본	15,251,079	14,506,739	13,452,372
자본금	44,639	44,639	44,639
기타불입자본	189,510	277,998	317,508
이익잉여금	15,007,627	14,188,591	13,102,495
기타자본구성요소	9,303	(4,489)	(12,270)
비지배지분	123,017	741,531	714,185
자본총계	15,374,096	15,248,270	14,166,557
자본과부채총계	28,581,387	27,941,233	26,576,515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영업수익	17,136,734	17,163,798	16,602,054
매출액	17,136,734	17,163,798	16,602,054
영업비용	(15,428,728)	(15,338,693)	(14,590,945)
총업원급여	1,893,745	1,659,777	1,561,358
지급수수료	5,206,951	5,692,680	5,498,695
감가상각비	2,845,295	2,714,730	2,661,623
망접속정산비용	957,605	997,319	1,043,733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389,819	399,014	448,833
광고선전비	405,005	415,857	394,066
임차료	493,586	460,309	443,639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955,861	1,680,110	1,300,375
기타영업비용	1,280,861	1,318,897	1,238,623
영업이익	1,708,006	1,825,105	2,011,109
금융수익	103,900	126,337	113,392
금융비용	350,100	386,673	571,20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관련이익	786,140	906,338	706,509
기타영업외수익	30,910	56,279	74,467
기타영업외비용	243,491	273,558	507,173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순이익	2,035,365	2,253,828	1,827,101
계속영업법인세비용	519,480	454,508	400,797
계속영업당기연결순이익	1,515,885	1,799,320	1,426,304
중단영업손익	0	0	183,245
연결당기순이익	1,515,885	1,799,320	1,609,549
연결당기순이익의귀속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1,518,604	1,801,178	1,638,964
비지배지분	(2,719)	(1,858)	(29,415)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원)	20,988	25,154	23,211
희석주당순이익(원)	20,988	25,154	23,211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연결당기순이익	1,515,885	1,799,320	1,609,549
연결기타포괄손익	1,835	(28,486)	18,497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세후기타포괄손익	(14,489)	(32,942)	5,946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4,489)	(32,942)	5,946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세후기타포괄손익	16,324	4,456	12,55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661)	27,267	2,009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의변동	(5,709)	8,187	3,034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271)	(45,942)	11,222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6,965	14,944	(3,714)
연결총포괄손익	1,517,720	1,770,834	1,628,046
연결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1,522,280	1,777,519	1,655,570
비지배지분	(4,560)	(6,685)	(27,524)

076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백만 원)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기타 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13.01.01 (기초자본)		44,639	(288,883)	12,124,657	(25,636)	11,854,777	1,000,005	12,854,782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0	0	1,638,964	0	1,638,964	(29,415)	1,609,549
	연결기타포괄손익	0	0	3,240	13,366	16,606	1,891	18,497
배당금지급		0	0	(655,946)	0	(655,946)	(2,242)	(658,188)
신종자본증권의발행		0	398,518	0	0	398,518	0	398,518
신종자본증권의이자		0	0	(8,420)	0	(8,420)	0	(8,420)
자기주식의취득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처분		0	271,536	0	0	271,536	0	271,536
연결범위변동		0	0	0	0	0	0	0
동일지배하의사업결합		0	(61,854)	0	0	(61,854)	0	(61,854)
종속회사의자본변동등		0	(1,809)	0	0	(1,809)	(256,054)	(257,863)
2013.12.31 (기말자본)		44,639	317,508	13,102,495	(12,270)	13,452,372	714,185	14,166,557
2014.01.01 (기초자본)		44,639	317,508	13,102,495	(12,270)	13,452,372	714,185	14,166,557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0	0	1,801,178	0	1,801,178	(1,858)	1,799,320
	연결기타포괄손익	0	0	(31,440)	7,781	(23,659)	(4,827)	(28,486)
배당금지급		0	0	(666,802)	0	(666,802)	(170)	(666,972)
신종자본증권의발행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이자		0	0	(16,84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처분		0	0	0	0	0	0	0
연결범위변동		0	0	0	0	0	23,667	23,667
동일지배하의사업결합		0	(28,641)	0	0	(28,641)	0	(28,641)
종속회사의자본변동 등		0	(10,869)	0	0	(10,869)	10,534	(335)
2014.12.31 (기말자본)		44,639	277,998	14,188,591	(4,489)	14,506,739	741,531	15,248,270

077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기타 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15.01.01 (기초자본)		44,639	277,998	14,188,591	(4,489)	14,506,739	741,531	15,248,270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0	0	1,518,604	0	1,518,604	(2,719)	1,515,885
	연결기타포괄손익	0	0	(13,402)	17,078	3,676	(1,841)	1,835
배당금지급		0	0	(668,494)	0	(668,494)	(143)	(668,637)
신종자본증권의발행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이자		0	0	(16,84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490,192)	0	0	(490,192)	0	(490,192)
자기주식의처분		0	425,744	0	0	425,744	0	425,744
연결범위변동		0	0	0	0	0	(5,226)	(5,226)
동일지배하의사업결합		0	0	0	0	0	0	0
종속회사의자본변동등		0	(24,040)	(832)	(3,286)	(28,158)	(608,585)	(636,743)
2015.12.31 (기말자본)		44,639	189,510	15,007,627	9,303	15,251,079	123,017	15,374,096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3,778,129	3,677,385	3,558,570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4,080,294	4,070,982	3,915,055
연결당기순이익	1,515,885	1,799,320	1,609,549
수익 · 비용의조정	3,250,143	2,978,995	3,275,376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 · 부채의변동	(685,734)	(707,333)	(969,870)
이자의 수취	43,400	56,706	64,078
배당금수취	62,973	13,048	10,197
이자의 지급	(275,796)	(280,847)	(300,104)
법인세 납부	(132,742)	(182,504)	(130,65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880,499)	(3,683,165)	(2,506,47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914,542	341,387	1,251,786
단기금융상품의순감소	0	5,627	186,425
단기투자자산의순감소	105,158	0	0
단기대여금의회수	398,308	207,439	290,856
장기금융상품의감소	7,424	2,535	16
장기투자자산의처분	149,310	65,287	287,77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처분	185,094	7,333	43,249
유형자산의처분	36,586	25,143	12,579
무형자산의처분	3,769	10,917	2,256
매각예정자산의감소	1,009	3,667	190,393
장기대여금의회수	2,132	4,454	13,104
예치보증금의감소	14,635	8,891	8,509
기타의비유동자산의처분	607	94	683
연결범위포함으로인한현금의증가	10,355	0	0
연결대상종속기업지분의처분	155	0	215,93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795,041)	(4,024,552)	(3,758,263)
단기금융상품의순증가	385,612	0	0
단기투자자산의순증가	0	174,209	45,032
단기대여금의대여	370,378	202,501	279,926
장기대여금의대여	16,701	4,341	4,050
장기금융상품의증가	10,008	2,522	7,510
장기투자자산의취득	312,261	41,305	22,14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취득	65,080	60,020	97,366
유형자산의취득	2,478,778	3,008,026	2,879,126
무형자산의취득	127,948	130,667	243,163
매각예정자산의증가	0	552	0
예치보증금의증가	12,536	6,903	83,314
기타의비유동자산의취득	2,542	18,233	1,830
영업양수로인한 현금유출	13,197	124,486	0
연결대상종속회사지분의취득	0	250,787	94,805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64,583)	(559,399)	(573,15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375,206	1,421,088	1,852,237
단기차입금의차입	0	102,868	0
사채의발행	1,375,031	1,255,468	1,328,694
장기차입금의차입	0	62,552	105,05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398,518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입	175	200	19,97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339,789)	(1,980,487)	(2,425,394)
단기차입금의상환	106,600	0	340,245
장기미지급금의상환	191,436	207,791	161,575
사채의상환	620,000	1,039,938	771,976
장기차입금의상환	21,924	23,284	467,217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출	655	6,444	0
금융리스부채의감소	3,206	19,388	20,342
배당금의지급	668,494	666,802	655,946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6,840	16,840	0
자기주식의 취득	490,192	0	0
연결자본거래로인한현금의감소	220,442	0	8,09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6,953)	(565,179)	478,93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834,429	1,398,639	920,125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1,446	969	(42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68,922	834,429	1,398,639

Basis of Preparation

본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MD&A,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보고 섹션은 본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에 기재된 연결 재무제표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금액은 연결 기준이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한국통화(KRW)로 표시하였습니다. 본 경영실적 분석 내에서 '당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연결대상 자회사를 의미하며, 'SK텔레콤'은 SK텔레콤주식회사를 지칭하나 연결대상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고 수정된, 당사와 당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현재의 기대·가정·추정 및 예측에 관한 '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측진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측진술이 근거한 가정은 합리적이라고 기대되지만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가정에 근거한 예측진술 또한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추가 정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F 양식의 최근 연차보고서와 기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위험과 불확실성 그리고 기타 다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예측진술에 포함된 계획과 목표 또는 예측 재무 실적을 당사가 반드시 달성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예측진술을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습니다.

1. 2015 Overview

LTE 네트워크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당사는 기존의 무선통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밴드데이터(Band Data),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클럽T 키즈(Club T Kids), 전용 단말기 루나(LUNA) 등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향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미래의 기회 영역으로서 생활 가치, 통합미디어,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3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사업

당사는 무선통신 사업 부문에서 음성·데이터 서비스, 디바이스 판매,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IoT 솔루션 및 생활가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는 알뜰폰(MVNO) 가입자를 포함하여 총 2,86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선 통신 사업 분야에서 연간 업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중 1,900만 명은 당사의 LTE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2,060만 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기준 당사의 한국 무선통신시장 점유율(알뜰폰 가입자 포함)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49.4%로 전년 50%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은 10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하며 시장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 및 시장 확대 기회는 여

전히 존재합니다. 당사는 핵심 역량 부문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무선통신 산업 내 시장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시대에 발맞춰 출시한 당사의 모바일 IPTV 옥수수(oksusu) 전용 요금제 밴드 플레이 팩, 기재된 제공량 만큼 데이터 통화 이용이 가능한 선불 쿠폰인 T데이터쿠폰 등을 새롭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 무선통신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길 안내 서비스 T map 내비게이션, 원격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홈, 클럽 T 키즈 등 고객의 생활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SK 전용 단말기로 고품질과 편의성을 보유한 루나(LUNA) 폰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당사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수익은 13조 2,700억 원이었으며 연결기준 영업수익의 77.4%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선통신 사업

당사는 유선통신 사업 부문에서 유선 전화,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미디어 플랫폼(IPTV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선통신사업 서비스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SK브로드밴드 가입자 및 SK텔레콤의 VoIP 서비스 가입자 포함)는 약 4,700만 명,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는 약 5,000만 명, IPTV 가입자는 약 3,500만 명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가입자 수 기준 시장 점유율은 각각 16.2%, 25.1%, 12.1%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차세대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의 전환 추진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인 B tv에는 130개 이상의 생방송 HD채널, 최신 영화, 국내 및 해외 TV 프로그램, 어린이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구성된 VOD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HD보다 4배 높은 고화질 해상도를 제공하는 UHD IPTV 서비스인 B tv UH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IPTV 서비스 옥수수(oksusu)는 기존의 B tv mobile과 호핀(hoppin)이 통합된 서비스로, TV 프로그램,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입자는 100여 개 이상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 국내외 인기 생방송 채널,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사 유선통신사업 서비스 분야의 수익은 2조 4,900억 원이었으며 연결기준 영업수익의 14.6%를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당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커머스 사업, 하드웨어 사업 등 기존 상품 및 서비스와 보완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11번가는 당사 커머스 사업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11번가 모바일은 국내 클릭수 기준 최대 접속자 수를 보유하며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11번가의 연간 총 거래액(환불 금액을 제외한 고객 구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금전적 가치)은 2014년 28%에서 2015년 현재 41%로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11번가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여 해외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안착했습니다. 더불어, 시럽(Syrup) 브랜드를 통해 커머스 사업 영역을 O2O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물인터넷(IoT) 사업이 변화하는 ICT 사업 환경의 주요 트렌드로 판단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부문에서 투사형 디스플레이 기기, 최고급 오디오 기기, 지능형 사물통신 기기 등 SK텔레콤의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및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해 IoT 사업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당사 기타사업 부문의 수익은 1조 3,7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연결 영업수익의 8.0%를 차지합니다.

2. 요약

당사의 무선통신 사업 부문의 주요 매출은 음성 통화료 및 데이터 서비스로 구성되는 월정액 통신 요금, 부가서

비스 요금, 그리고 다른 유선 및 무선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및 가입자의 망 사용을 위해 당사에 지불하는 망 접속료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의 무선 단말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 유선통신 사업 부문의 주요 매출은 유선전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및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IPTV 포함)의 월 이용료, 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및 가입자의 망 사용을 위해 당사에 지불하는 망 접속료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타 사업 부문의 주요 매출은 오픈 마켓 플랫폼인 11번가 내 판매자의 거래 요금(수수료 포함), 11번가 및 커머스 광고 수익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사업 부문에서 투사형 디스플레이 기기, 최고급 오디오 기기, 지능형 사물통신 기기 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추출한 정보입니다.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본 보고서에 기재된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 (1) EBITDA = 계속사업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R&D관련 감가상각비
-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투자증권 + 단기금융상품
- (3) 이자지급성 금융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사채 +장기차입금
- (4) 부채 비율 = 이자채권 / 자본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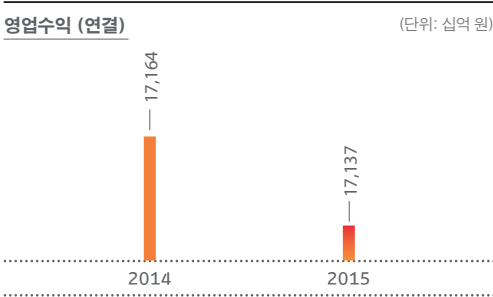
요약 재무정보(연결기준)		(단위: 십억 원)	
	2015	2014	Change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17,137	17,164	-0.2%
EBITDA ⁽¹⁾	4,701	4,717	-0.3%
영업비용	15,429	15,339	0.6%
계속사업 영업이익	1,708	1,825	-6.4%
당기순이익	1,516	1,799	-15.7%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28,581	27,941	2.3%
현금및현금성자산 ⁽²⁾	1,505	1,298	15.9%
부채총계	13,207	12,693	4.0%
이자지급성금융부채 ⁽³⁾	7,557	6,792	11.3%
자본총계	15,374	15,248	0.8%
재무비율 (%)			
EBITDA 마진	27.4	27.5	-0.1%p
영업마진	10.0	10.6	-0.6%p
순마진	8.8	10.5	-1.7%p
부채비율 ⁽⁴⁾	49.2	44.5	4.7%p

2015년 영업비용은 17조 1,400억 원으로 2014년 영업수익인 17조 1,600억 원에 비해 0.2%p 감소했습니다. 이는 망접속수익과 신규 가입비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2015년 영업비용은 상품및기타구입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인하여 15조 4,300억 원을 기록하여, 2014년 15억 3,400억 원 보다 0.6%p 증가했습니다. 영업수익의 감소와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계속사업 영업이익은 2014년의 1조 8,300억 원에 비해 6.4% 감소한 1조 7,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마진과 EBITDA 마진은 전년대비 각각 0.6%p 감소한 9.9%, 0.1%p 감소한 27.4%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4년 1조 8,000억 원 대비 2015년 1조 5,200억 원으로 15.7%p 감소했습니다.

당사의 자산총계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27조 9,400억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28조 5,800억 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20.1%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 상승에 따라 관계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부채총계는 2015년 사채 발행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12월 31일 기준 12조 6,900억 원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4.0%p 증가한 13조 2,1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기준 15조 2,500억 원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15조 3,700억 원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44.5%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49.2%로 증가하였습니다.

3.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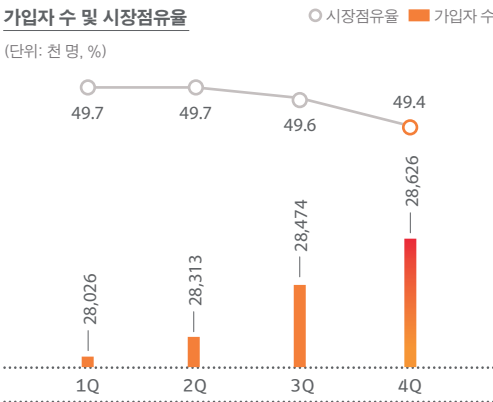
2015년 영업수익은 2014년 17조 1,600억 원에서 0.2% 감소한 17조 1,4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상호접속요율 인하와 LM(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통화)양의 감소로 인한 망접속수익의 감소, 신규 가입비의 감소(당사는 2014년 11월을 시작으로 가입비를 폐지함)가 주된 원인입니다.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한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약 5,790만 명으로, 112.4%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동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5년 연간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했으며, 2015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약 2,860만 명(당사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가입자 포함)에 도달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입자 수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MVNO 가입자 포함)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50.0% 대비 0.6%p 감소한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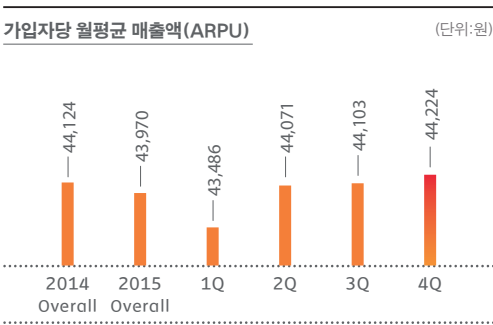
당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670만 명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1,90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ARPU

SK텔레콤의 2015년 가입자 당 월평균 매출 거래 총액(청구ARPU)은 2014년 36,101원에서 1.3% 증가한 36,58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 기본요금이 높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LTE 가입자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서비스 사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한편, 2015년의 가입자 당 월평균 매출 총액(total ARPU)은 2014년 44,124원에서 0.3% 감소한 43,97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신규 가입비(당사는 2014년 11월을 시작으로 가입비를 폐지함)와 망접속수익 감소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수익은 주로 유선통신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14년 2조 6,500억 원에서 2.9% 증가한 2조 7,3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IPTV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IPTV 서비스 수익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의 수익은 주로 단말기 판매로 창출되며 2015년에는 2014년 1조 6,300억 원 대비 10.1% 증가한 1조 7,9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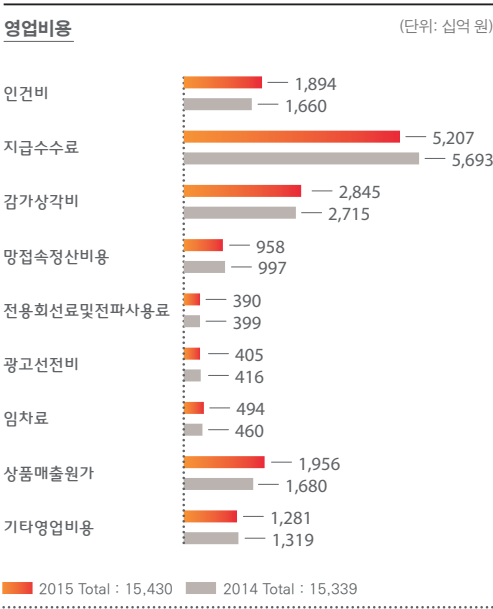
4. 수익성

손익계산서(연결) (단위: 십억 원)				
	2015	수익 비율(%)	2014	수익 비율(%)
계속사업				
영업수익	17,137	100.0%	17,164	100.0%
영업비용	15,429	90.0%	15,339	89.4%
인건비 ⁽¹⁾	1,894	11.1%	1,660	9.7%
지급수수료 ⁽²⁾	5,207	30.4%	5,693	33.2%
감가상각비 ⁽³⁾	2,845	16.6%	2,715	15.8%
망접속정산비용	958	6.2%	997	6.5%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390	2.3%	399	2.3%
광고선전비	405	2.4%	416	2.4%
지급임차료	494	2.9%	460	2.7%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956	11.4%	1,680	9.8%
기타영업비용	1,281	7.5%	1,319	7.7%
계속사업 영업이익	1,708	10.0%	1,825	10.6%
금융수익	104	0.6%	126	0.7%
금융비용	(350)	(2.0%)	(387)	(2.3%)
자회사및관계사투자관련손실	786	4.6%	906	5.3%
기타영업외수익	31	0.2%	56	0.3%
기타영업외비용	(243)	(1.4%)	(274)	(1.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35	11.9%	2,254	13.1%
계속영업법인세비용	519	3.0%	455	2.6%
계속사업순이익	1,516	8.8%	1,799	10.5%
중단사업				
법인세차감후	-	-	-	-
당기순이익	1,516	8.8%	1,799	10.5%
EBITDA ⁽⁴⁾	4,701	27.4%	4,717	27.5%

(1) 인건비 = 급여 + 확정급여부채총당금
(2) 마케팅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포함
(3) R&D 관련 감가상각 제외
(4)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R&D관련 감가상각비

영업비용

2015년 당사의 영업비용은 15억 4,300억 원을 기록하
여, 2014년 15억 3,400억 원 대비 0.6%p 상승하였습
니다. 이는 상품및기타구입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가 각
각 16.4%, 14.1%, 4.8%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상품및기타구입비용 주요 증가 요인은 하이엔드 단말기의
판매량 증가와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케팅(PS&Mar-
keting)의 SK네트워크 소매 유통 사업 인수의 영향이 주
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경우 희망퇴직 프
로그램에 따른 퇴직금 일시 지급,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사업 확장을 위한 SK브로드밴드 임직원 수 증가, 그리고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의 SK
네트워크 소매 유통 사업 인수, 2014년 10월 SK플래닛
의 샵kick(Shopkick) 인수 등 2014년 발생한 여러 인수
활동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증가의 주요 요
인으로는 당사의 LTE 네트워크 및 SK브로드밴드의 유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 투자 증가, 소프트웨어
상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및 EBITDA

영업수익의 감소와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의 영업 이익은 2014년 1조 8,300억 원 대비 6.4% 감
소한 1조 7,1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 마진 또
한 2014년 10.6%에서 2015년 현재 10.0%로 감소
하였습니다. EPITDA는 2014년 4조 7,200억 원에서
0.3% 감소한 4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은 2014년 1,260억 원에서 2015년
1,040억 원으로 17.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이
자의 감소와 파생상품 평가이익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
다. 2015년 금융비용은 지급이자와 당기손익인
식금융부채와 관련된 손실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여 2014년 3,870억 원 대비 9.5% 감소한 3,5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가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배분 감소로 인하여 지분
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손익은 2014년 9,060억 원 대비
13.3% 감소한 7,86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영
업외수익은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로 인한 부분적 영향을
받아 2014년 560억 원 대비 45.1% 감소한 310억 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은 자산, 장비 및 무
형자산의 감액손실과 처분손실의 감소로 인해 2014년
2,740억 원에서 2015년 2,430억 원으로 11.0% 감
소하였습니다.

법인세

2015년 계속영업법인세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9.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550억 원 대
비 14.3% 증가한 5,19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미실현된 이연세의 처리가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변화
는 SK플래닛, SK커뮤니케이션이 SK텔레콤에 대해 시
행한 SK커뮤니케이션 보통주의 현물배당과 주로 관련되
어 있습니다. 당사의 2015년 유효세율은 2014년 20.2%
대비 5.3%p 증가하며 25.5%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위에서 언급된 요인에 주요하게 기인하여, 당사의 당기
순이익은 2014년 1조 8,000억 원 대비 15.7% 감소
한 1조 5,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마진은 2015년
8.8%로 전년도 10.5%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 재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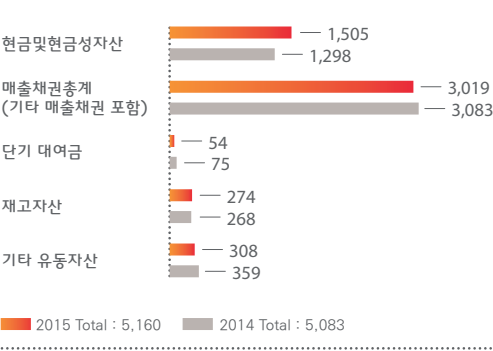
유동자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유동자산은 5조 1,600
억 원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5조 800억 원에서
1.5%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에 따른 현금 증가로 인해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2014
년 12월 31일 기준 1조 3,000억 원에서 15.9% 증가
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 1억 5,100억 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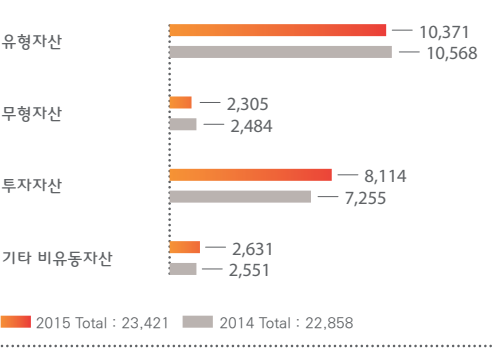
비유동자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비유동자산은 23조
4,200억 원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22조 8,600
억 원보다 2.5% 감소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
는 20.1%의 SK 하이닉스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 상승
에 따라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관계사투자 및 합
작투자를 합한 당사의 투자자산은 2014년 7조 2,600
억 원에서 11.8% 증가한 8조 1,100억 원을 기록했습
니다. 유형자산은 LTE 망 투자 증가로 인해 2014년 10
조 5,700억 원에서 1.9% 감소한 10조 3,7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LTE관련 설비 구입 감소가 주요한 요
인입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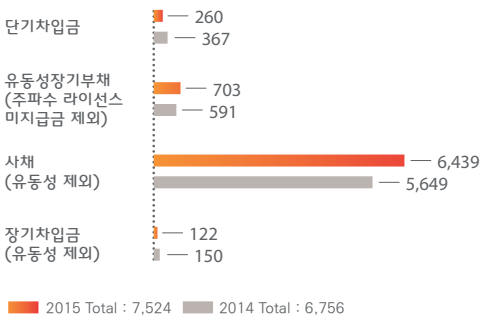


부채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부채총계는 12조 6,9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자사주 획득을 위한 사채 발행의 증가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년 대비 4.0%p 증가한 13조 2,1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자지급성 부채는 2014년 6조 7,900억 원에서 11.3%p 증가한 7조 5,6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49.2%로 2014년 같은 시기의 44.5%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지급성 금융부채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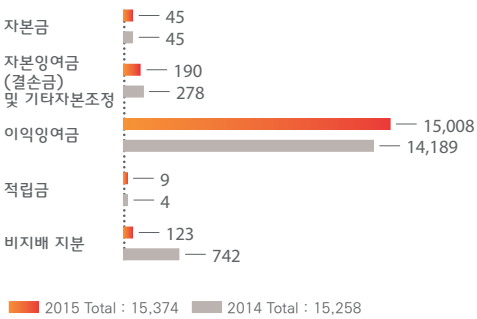


자본

201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15조 3,700억 원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15조 2,500억 원 대비 0.8%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4조 1,900억 원이었던 이익잉여금이 2015년 12월 31일 현재 15조 1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자본 / 순서 재배열

(단위: 십억 원)



6. 투자 지출(개별 기준)

SK텔레콤은 2015년 약 1조 9,000억 원을 투자 지출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2014년 2조 1,000억 원의 투자 지출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총 투자지출 중, 54.1%에 해당하는 약 1조 2,000억 원을 LTE 네트워크 품질 제고 및 LTE 망 확대를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 및 당사 IT 시스템 유지 및 업그레이드 등 네트워크 이외 부문에 총 4,5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Non-Financial Statements

Human Capital

Section	MD&A		2013	2014	2015
Human Capital	1.1	총 고용			
		총 직원	4,203	4,253	4,046
		특별채용 및 마이너리티	200	215	188
		해외 사업장 근무자	103	99	79
	1.2	채용 및 이직 (명)			
		총 신규 채용	418	396	563
		총 이직	238	265	681
	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161(남124)	146(남110)	173(남133)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25 (남2)	71 (남9)	77(남7)
	1.4	인적자원 향상			
		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시간)	83.7	91	82
		성과평가를 받은 직원 비율 (%)	96	96	96
	1.5	노동관행, 안전 및 보건			
		노동조합 가입 비율 (%)	84.2	83.4	85.0
		산업재해율 (%)	0.02	0	0

Social & Network Capital

Section	MD&A		2013	2014	2015
Social & Network Capital	2.1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			
		LTE 가입자 비율 (%)	53.7	58.5	66.3
		월평균 해지율 (%)	2.3	2.0	1.5
		ICT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 (명)	1,121	1,353	1,404
	2.2	취약계층 요금감면 총액 (백만 원)	211,617	196,806	188,453
		네트워크 품질 및 리스크 관리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 (GB)	355,885	550,329	779,201
		무선통신사업 생산능력 (회선 수, 천 개)	35,980	33,120	36,160
	2.3	네트워크 장애 발생 건 수	1	1	1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보호)			
		고객 정보 유출 (건)	0	0	0
		소액결제 피해 VoC 발생률 (%)	0.12	0.10	0.03
	2.4	협력회사 동반성장			
		동반성장협약 체결 (개 사)	205	291	325

Social & Network Capital					
Section	MD&A		2013	2014	2015
Social & Network Capital	2.5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346	712	706
		인권·환경·윤리·사회 부문 평가 수	346	712	706
	2.6	지역사회 투자			
		기브유(Give U) 누적 모금액(백만 원)	740	890	1,030
		위드유(WithU) 누적 등록 일감 수	-	40,755	65,729

Natural Capital					
Section	MD&A		2013	2014	2015
Natural Capital	3.1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 ₂ e)	707,963	742,884	686,118
		온실가스 집약도 (tCO ₂ e/십억 원)	55.05	57.09	54.64
	3.2	에너지 사용			
		총 에너지 소비량 (TJ)	14,589	15,271	14,081
		전력 사용량 절감 실적 (MWh)	46,487	45,729	44,731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 생산 (MWh)	2,729	2,729	2,729
		에너지 집약도 (TJ/십억 원)	1.13	1.17	1.12
	3.3	용수 사용			
		연간 용수 사용량 (m³)	683,387	695,725	757,658
		용수 사용 집약도 (m³/십억 원)	53.14	53.46	60.34
	3.4	폐기물 및 재활용			
		총 배출량 (톤)	1,646	1,763	1,928
		폐기물 배출 집약도 (톤/십억 원)	0.126	0.135	0.154
	3.5	자원 사용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 (%)	69.4	77.0	83.9
		단말기 회수율 (%)	8.0	4.5	3.6
		모바일 카드 발급 (건)	987,848	2,831,082	2,894,971
	3.6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백만 tCO ₂ e)	-	-	1.31
	-	생물다양성			
		생태보호구역 내 기지국 수 (개)	91	650	947
		생태보호구역 내 중계기 수 (개)	184	5,105	6,051
	3.7	환경 지출 및 투자			
		총 환경 원가(녹색구매 제외, 백만 원)	521	475	709
		녹색 구매비용 (백만 원)	6,084	7,368	8,9125
	3.8	전자파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건수	18,928	30,606	37,504

Basis of Preparation

보고 기준 및 원칙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Non-Financial Statement)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당사의 핵심적인 비재무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사회 윤리와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엔기구들과 기업들이 협조하여 발의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블루프린트(Blueprint)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선도기업 협의체인 GC 리드(GC LEA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은 매년 10대 원칙에 따른 비즈니스 성과를 정리한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제출하고 있으며, 본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GC Advanced Level의 COP 요건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는 이외에도 다음의 국제적 보고 기준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01_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배경(Context) 하에서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와 미래 전망이 조직의 단기·중기·장기적 가치 창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간결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통합보고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 모델(Capital Model)은 pp.24-26,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성 평가는 pp.34-35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02_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G4

GRI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 측면(Aspect)과 지표(Indicator)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GRI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각 측면의 연관성에 따라 보고 주제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GRI 요구사항에 따른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는 pp.34-35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03_Accountability의 AA1000

AA1000 시리즈는 조직과 연관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발견하고 우선순위화하며, 이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의 정보는 AA1000AS-(Assurance Standard)에 따른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 의견서는 pp.109-112 를 참조해 주십시오.

참고 기준

01_ UNGC COP(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UNGC가입 기관이 UNGC 10대 원칙 준수 현황 보고하기 위한 보고 가이드라인

02_ISO26000

국제 표준화 기구가(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10년 11월 발표한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

03_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Telecommunication Standards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가 2014년 4월 공개한 통신 사업 핵심 이슈 및 주요 성과 지표

데이터 범위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회사 및 공급망을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의 데이터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지배기업인 SK텔레콤의 개별기준 매출 발생 범위와 일치하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에너지, 온실가

스, 폐기물, 응수 등 환경 데이터는 SK텔레콤의 26개 국 내 사업장*(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은 95% 이상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함된 데이터 커버리지는 매출 대비 95% 이상 기준을 만족합니다.

*26개 사업장: T타워, 남산, 구로, 장안, 서울대, FMI, 용인, 보라매, 성수, 수유, 인천, 분당, 둔산(신·구), 부사, 청주, 원주, 태평, 본리, 신천, 부암, 데이터센터, 안락, 우산, 송정, 전주, 제주

Section 1. 인적 자본 (Human Capital)

1.1 총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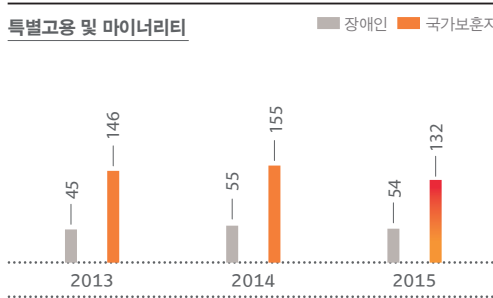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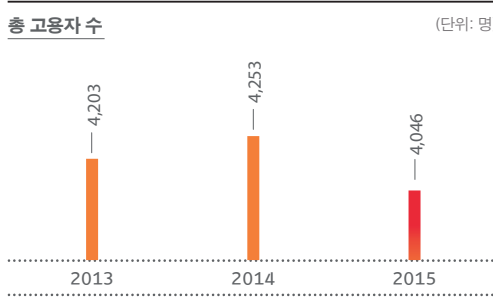
총 직원 수는 SK텔레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SK텔레콤의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 및 임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총 직원 수는 4,046명입니다. 2015년에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 희망퇴직을 지원하여 총 인력 규모는 4.8%p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다양성 지표 중 하나인 여성 비율은 13.4%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유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20~30대 인원 비율이 전년 36.8% 대비 3.4%p 증가한 40.3%로 나타났으며, 2013년 수준인 40%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해외파견 및 현지인 고용을 포함한 해외 사업자 고용자 수는 79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해외 사업장의 현지인 관리자 비율은 33.3%로, 2014년 30%를 넘어선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플랫폼 컴퍼니(Platform Company)로 성공적 진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 보유 인력의 확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발전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인적 다양성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 구조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총 고용				
고용 형태별		2013	2014	2015
	정규직	4,081	4,147	3,925
	비정규직	122	106	121
성별	남성	3,616	3,662	3,504
	여성	587	591	542
연령별	20대	328	290	326
	30대	1,340	1,277	1,304
	40대	2,372	2,450	2,229
	50대 이상	163	236	187
총 직원 수		4,203	4,253	4,046



* 장애인 특별고용에 대한 내부 산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 이를 정정 보고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내 신고 권고 기준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2명으로 계산, 금년: 순수 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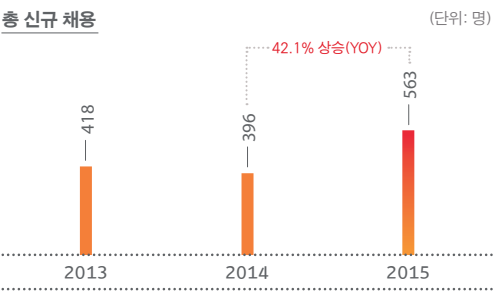
해외 사업장 고용				
	2013	2014	2015	
해외 파견자 수	31	26	20	
현지인 고용자 수	72	73	59	
해외 총 근무자 수	103	99	79	
해외 사업장 총 관리자 수	28	19	15	
현지인 관리자 수	5	6	5	
현지인 관리자 비율	17.9%	31.6%	33.3%	

1.2. 채용 및 이직

2015년 총 신규 채용자는 563명으로, 전년 대비 42.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우선순위 중 하나인 일자리에 서의 다양성 확대 정책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자 중 여성 비율은 25.2%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20대 채용 인원은 296명(전년 대비 34.5% 증가)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직의 경우, 희망퇴직 및 업무의 자회사/투자회사 이관 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채용 (단위: 명)				
성별		2013	2014	2015
	남성	317	302	421
	여성	101	94	142
연령별	20대	189	220	296
	30대	161	97	187
	40대	64	66	72
	50대 이상	4	13	8
총 신규 채용		418	396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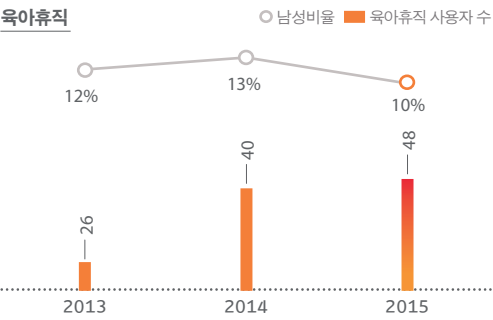
이직 (단위: 명)				
성별		2013	2014	2015
	남성	141	181	467
	여성	97	84	213
연령별	20대	116	156	180
	30대	57	61	121
	40대	52	37	230
	50대 이상	13	9	149
비자발적 이직(해고)		6	2	1
총 이직자 수		238	265	681

1.3. 출산 및 육아휴직

여성의 일자리 접근성(Access to Work)과 관련된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8명으로 2년 전 26명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1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희망퇴직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 비율이 일시적 증가하였으나 SK텔레콤은 임직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휴게실, 모유수유실, 출산 축하 경조금, 출산휴가제도, 출산 및 육아 휴가자 평가 불이익 배제 등의 출산지원 제도와 함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자기계발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자녀캠프 지원 등의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 90일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 시 5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의 휴직 기간을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3	2014	2015
출산휴가 사용 - 남자 (명)	138	126	133
출산휴가 사용 - 여자 (명)	38	35	37
출산휴가 후 복귀율 (%)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 - 남자(명)	3	5	5
육아휴직 사용 - 여자(명)	23	35	43
육아휴직 후 복귀율 (%)	96	98	79
복귀 후 12개월내 퇴사율 (%)	6	4	3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데이터 산정 기준 변경 및 전년도 보고서 데이터 오류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 이를 정정 보고하였습니다.



1.4. 인적 자본 향상

SK텔레콤은 투자 효과 중심 인재 유치 및 육성 전략을 통해 인적 자본을 향상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축적합니다. 2015년 총 인당 교육 투자 시간은 82시간 이며, 인당 교육 투자비는 28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은 전년 대비 9시간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당 교육비는 18%p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내 강사의 활용도를 높여 업무 연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효과 제고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합니다.

2015년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단위 조직의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팀장들의 변화실행력과 리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팀장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였으며, 차세대 리더 후보인 핵심 인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하였습니다.

구성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MNO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성장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고 빠른 실행력과 강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시장 리더 수준의 실력 확보를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MNO 영역은 조직별 필수 역량의 집중 육성 및 부문별 교육 체계를 개편 하고, 성장 영역은 성장 조직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공통 역량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계획(IDP)을 실시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가치(Value) 교육 측면에서는, 전사 구성원의 SK 가치 내재화와 및 변화 실행을 지원하고 신입 레벨 구성원(신입/영입 매니저)들의 초기정착과 전력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팀단위 활력 제고를 위한 조직 활성화 프

임직원 교육 현황

	2013	2014	2015
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시간)	83.7	91	82
인당 교육 투자비 (만 원)	338	346	284

로그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반기에는 변화실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워크숍에는 총 109개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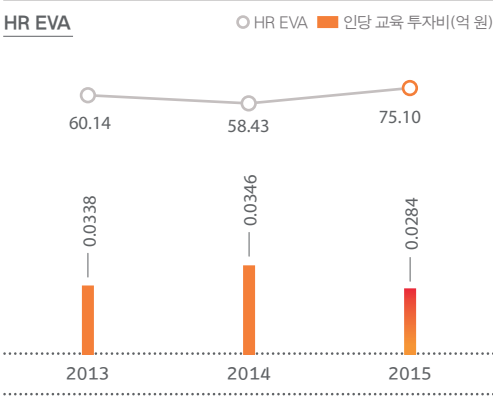
SK텔레콤은 투자 대비 회수(ROI) 관점의 인적 자본 향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 지표(Ratio)로 HR EVA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투자 ROI는 임직원 급여 및 복지, 훈련비용 등 주요 인적 자본 투자(HR Capital Input) 대비 고유영업활동에 의한 순 가치 증가(EVA,

HR EVA

	2013	2014	2015
EVA(Economic Value Added) (억 원)	8,544	8,601	8,629
인당 EVA (억 원/명)	2.033	2.022	2.133
인당 교육 투자비 (억 원)	0.0338	0.0346	0.0284
HR EVA (Ratio)	60.14	58.43	75.10

* HR EVA = Financial Capital Gain / Human Capital Input

HR EVA



Economic Value Added)로 표기됩니다. 본 항목에서 HR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값을 임직원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2015년 HR EVA 비율은 75.10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약 28.5%p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EVA는 지난 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사내 강사 활성화 및 조직별 필수 역량 교육 등 핵심 역량 집중 노력에 따라 교육 투자 효율성이 증가한 것이 HR EVA 상승의 주된 요인입니다.

SK텔레콤은 상시 성과관리에 기반한 구성원 대상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 성과 달성 및 구성원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사 차원에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부문별로 최적화된 성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성과급 부문에서는 PS(Profit Sharing) 외에도 장기 성과급(Long-term Incentive), 타겟 인센티브(Target Incentive), Betting 등 부문에 적합한 성과 체계를 적용하여 부문별로 차별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누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승진 가점 및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수행 비율

	2013	2014	2015
성과평가를 받은 직원 비율	96%	96%	96%

1.5. 노동 관행, 안전 및 보건

SK텔레콤은 ILO 협약 87 및 98 및 국내 노동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SK텔레콤의 임직원들은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수 중 현재 노동조합 가입 비율로 계산됩니다.

SK텔레콤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유지 · 강화 기조 하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구성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통상임금 이수 해소와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을 합의하였고 2015년도에는 연금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사업장 전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국제 노동규약에 대비하여 잠재적인 인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현황

	2013	2014	2015
노동조합 가입대상 구성원 수 (명)	2,513	2,497	2,316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명)	2,118	2,082	1,968
노동조합 가입 비율 (%)	84.2	83.4	85.0

SK텔레콤은 주기적인 화재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 소화기 및 방독면 착용 실습교육 등의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낮은 재해를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산업재해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재해 현황

	2013	2014	2015
재해자 수 (명)	1	0	0
산업재해율 (%)	0.02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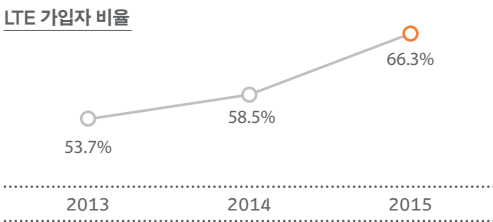
Section 2. 사회 자본 (Social Capital)

2.1 서비스 접근성 (Access to Service)

SK텔레콤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가입자 절대 수치 확보 및 유지, 통신 디바이스 확대 등을 통한 보다 편리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 등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Digital Inclusion)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접근성 향상 노력은 가입자 기반 및 인당 가입자 매출(ARPU)의 잠재적 확대로 이어져 미래 SK텔레콤의 매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관점에서도 정보 접근성 및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LTE 가입자 비율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5년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비율은 66.3%를 기록하여, 전년 58.5%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2nd Device 확대 등 디바이스 확산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말 기준 T 아웃도어 32.1만 명, T Kids 20.4만 명, T Pocket-Fi 7만 명, T pet 4천 명 등 디바이스 가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12월 말 미래부 통계 기준 전체 웨어러블 시장의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Access to Service				
	2013	2014	2015	
총 가입자 수 (천 명)	25,130	28,610	28,626	
LTE 가입자 수 (천 명)	13,490	16,740	18,980	
LTE 가입자 비율 (명)	53.7%	58.5%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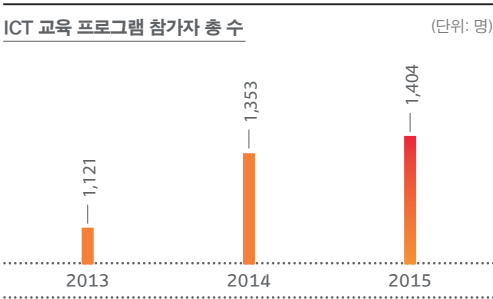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총액은 188,45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상 가입자 이탈 등의 이유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요금감면 총액은 일정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trategy for Affordability (단위: 백만 원)				
	2013	2014	2015	
특별계층 요금감면 총액	211,617	196,806	188,453	
특별계층 요금감면 - 장애인	138,443	128,422	122,462	
특별계층 요금감면 - 저소득층	62,891	58,299	56,058	
특별계층 요금감면 - 국가유공자	10,105	9,931	9,800	
특별계층 요금감면 - 기타	178	154	133	

교육을 통한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어르신을 위한 휴대폰 교육,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가정 대상 휴대폰 활용 교육,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등 취약계층 스마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여,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1,40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Access through Education				
	2013	2014	2015	
ICT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총 수 (명)	1,121	1,353	1,404	
다문화가정 스마트폰 활용 교육 (명)	47	169	334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명)	905	1,020	906	
북한이탈주민 휴대폰 활용 교육 (명)	48	32	50	
IT챌린지 (명)	121	132	114	



2015년 저소득층이나 인구 저밀도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편적 의무손실 보전금은 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산간오지, 등산로, 도서지역 등 통신서비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지속적으로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히 산간 오지 지역 신규 설치 기지국 수는 전년대비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산간오지에 설치된 기지국은 5,182개국, 등산로 75 개국, 도서지역 392개국입니다.

Strategy for Remote Area				
	2013	2014	2015	
보편적 의무부담 지원금(십억 원)	16.9	17.9	18.1	

2.2 네트워크 품질 및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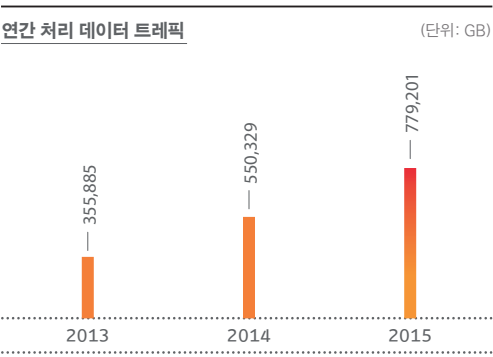
(Network Quality & Risk Management)

네트워크 인프라 장애는 개별 통신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연속성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장애가 나타날 경우 경제 사회 시스템의 일시적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 제공은 본원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당사의 기반 자산이기도 합니다.

2015년 당사의 연간 무선통신 회선보유능력은 3,616만 회선으로, 총 가입자 수인 2,862만 명의 123%에 해당하는 보유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대비 각 2014년 54.6%, 2015년 41.5% 증가하는 등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회선보유능력 및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				
	2013	2014	2015	
무선통신 회선보유능력 (회선 수, 천 개)	35,980	33,120	36,160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GB)	335,885	550,329	779,201	



네트워크 장애				
	2013	2014	2015	
네트워크 장애 건 수	1	1	1	

*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대형 장애 발생 건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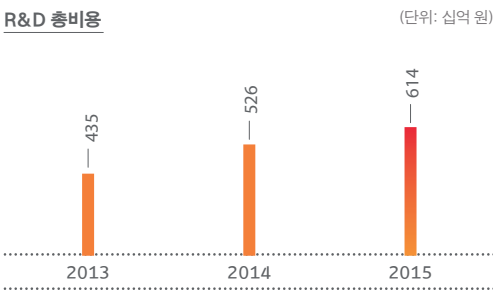
예측됩니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적절히 소화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 장애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업계의 주요한 도전(Challenge) 중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장비 증설 투자, 예방수선 개발, 대응역량 강화의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네트워크 품질 리스크를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에 각 지역으로 분산된 운용 조직을 집중 운용체제로 재편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R&D를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강화 노력도 지속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본원적 경쟁 차별화 기술에 대한 선제적 확보와 기술 기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스토리지(Storage),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퀀텀(Quantum), 비디오 클라우드(Video Cloud), IoT, LTE-A 및 5G 등의 진화 기술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신성장 사업을 위한 가시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LTE고도화, IT인프라 강화 및 차세대 인프라로의 진화 추진, 그리고 플래시 스토리지(Flash Storage), 빅데이터(Big Data) 등 성장 사업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투자로 인해 R&D 투자비용은 2014년 대비 17% 증가한 6,4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CAPEX 중 R&D 투자 비중은 32.4%입니다. 특히 차세대 IT인프라의 구축에 총 R&D 비용의 7.2%에 해당하는 46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분산되어 있던 R&D 조직을 종합기술원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R&D 영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술 기반 성장 견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R&D 인력 규모는 전년 대비 1%p 증가하여 총 1,16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2013	2014	2015
R&D 총 비용 (십억 원)	435	526	614
R&D 인력 (명)	1,094	1,153	1,165



CAPEX			
	2013	2014	2015
CAPEX(SK텔레콤 개별, 십억 원)	2,316	2,145	1,895

2.3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보호)

SK텔레콤은 고객정보 보호를 핵심적 경영이슈로 관리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제거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교육, 유통망 및 자회사 실태 조사 강화 등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은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결과, 2012년 이후 시스템 해킹 등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2013	2014	2015
시스템 고객 정보 유출	0	0	0

주요 고객안심지표인 소액결제 VoC 발생률과 로밍 요금 VoC 발생률은 연간 소액결제 상담 접수 건수 대비 소액결제 불만 VoC 건수를 의미하며, 2013년부터 해당 지표를 관리하여 1% 미만의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폭탄(Bill Shock) 방지, 개인정보보호, 자녀안심, 스팸 및 스미싱 등 불법 사기성 메시지 근절 등의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고객안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 VoC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2015년 소액결제 VoC 발생률은 전년 대비 70% 감소한 0.03%로 기록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마케팅, 솔루션 부문 유통망 대리점 매장 4,700여 개(전수, 100%)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진단(Audit)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00대 대상 정보유출

고객안심지표 (단위: %)			
	2013	2014	2015
소액결제 피해 VoC 발생률	0.12	0.10	0.03

관련 유통망 PC 원격 상시진단 실시 하였습니다. 상품/서비스 기준 정보보호 점검은 224건(100%) 실행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2015년에 이어 전 유통망 및 상품/서비스에서 고객 정보보호 진단(Audit) 및 점검을 100% 이행할 계획입니다.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2014	2015
유통망 매장 고객 정보보호 점검 수	1,800	4,700
전체 유통망 대비 점검 비율(%)	41.9%	100%
상품/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수	-	224
전체 상품/서비스 대비 진단 비율(%)	-	100%

2.4 협력회사 동반성장

SK텔레콤은 동반성장 실천을 통해 ICT산업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SK텔레

콤은 민간기업 최초로, KOTRA 무역관을 지사처럼 활용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협력사 지원 협약을 KOTRA와 체결하였으며, 세종·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보존 및 발급)에 대한 이행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 매출확대, 기술, 교육, 인력 지원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SK텔레콤은 2015년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인 동반성장지수 평가(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협약이행 평가 및 동반성장위원회 협력회사 체감도 조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고,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동반성장협약 주요 이행 실적		
구분	이행 실적	달성도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의 원자재 및 기타 가격변동에 의한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대한 적극 인상 반영 - 협력회사 요청 건수 기준 100% 이상 반영	100%
협력회사	전년대비 협력회사 거래 규모 1.6% 증가	100%
매출확대 지원	- 전시지원, 판로개척 등 총 250건의 매출확대 지원	
자금(금융) 지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직접 출연, 네트워크론 제도 운영, 동반성장펀드 1,675억 원 규모 조성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37억 원 이상 출연, 동반성장펀드 781억 원(전년대비 1억 원 증액) 예치 등	100%
결제수단 및 지급기일 개선	현금결제 비율 100%, 대금지급기일 10일 이내 100% 지급 - 현금결제 100% 시행(지속), 중소기업 결제 우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급기일 10일 이내 유지	100%
기술지원 및 보호	기술지원 및 보호 적극 시행 -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Open Collaboration, 인프라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자료 입체제도,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등	100%
교육/훈련 및 인력/채용 지원	총 교육 위탁인원 수 약 10,000명 이상 - SK동반성장아카데미 교육 지원, 협력회사 대상 CEO 세미나 및 MBA 과정, 차별화된 계층별 교육, 전문 인력 파견 지원	100%
기타 지원	- 구매 및 동반성장 전담 조직 KPI 할당,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운영, 윤리경영활동 지속 운영,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100%
기타 자발적 이행	협력회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 협력회사 복지 지원, 우수 협력회사 수의 계약, 경영컨설팅, 녹색구매 등	100%

2.5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SK텔레콤은 공급망 관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공급망 책임 보증 프로세스에 반영합니다. 식별된 리스크 요소는 공식적인 '공급망 CSR 가이드라인' 및 '공정/투명 거래 등 CSR 실천동의서'에 공식화되어 협력사에 100% 적용됩니다. SK텔레콤은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 거래관계 종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SK텔레콤의 공급망 원칙 및 책임 보증에 관한 정보는 pp.121-125에 기재된 공급망 보

고서(Supply Chain Report)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15년 등록 협력회사인 2,346개 협력회사 중 54.1%에 해당하는 1,270개 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사(Audit), 9.0%에 해당하는 212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실사(Audit)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협력회사 대상 제3자 외부 감사 및 진단 평가 관련, 당사의 동반성장 협약 대상 100개사에 대하여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외부 평가 기관의 협력기관 대상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평가(스크리닝)					
	2013	2014	2015	2016 목표	비고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346	712	706	710	
인권·환경·윤리·사회 부문 평가 수	346	712	706	710	*용역/공사/장비/물품 협력업체
사전 평가 비율	100%	100%	100%	100%	

공급망 리스크 평가(Audit)					
	2013	2014	2015	2016 목표	비고
총 등록 협력회사 수	1,496	1,510	2,346	2,567	
서면조사 실사 (Audit) 협력회사 수	974	815	1,270	1,200 이상	
방문조사 실사 (Audit) 협력회사 수	162	205	212	250	*공사/장비 협력업체 개별 협력회사 면담, 1 on 1 미팅 포함
3rd Party 조사 협력회사 수	-	-	100	100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공급망 ESG 성과 관리 지표					
	2013	2014	2015	2016 목표	비고
2차 협력사 평균 대금 지급 소요일	8.7	7.1	8.7	8.7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근로 및 노동조건	201	291	323	204	
등 경영환경 개선 참여 협력회사 수					

협력회사 리스크 시정조치 현황					
	2013	2014	2015	비고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회사 수	2	2	2	구매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일시 거래정지	1	1	0	거래정지 2년	
영구 거래 정지	1	1	2	영구 퇴출	

2.6 지역사회 투자

SK텔레콤의 지역사회 투자전략은 1) ICT 기반의 공유 가치 창출, 2) 지역 사회를 위한 기술기반 플랫폼 제공, 3)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최소화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Bravo! Restart'등 ICT 기반의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한 누적 34개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기술기발 플랫폼 제공 측면에서는, 모바일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공익 플랫폼을 구축하여

2004년부터 모바일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들의 손쉬운 기부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부 플랫폼 '기브유(GiveU)' 및 자원봉사 매칭 플랫폼 '위드유(WithU)'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2015년 말 기준 누적 모금액 10.3억원, 누적 등록 일감 수 67,529 건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15.7%p, 65.7%p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는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격차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활동입니다. 상세한 성과 내용은 2.1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기부 플랫폼 운영현황			
	2013	2014	2015
기부 플랫폼 기브 유(Give U) 누적 모금액 (백만 원)	740	890	1,030
자원봉사 매칭 플랫폼 위드유(With U) 누적 등록 일감 수	-	40,755	67,529

주요 기부처 리스트	
지원기관	프로그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청소년 IT챌린지 개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대상 앱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운영
사단법인최경주복지회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등 지원
행복나눔재단	방학 중 결식 아동을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가 양성
세스넷	프로보노 봉사단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 영어학습 지원 사업 - 도전 잉글리시 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 및 휴대폰 활용 경쟁 대회
몸짓과 소리	발달 장애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
대한핸드볼협회	올림픽게임 훈련 및 지도자, 선수 역량 강화 지원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리드 (LEAD) 연회비 납부 및 글로벌 CSR 컨퍼런스 지원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SK청년비상 사업 추진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건립 사업 건
대한펜싱협회	올림픽게임 훈련 및 지도자, 선수 역량 강화 지원
휴먼에듀관리재단	SK미소금융재단 사업 운영 지원
한국e스포츠클럽회	한국e스포츠클럽회 지원
국제e스포츠클럽회	국제e스포츠클럽회 지원
바른ICT연구소	올바른 ICT문화 구축 관련 연구 지원

* SK텔레콤의 주요 기부처 리스트 중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기부는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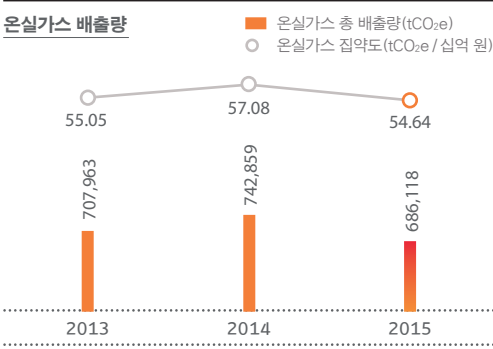
Section 3. 환경 자본(Natural Capital)

3.1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6개 주요 사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범위에는 네트워크 시설(기지국 및 장비)에 의한 배출량이 모두 포함되며, 자회사 및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SK텔레콤 개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5년 SK텔레콤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힘입어 전년 대비 6.5% 감소한 68.6만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네트워크의 경우, 기지국 등 장비 통합 및 노후냉방기기 교체이며 사옥은 냉난방 조절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중계기, 기지국 통합관리 등의 자체 감축 활동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협력회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쇄 배출권 확보로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인 참여 및 목표 달성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집약도 기준 연평균 2%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여, 2020년까지 매출액 십억원 당 배출량 52.32 tCO₂e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3	2014	20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7,375	7,124	8,447	
고정연소	5,236	4,877	5,666	
이동연소	2,139	2,248	2,78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700,588	735,750	677,687	
전력	700,484	735,664	677,585	
스팀	104	86	102	
온실가스 총 배출량	707,963	742,859	686,118	
온실가스 집약도	55.05	57.08	54.64	
(tCO ₂ e / 십억 원)				



3.2 에너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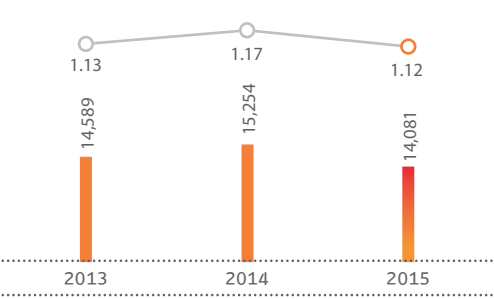
SK텔레콤의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치는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에너지 사용 고지서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약도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SK텔레콤 개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적 중 자연공조 냉방기로 인한 절감 실적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실적에는 과거 연도(2012~2013년) 실측 데이터 산정값을 2015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 총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14,081 TJ 입니다. 사옥에서 냉난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사용량 절감과 기지국, 중계기 등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노후 냉방기기 교체 등 에너지 절감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켰습니다. SK텔레콤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저효율 구형 장비 교체를 중심으로 사옥관리, 신재생 에너지 시설 전력 생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집약도 기준 연 평균 2%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여, 2020년 매출액 십억 원 당 1.17 TJ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 현황

	2013	2014	2015
직접 에너지 소비량 (TJ)	163	121	146
천연가스 사용량 (Nm³)	1,610,880	1,561,961	1,912,250
경유 사용량 (Liter)	116,984	66,000	279,084
등유 사용량 (Liter)	509,323	439,182	495,790
간접 에너지 소비량 (TJ)	14,426	15,150	13,954
전력 사용량 (MWh)	1,502,377	1,577,830	1,453,265
스팀 사용량 (GJ)	3,318	3,192	2,692
총 에너지 소비량 (TJ)	14,589	15,254	14,081
사옥 관리 (MWh)	3,901	3,143	2,145
자연공조냉방기 도입 (MWh)	39,857	39,857	39,857
총 전력 사용량 절감 실적 (MWh)	46,487	45,729	44,731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	2,729	2,729	2,729
생산 (MWh)			
에너지 집약도 (TJ/십억 원)	1.13	1.17	1.12

에너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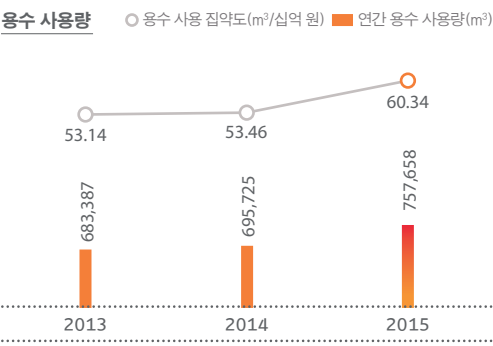
3.3 용수 사용

용수 사용량은 SK텔레콤의 26개 사옥의 수도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용수 사용량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수 집약도는 총 용수 사용량을 SK텔레콤 개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5년 연간 용수 사용량은 사업 확장에 따라 교육인원, 고객센터 구성원 등 식수 인원의 증가와 통신사용량 증가로 냉방부하가 높아져 냉각탑 보급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8.9% 증가한 757,658m³ 입니다.

용수 사용 현황

	2013	2014	2015
상수도 사용량	623,429	632,304	687,087
지하수 사용량	59,908	63,421	70,571
연간 용수 사용량	683,387	695,725	757,658
용수 사용 집약도 (m³/십억 원)	53.14	53.46	6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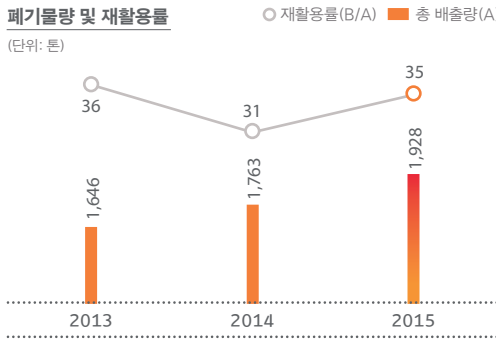


3.4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은 SK텔레콤의 26개 사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폐기물 배출량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배출 집약도는 총 폐기물 배출량을 SK텔레콤 별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3년부터 폐기물 배출량은 생활, 음식, 대형, 재활용, 지정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보고하였습니다.

2015년 폐기물 배출량은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1,763톤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실 및 창고 정리에 의한 대형 및 생활 폐기물이 증가되었으며 음식물의 경우, 식수 인원 증가와 사옥 일부에서 식사 자체 해결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현황 (단위: 톤)			
	2013	2014	2015
생활 폐기물	556	685	648
대형 폐기물	85	79	91
재활용 폐기물(B)	583	548	666
음식물 폐기물	373	416	505
지정 폐기물	29	33	18
총 배출량(A)	1,646	1,763	1,928
재활용률(B/A)	36	31	35
폐기물 배출 집약도 (톤/십억 원)	0.126	0.135	0.154



3.5 자원 사용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SK텔레콤의 고객 중 스마트 · 이메일 · 문자(MMS) 청구서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입니다.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은 연간 신규 가입자 중에서 전자청구서를 신청한 고객의 비율입니다.

2010년 스마트 청구서를 도입한 이후 전자청구서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2014년 대비 8.8% 증가한 2,132만 명입니다. 전자청구서 이용을 통해 청구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청구서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가입자 수를 꾸준히

히 늘리고 있습니다. 전자청구서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은 전년 대비 6.9%p 증가한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자청구서 이용 현황

	2013	2014	2015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 (천 명)	17,861	19,604	21,328
전자청구서 가입률 (%)	69.4	77.0	83.9

단말기 회수율은 연간 회수 단말기를 총 판매 단말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15년 단말기 회수율은 4%로 2014년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SK텔레콤의 폐휴대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오던 ‘행복한 에코폰’이 SK(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수거 실적이 급감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단말기 회수 현황

	2013	2014	2015
단말기 판매량 (천 대)	9,838	8,133	9,063
단말기 회수량 (천 대)	785	370	326
단말기 회수율 (%)	8.0	4.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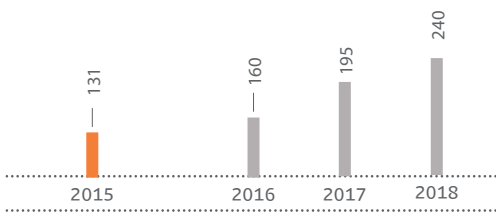
3.6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은 SK텔레콤이 보유한 ICT서비스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SK텔레콤의 T 맵 네비게이션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연료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2015년 사회적 온실가스 절감량은 연간 약 131만 톤이며, 중기 목표로 등록 차량 증가율과 네비게이션 보급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160만 톤, 2017년 연간 195만 톤, 2018년 연간 240만 톤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2013	2014	2015
연간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량 (만 tCO2e)	-	-	131

사회적 온실가스 연 감축목표



3.7 환경 지출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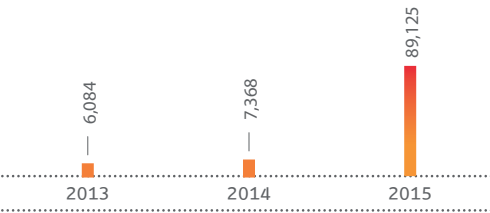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는 SK텔레콤 개별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녹색구매 비용은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 환경마크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탄소성적표지인증, 저탄소 상품인증 구매를 포함합니다. 2015년 녹색 구매를 제외한 총 환경 원가는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원가 증가 주요 사유는 교육 · 훈련 비용, 사옥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증가에 있습니다. 녹색구매는 고가 장비 구매 중심 녹색인증 확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1배 증가하였습니다.

총 환경 원가(녹색구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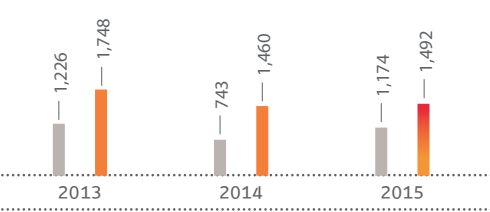
	2013	2014	2015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94	101	95
교육 · 훈련 비용	35	13	24
기타 비용	0	0	0
재활용 위탁처리 비용	29	24	20
사외 자연보전 비용	18	7	0
부담금, 부과금	148	123	328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	197	207	242
응 비용			
총 환경 원가(녹색구매 제외)	521	475	709

* 금년 보고서부터 환경 원가 산정에 대한 내부 기준이 변경(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비용 포함)됨에 따라 과거 년도 보고 데이터를 함께 정정 기재하였습니다.

녹색구매 비용



환경 자원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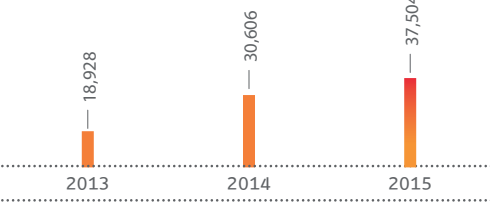


3.8 전자파

2007년 6월 전자파 측정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자파 강도측정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2015년 총 37,504건의 무선국 전자파를 측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 무선국들의 실제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된 무선국들의 99.9% 이상이 전자파 등급제 기준 1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 시행 이래 (2014년8월~) 거의 모든 무선국들이 가장 안전한 등급인 1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2014년 8월부터 한국전자파학회의 전자파 인체영향 5개년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현재 2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소요되는 전체 15억 원의 재원 중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건 수



Other Disclosures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감독기관의 규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요구하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제재 및 조치 현황	
제재일	2015.03.12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9.34억원 및 시정명령 부과. 2015년 4월,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완료
제재일	2015.03.26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235억원, 신규모집금지 7일 및 시정명령 부과. 2015년 5월,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완료. 2015년10월 (10/1~7, 7일간) 신규모집금지 명령을 이행 완료
제재일	2015.05.13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35억 6천만 원(개인정보보호 관련 3.6억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관련 32억원) 및 시정명령 부과. 2015년 7월, 과징금 납부 완료. 2015년 9월, 시정조치 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완료. * 개인정보보호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관련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는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6/24)에 따른 항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과징금3.2억원은 과징금 납부 기한(7/13)과 당사의 시정명령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확정 시정(7/21)간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既 납부)
제재일	2015.05.28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인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3억 5천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2015년 8월, 과징금 납부를 완료. 2015년 10월, 시정조치 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완료
제재일	2015.12.10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5억 6천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2016년 2월 과징금 납부 및 시정조치 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완료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5년 2월 2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제이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 텔레콤”)의 ‘연차보고서 2015’ (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SK 텔레콤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5년도 데이터에 한정되며, 검증 활동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AA1000 Assurance Standard(AS) 2008에 따라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Type2적용, 중간수준의 보증)
- GRI G4 가이드라인의 포괄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mprehensive)에 따른 공개 내용의 검증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의 지속가능성 관련 상위레벨의 데이터 및 활동의 검증)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정보 및 성과 데이터 검증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AA1000AS(2008) 및 DNV GL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 (VeriSustainTM)에 따라 중간수준 보증의 Type 2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증심사는 2016년 5월에서6월까지 기간 동안 SK 텔레콤 본사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
- 주요 부서의 담당자들과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요성 평가 결과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SK텔레콤의 자회사,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 텔레콤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홈페이지 (<http://www.sktelecom.com>)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SK 텔레콤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포함해서 한정된 범위의 근거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SK 텔레콤의 내부 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으며, 검증팀은 경제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시험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데이터의 경우, 취합데이터에 대한 확인의 형태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DNV GL은 본 설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SK 텔레콤의 보고서가 AA1000AP(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내용 결정 원칙 적용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기술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가GRI G4 가이드라인의 포괄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mprehensive에 따른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A1000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적 근본원칙

SK텔레콤은 고객, 협력 회사, 구성원, 지역사회·NGO, 주주, 정부 등을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과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으며,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보고서에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서 중심의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이 운영되며, 중요 사안의 경우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보고서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 이슈 pool을 구성하였으며, 사업 및 이해관계자와 각 이슈들의 연관성과 영향도 측면에서 중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의 평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제외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중대 이슈가 선정되었고 파악된 9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응성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된 중요 이슈들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견해, 관심사항 및 기대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중요 이슈에 대한 지속가능성 맥락은 SK텔레콤의 사업전략 및 성과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량화된 3개년 치의 성과데이터는 지속가능성과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성 및 신뢰성

검증 과정 중 발견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오류는 최종 보고서 발행 전 수정되었습니다. 샘플링 확인 및 기타 다른 보고된 정보와 이용 가능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고서에 실린 데이터 및 정보는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성과 정보와 관련된 발견사항

DNV GL 은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SK 텔레콤의 AA1000APS(2008)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 것에 더해, 정보/데이터 부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Type 2 검증). 정보/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해당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용수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재해율 그리고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Type 2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SK 텔레콤의 개별 데이터 담당자는 상기에서 확인된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재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사팀은 금번 검증 활동을 통해 SK 텔레콤의 특정 정보 및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공시된 상기 정보 및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Business Assurance는 DNV GL 그룹의 일원으로 인증, 검증, 평가,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기관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환경 및 사회 검증 심사 전문가들은 전세계 약 100여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SK 텔레콤 보고서의 검증도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춘 심사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3일 서울, 대한민국



㈜디엔브이제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표이사 안인균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검증 범위

이 검증의견서는 SK텔레콤(주)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LRQA)는 SK텔레콤(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주)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기록된 SK텔레콤(주)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관련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래의 표1과 같이 검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과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온실가스 보고서의 작성과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관리를 유지하는 책임은 SK텔레콤(주)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LRQA의 책임은 SK텔레콤(주)의 계약에 의해 보고서의 보증업무에 한정됩니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SK텔레콤(주)에 의하여 승인되고, SK텔레콤(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LRQA의 검증방법

LRQA의 검증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SK텔레콤(주) 온실가스 보고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합리적 보증 수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심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심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장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에너지 사용량 기록을 관리하는 관련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자료의 관리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SK텔레콤(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의 데이터 및 정보를 검증하였습니다.

보증수준 및 중요성

이 검증 의견서의 검증 보증 정도는 합리적 보증이며, 2.5%의 중요성 기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LRQA의 의견

LRQA의 검증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중요성 측면에서 의심을 줄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결론의 전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 장비 중 전기 사용량 정보가 관리 되지 않은 일부 소형기기들에 대한 배출량은 유사 기기들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양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이 적용된 통신 장비의 숫자는 파악되었으나 기업정보 보안상 비공개 요청으로 본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016 년 3 월 31 일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를 대표하여

유상근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07327



LRQA 참조번호: SEO 6017128

표 1. SK텔레콤(주) 온실가스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정의에 따름)	2015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8,43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677,687
온실가스 총 배출량	686,118
상기 데이터는 CO2의 환산 톤 수치에 해당함	

검증의견서

본 검증의견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 검증 의견임.

제 3자 배상책임

LRQA, 그 관계사와 자회사 및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 조항에서 'Lloyd Register Group'으로 나타냅니다. Lloyd Register Group은 누구에게도 이 문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야기된 어떠한 손실, 손상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관련 Lloyd Register Group의 일원과 이 정보나 조언의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런 경우 모든 책임과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에 기술된 조건에 따릅니다.

본 선언문의 국문판만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Lloyd's Register Group은 타 언어로 번역된 버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2016. A member of the Lloyd's Register Group.



> Appendix

CEO HUMAN RIGHTS STATEMENT	116
HUMAN RIGHTS ASSESSMENT REPORT	118
SUPPLY CHAIN REPORT	121
GRI INDEX	126
UNGC INDEX	134
SASB INDEX	136
재무 성과표(개별)	137
SK텔레콤 GLOBAL NETWORK	143
투자자 정보(INVESTOR INFORMATION)	144

CEO 인권정책성명(CEO Human Rights Statement)

SK텔레콤은 '기업의 영구존속, 발전을 통해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는 SKMS규범을 근간으로 삼아,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준수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당사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에 높은 수준의 인권 존중에 관한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일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SK텔레콤은 '유엔 인권 기본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유엔 인권 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SK텔레콤은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해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침해의 방조 또는 공모 행위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노동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갖는 조직, 운영 구조, 모니터링 절차, 발생 사건에 대한 조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본 정책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ICT 사업자로서 다음의 측면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예방적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업장 내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인권(Human Rights in Workplace)

- 강제노동·아동노동 등의 잘못된 노동관행의 근본적 방지
-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등에 따른 차별 방지
- 정치적, 종교적, 신체적 자유와 시민권 존중
- 기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안전·보건, 근무시간 등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Human Rights in Privacy Policies)

- 법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구 및 기록, 저장
- 정보 저장에 대한 사전 고지와 주의 의무, 개인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삭제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충분한 보안체계
- 서비스·마케팅 차원에서 제한되고 책임 있는 개인 정보 활용

3)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Human Rights in Access to Information & Freedom of Expression)

- 계층·장애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 의무
- 디지털·스마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요금제도, 시스템 등
-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 보호를 위한 유통 정보에 대한 책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지지

4) 기술, 서비스, 데이터 오용 방지(Human Rights in Technology)

- 기술, 전자장비, 데이터의 범죄목적(Dual Purpose) 활용에 대한 거부
- 도청, 전파방해, 해킹 등의 기술 오용 근절

SK텔레콤은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침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당하신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ktelecom.com/sktelecom/csr/csr04_02.jsp)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권 원칙 지지와 준수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장 동 현

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인권 보호 및 실사(Due Diligence)
원칙의 준수

SK텔레콤은사업 운영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직접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입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이 개개인의 정보 교환과 접근을 진작하고 사회적 인식, 개방성, 투명성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SK텔레콤은 UN 인권헌장(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적시된 인권을 존중하고, UN 비즈니스 인권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전 사업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UN 비즈니스 인권 원칙의 적용

UN 비즈니스 인권 원칙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과정에서의 인권 진작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 원칙으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을 기대합니다. SK텔레콤은 인권에 대한 접근 방법을 UN 비즈니스 인권 원칙과 비교하여 진단 분석(Gap Analysis)을 수행하여 회사의 인권 정책(Human Right Policy)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인권 요소 중 SK텔레콤과 가장 연관성 있는 인권 정책 요소로 1) 사업장 내 구성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2)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4) 기술과 서비스, 데이터 오용의 방지를 핵심적인 인권 요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 이슈는 구체적인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신규 시장 진출 및 신제품, 서비스

의 출시 과정에서 전반적인 인권 관련 원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015, 2016년간 SK텔레콤은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인권 원칙의 전사적인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핵심적 인권 요소에 대한 실사 및 검토 결과

2-1. 구성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인권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SK텔레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구성원,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된 파트너)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는 임직원을 개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임직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일부 협력회사 및 공급회사들은 수용가능한 수준의 근로 및 노동 조건과 인권에 대한 존중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세스는 공정/투명 거래 등 CSR 실천 동의서를 통해 협력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근로 조건 및 노동 조건을 보장과 적절한 수준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pp.121-125 의 ‘Supply Chain Report’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급망 리스크 평가(스크리닝)				(단위: 개 사)
	2013	2014	2015	비고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346	712	706	
인권 · 환경 · 윤리 · 사회 부문 스크리닝	346	712	706	*용역/공사/장비/물품 협력업체
평가 비율	100%	100%	100%	

2-2.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SK텔레콤은 사업 과정에서 약 2,2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 및 기록 등의 개인 관련정보를 취급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버를 통해 저장/관리되며, 온라인 채널 및 오프라인 채널 고객 접점에서 유통망을 통해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K텔레콤과 거래하는 모든 유통 파트너사는 정기적인 진단(Audit)을 통해 리스크 노출 발생시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마케팅, 솔루션 부문 유통망 대리점 매장 4,700여개(전체 대비 비중 100%)에 대한 점검 및 진단(Audit)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20,000대 대상 정보 유출 관련 유통망 PC 원격 상시 진단 실시, 점검원 역량강화 교육 시행(월 1회), 유통망 정기 정보보호 교육활동을 통한 계도 강화(분기별 1회)등 본체 뿐만 아니라, 유통망 대상 사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활동을 실시하여 연간 개인 정보 유출 0건의 목표를 달성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PC에는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상품 및 서비스 전수(100%)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을 수행하고 발견된 322건의 보안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2014	2015
유통망 매장 고객 정보보호 점검 수	1,800	4,700
전체 유통망 대비 점검 비율(%)	41.9%	100%
상품/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2014	2015
상품/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수	-	224
전체 상품/서비스 대비 진단 비율(%)	-	100%
보안 개선사항 발견 수	-	491
단기 조치완료 건 수	-	322

개선항목을 발견하여 적기에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 정보 접근권

정보 접근권 및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제한은 시민권 및 정치 참여권의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SK텔레콤은 평등한 정보의 접근이 매우 중요한 인권 이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1)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Access through Affordability), 2)교육을 통한 접근성(Access through Education) 향상, 3)네트워크 인프라 낙후로 인한 기술적인 정보 접근 제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제공(Access through Technology)등의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와 결과에 관해서는 pp.96-97 의 ‘Access to Service’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의 권리 또한 중요한 인권 요소입니다. SK텔레콤은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온라인에 안전하게 접속하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조치(성인 콘텐츠의 제한,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차단 등)들을 지지합니다. SK텔레콤은 어린이의 정보 접근과 인터넷 안전에 관한 보편적인 접근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책임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실현하고, 안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행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갖추는 한편 T청소년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4. 기술과 서비스, 데이터 오용 방지

SK텔레콤은 범죄,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에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 오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년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수준의 기술 오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추가적 주의가 필요한 잠재적 인권 이슈

3-1. 토지 등 주민 권리(Land Use)

토지, 재산 등 원주민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새로운 사업장의 확장 및 지역 진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회사는 기지국 및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원주민 권리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매출은 95%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장 진출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 등의 잠재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내 사업장의 기지국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 주민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시 채널(고객센터 및 CSR 의견 접수 채널)을 통해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3-2. 전자 폐기물(e-Waste)

UN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상당한 양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등 전자폐기물들이 불법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 폐기물은 수은, 납, 카드뮴 등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 및 폐기 과정에 상당한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공중 보건 및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칩니다. SK 텔레콤은 법적 기준에 따라 폐

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행복한 에코폰’을 통한 단말기 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유통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전자폐기물 문제에 SK텔레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 산업계 전반에서 공동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DRC)나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금(Gold), 텅스텐(Tungsten), 주석(Tin), 탄탈륨(Tantalum) 등의 광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지난 10년간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장반군이 분쟁광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자산업계의 주요한 인권 이슈가 되었습니다. 분쟁광물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제품은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자 디바이스입니다. SK텔레콤은 전자 디바이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지만, SK텔레콤에 납품되는 자재, 부품, 장비 등이 분쟁광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EICC(전자산업시민연대)와 GeSI(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을 통해 원산지 추적 및 실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리적 원산지 판단결과, 추가적인 공급사실사가 필요한 분쟁지역 생산 광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 리스크 검토 및 실사

	적용그룹	위험수준	검토 및 실사	비고
구성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인권	일반, 아동, 이주노동자	Moderate	100%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High	100%	
정보 접근권	일반, 아동	Moderate	100%	
기술 및 서비스 오용	일반	Low	-	불만 처리(Grievance Resolution) 처리 채널을 통해 구체적 접수 시 검토

Supply Chai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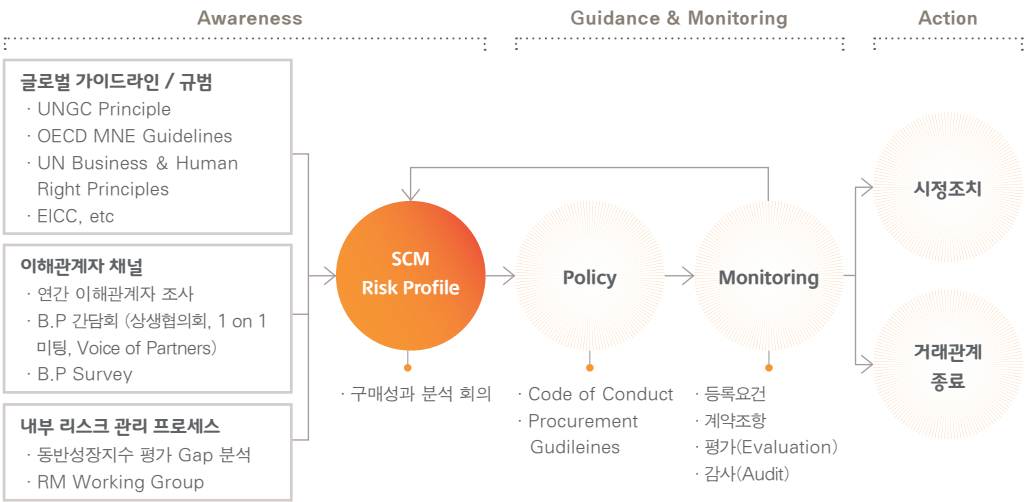
책임 있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통한 경쟁력 향상

1. 배경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공급망 지속가능성(Supply Chain Sustainability) 관리 정책과 절차를 밝히고,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가치 사슬

차원의 책임과 그 보증(Assurance)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플랫폼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회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공급 사슬 내 협력회사의 주요한 리스크 요소에 대한 검토와 해소 노력, 기획 요인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SK텔레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절차



2. 공급망 리스크 노출 분석

구매 분석 작업을 통해 핵심 공급망을 도출하고, 공급망 내의 주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장비(네트워크 및 인프라), 용역(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물품, 공사 파트너 유형 구매 그룹으로 구매액 기준 100%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계속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SK텔레콤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공급업체(Critical Supplier)' 그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핵심 공급업체는 (1)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관성 및 신뢰도, (2)높은 수준의 거래액, (3)독점 기술에 대한 대체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류하여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총 2,346개사의 등록된 협력회사 중 325개사가 핵심 공급업체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 공급망 내 주요 리스크의 식별

SK텔레콤의 공급망 리스크는 연 2회 이상 동반성장만족도 조사 등 협력사 대상 조사 (B.P Survey), 협력사 대상 간담회, Voice of Partners (신문고) 청취,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 등 내부 리스크 프로세스에서 발견되는 위

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급회사 그룹별 리스크 Gap 분석 (Risk Gap Analysis), 협력회사별 리스크 매핑 (Risk Mapping) 결과를 ‘구매 성과분석 개선 회의’에서 매월 검토합니다. SK텔레콤은 공급망 관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식별 결과 (2015)				
리스크	주요 리스크 요소	Risk Level	Sourcing Group	1차 공급업체 리스크 분석 비중
경제적 리스크	계약 과정의 윤리 및 반부패 원칙 위반	High	전 협력회사	100%
	담합 및 불공정 행위	High	전 협력회사	100%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High	전 협력회사	100%
	낮은 신용등급 등 재무구조 불건전	High	전 협력회사	100%
사회적 리스크	ILO 노동 규약 및 합리적 노동 관행 위반 (근무 시간 준수, 급여지급, 기타 노동 인권)	Moderate	응역 파트너 공사 파트너	95%
	분쟁광물	Low	장비 파트너	23%
	환경 규제 위반	Moderate	장비 파트너	23%
환경적 리스크	높은 온실가스 배출	Moderate	장비 파트너	23%
	환경운영시스템 미도입	Low	공사 파트너	40%
			장비 파트너	

4. 정책(Policy) 및 참여(Engagement)

식별된 리스크 요소는 공식적인 ‘공급망 ESG 정책’ 및 ‘공정투명 거래 등 CSR 실천동의서’에 공식화되어 SK텔레콤의 등록 협력 회사에 100% 적용됩니다. SK텔레콤은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 거래관계 종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1 정책 (Policy)

SK텔레콤의 공급망 ESG 정책은 적용범위(Scope), 위험관리 절차(Risk Mgt. Process), 적용정책(Polic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ESG정책은 SK텔레콤과 계약관계를 맺는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됩니다. 협력회사

들은 2차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도 해당 원칙과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SK텔레콤의 공급망 ESG 정책은 1)반부패, 2)공정거래 원칙의 준수, 3)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4)재무적 투명성, 5)올바른 공공정책 참여, 6)고객가치 존중, 7)환경보호, 8)임직원 보건 및 안전, 9)커뮤니티 참여, 10)인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sktelecom.com/supplychain>)을 통해 대외 공개되고 있습니다.

4.2 스크리닝

공정투명 거래 등 CSR 실천 동의서는 SK텔레콤의 공급망 ESG 정책에 대한 준수와 동의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SK텔레콤은 등록 협력회사의 100% 대상으로 당사의 공급망 정책에 대해 전자계약시스템(Open2U)

의 공정투명거래 및 CSR 실천 동의서를 통해 모든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3 계약 반영

SK텔레콤은 협력회사와의 서면 계약서 내 SK텔레콤의 공급망 정책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ub-Supplier와의 계약 및 Business Practice 전반에 걸쳐 협력회사가 SK텔레콤의 Code of Conduct에 준하여 실행하도록 협력회사 100% 대상 윤리실천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4 3rd Party, 국제기구 등 NGO와의 협력 이니셔티브

SK텔레콤은 우수 기업협의체인 UNGC LEAD 기업으로서 UNGC LEAD 활동에 기반하여, UNGC 원칙을 공급망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공급망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e-Sustainability 이니셔티브인 e-Gesi 의 JAC(Joint Audit Cooperation)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5. 리스크 검토 및 평가, 모니터링 및 조치

5.1 사전 모니터링

SK텔레콤은 전자계약시스템(Open2U)에 기반하여 ‘공정투명거래 및 CSR 실천 동의서’를 통해 2015년 신규 등록 협력회사를 100% 스크리닝 하였습니다.

5.2 지속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및 진단, 평가

SK텔레콤은 등록 협력회사의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실시 비중을 진단, 평가 활동 핵심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1차 협력회사(2,346 개사) 중 1,270 개사에 대한 서면조사, 212개사에 대한 방문조사(개별 협력회사 방문 및 면담, 1 on 1 미팅 포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리스크 식별 과정에서 ‘높은 위험(High

Risk)’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100% Risk 평가를 실시하여 Risk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협력회사 대상 제3자 외부 감사 및 진단 평가 관련, 당사의 동반성장 협약 대상 100개사에 대하여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외부 평가 기관의 협력기관 대상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전 공급회사에 이러한 정책 및 성과 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 구매 비중은 전체 구매액(4조 380억 원) 대비 185억 원(0.46%)으로 지역별 성과 지표는 국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3 인센티브, 지원, 시정 조치

매년 협력회사 진단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협력 회사에 대한 역량 제고 프로그램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합니다. 역량제고 프로그램으로는 기술이전, Open Collaboration 등의 기술지원 및 보호 활동을 비롯해 SK동반성장아카데미, 협력사 대상 CEO 세미나 및 MBA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험 감소를 위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감소를 위한 교육은 동반성장 협약, 협력회사 교육 과정 내 구매 정책 및 정책 준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합니다. 우수 협력회사의 인센티브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으로는 납품단가 조정, 자금(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 지원, 복지 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협력회사들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ESG 성과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협력회사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수는 총 2개사로 공정투명거래 위반, 비윤리 이슈 발생 사유 등 심각한 정책 위반 사유로 판단되어 해당하는 2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영구 거래 정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평가(스크리닝)					
	2013	2014	2015	2016 목표	비고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346	712	706	710	
인권 · 환경 · 윤리 · 사회 부문 평가 수	346	712	706	710	*용역/공사/장비/물품 협력업체
사전 평가 비율	100%	100%	100%	100%	

공급망 리스크 평가(Audit)					
	2013	2014	2015	2016 목표	비고
총 등록 협력회사 수	1,496	1,510	2,346	2,567	
서면조사 실사 (Audit) 협력회사 수	974	815	1,270	1,200 이상	
방문조사 실사 (Audit) 협력회사 수	162	205	212	250	*공사/장비 협력업체 개별 협력 회사 면담, 1 on 1 미팅 포함
3rd Party 조사 협력회사 수	-	-	100	100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공급망 ESG 성과 관리 지표					
	2013	2014	2015	2016 목표	비고
2차 협력사 평균 대금 지급 소요일	8.7	7.1	8.7	8.7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근로 및 노동조건 등 경영환경 개선 참여 협력회사 수	201	291	323	204	

협력회사 리스크 시정조치 현황					
	2013	2014	2015	비고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회사 수	2	2	2	구매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일시 거래정지	1	1	0	거래정지 2년	
영구 거래 정지	1	1	2	영구 퇴출	

6. Case Study – 구매 전략과 공급망 지속가능성

SK텔레콤의 구매 전략 우선순위는 1)TCO (Total Cost Ownership) 관점에서의 구매구조 개선으로 본원적 구매 경쟁력을 확보, 2)SK자회사 및 투자회사 정보통신 부문과의 ‘구매 시너지 협의체’를 통한 전략적 통합구매 활성화, 3)원가 구성에 대한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의 점검으로 비용 효과성 향상, 4)사업지향적(Business Friendly) 구매 프로세스로의 최적화 및 개선, 5)사전적 구매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공정 거래(Compliance)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실행을 통해 당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리소스(Resource)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 관행 등을 과감히 탈피해가

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리스크관리 실행에 따른 당사의 구매 전략 달성은 다음의 사업 사례(Business Case)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Business Case 1.

미활용 안테나의 Re-Use/Cycle 추진으로 비용 절감

2015년 SK텔레콤은 불용 안테나 부품 중 알루미늄, 플라스틱 모듈을 용융하여 매각하고, 브라켓을 당사 신규 안테나 공급 시 재사용 하도록 하는 ‘재활용 및 재사용 기반 SCM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TCO (Total Cost Ownership) 관점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량적 성과로는 협력업체(자재 매입 업체)는 3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안테나 공급회사는 8% 이상의 원자재 절감 효과를, SK텔레콤은 매각 및 매입 부문에서 30% 이상의 비용효율성 향상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성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정부 주도 기술 심사를 거쳐 우수 재활용 제품 고시 승인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initiative를 추진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친환경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2.

TCO 관점 개선을 통한 본원적 구매 경쟁력 확보

SK텔레콤의 구매 비용은 1회성 거래 비용이 아닌 중장기 관점(탐색, 유지 및 보수 비용 등 사전/사후 포함)의 구매 비용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 및 비용 효율성을 추진합니다. 특히, 2015년 전사 통합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공급망 비용 분석을 추진하여 신규 대용량 중계기(MiBos) 도너 개발 단일화로 개발 비용 절감(3억 원), 유휴 중계

기 및 창고 보관품 재활용을 통한 신규 투자비 절감(76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기, 냉방기, 소화설비, 정류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발전기 등 부속사업을 메인 사업에 통합하고 소규모 다종 업무의 일괄 발주를 추진하여 관리비용을 절감(20억 원) 하였으며, 유통망 VMD(Visual Merchandiser) 등 15개의 반복 구매 아이템을 연간 통합 계약하여 5억 원을 절감하는 등 연간 총 11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성적 성과로는 우수 업체 일괄발주/통합발주 등 장기 협력 기반 공급망 관계 구축을 통해 업체 관계를 개선하고 잠재 협력업체 탐색, 유지 및 보수 관련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구매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정 / 투명 거래 등 CSR 실천 동의서 (2015)

본인은 SK텔레콤(주)와 거래를 함에 있어 SK텔레콤(주)의 윤리경영을 포함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실천에 적극 협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기명 날인한다.

1. SK텔레콤(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귀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 접대 편의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2. SK텔레콤(주)의 임직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SK텔레콤(주)의 윤리상담센터(<http://www.sktelecom.com>, Tel.080-801-6262, Fax. 080-801-6272)에 신고한다.
3. SK텔레콤(주)와의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SK텔레콤(주)의 가입자정보 등을 포함한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4. SK텔레콤(주)와의 거래에서 다른 사업자와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5. SK텔레콤(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CSR의 실천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동참한다.
 - 가. 강제노동/아동노동 등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금지한다.
 - 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산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 다. 정치적, 종교적, 신체적 자유와 시민권을 존중한다.
 - 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상생경영 확산에 동참한다.
 - 바. 기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안전/보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한다.
6. 본인은 본 동의서를 위반한 경우 SK텔레콤(주)이 그 위반 정도 및 내부기준에 따라 취하는 거래물량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

GRI G4 General Standard Disclosures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Strategy and Analysis					
G4-1	CEO 메시지	●	pp.20-23	√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	pp.20-23, 66-67	√	
Organizational Profile					
G4-3	조직명	●	SK텔레콤(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pp.24-25	√	
G4-5	본사 위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	
G4-6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	●	pp.24-25, p.141	√	
G4-7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	p.142, 주식회사	√	
G4-8	시장 영역 (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	pp.24-25	√	
G4-9	조직의 규모	●	pp24-33, 92	√	
G4-10	인력의 크기	●	p.92	√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	p.9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5조 (노동조합 비율 50% 이상일 경우, 단체협약 대상 비율을 100%로 적용)	√	
G4-12	조직의 공급망	●	p.121	√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	pp.26-33	√	
G4-14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에 대한 명시		pp.20-23, SK텔레콤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지, UNGC(LEAD)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하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적극 대응함	√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	p.63	√	
G4-16	조직이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	앞 속표지	√	
Identified Material Aspects and Boundaries					
G4-17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	●	pp.31-33, 연결대상 주체는 2015 사업보고서 6p 참조	√	
G4-18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 적용	●	pp.34-37	√	
G4-19	보고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	●	pp.34-37	√	
G4-20	각 중대 측면 별 조직 내 측면 경계 및 경계와 관련된 한계	●	pp.34-37	√	
G4-21	각 중대 측면 별 조직 외부의 측면 경계, 조직 외부의 측면 경계와 관련된 한계	●	pp.34-37	√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본문에 별도의 주석 표기	√	
G4-22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본문에 별도의 주석 표기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Stakeholder Engagement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	pp.62-63	√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	pp.62-63	√	
G4-26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p.34, 62-63	√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대응	●	p.34, 62-63	√	
Report Profile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연도 또는 역년)	●	앞 속표지	√	
G4-29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보고일자	●	앞 속표지	√	
G4-30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	앞 속표지	√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	p.142	√	
G4-32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	앞 속표지	√	
G4-33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	●	앞 속표지	√	
Governance					
G4-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	pp.54-57	√	
G4-35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	●	pp.56-59	√	
G4-36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 내에 임원급 인사나 책임이 부여된 인사의 임명	●	pp.56-59	√	
G4-37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협의하는 과정	●	p.61	√	
G4-38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	●	p.57-59	√	
G4-39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의 임원 직위 겸임 여부	●	p.56	√	
G4-40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그 산하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그리고 아래 사항을 포함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기준	●	pp.56-57	√	
G4-41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	pp.56	√	
G4-42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조직의 목적, 가치 또는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개발, 승인, 개선하는 것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의 역할	●	p.57, 61	√	
G4-43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공동 지식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	●	p.61	√	
G4-44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	●	p.57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G4-45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	p.57	√
G4-46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검토할 때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	pp.57, 61	√
G4-47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검토하는 빈도	●	pp.57, 61	√
G4-48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식 검토하고 승인하며, 중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최고 위원회 또는 직위	●	p.61	√
G4-49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	●	pp.58-59, 61	√
G4-50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그리고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	pp.58-59	√
G4-51	보수 유형별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 보수 정책 상의 성과 기준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고위 임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와의 관련성	●	pp.57, 60	√
G4-52	보수 결정 절차(보수자문위원의 관여 여부, 경영과 독립적으로 수행 여부, 보수자문위원과 조직의 관계)	●	pp.57, 60	√
G4-53	보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어떻게 수렴하고 참작하는지 보고 (보수 정책에 대한 투표결과와 보수 정책에 대한 제안 포함)	●	pp.57, 60	√
G4-54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비율	●	pp.57, 60	√
G4-55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비율	●	pp.57, 60	√
Ethics and Integrity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	p.68	√
G4-57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	p.70	√
G4-58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 (계통보고, 내부고발제도, 핫라인 등)	●	p.70	√

* SK텔레콤 GRI G4 material aspects: economic performance, indirect economic impacts, energy, emissions,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employment, training and education, supplier assessment for labor practices, supplier human rights assessment, supplier assessment for impacts on society,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marketing communications, and customer privacy

● Reported / ○ Not Reported				
GRI G4 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Economic				
Economic Performance				
G4-DMA	경영접근방식	●	p.36	√
G4-EC1	직접적 가치창출과 분배	●	p.63	√
G4-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	pp.37, 59-51, 66-67	√
G4-EC3	조직의 확정 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총당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정직원 기준 100% 적용됨	√
G4-EC4	정부 재정지원	●	p.63	√
Market Presence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	모든 사업 지역에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및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없음. 단, 상세 내용은 내부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G4-EC6	주요 사업장의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	p. 92	√
Indirect Economic Impacts				
G4-DMA	경영접근방식	●	pp.37, 46-48	√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	pp.46-48	√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	pp.39, 46-48	√
Environmental				
Energy				
G4-DMA	경영접근방식	●	pp.37, 49-51	√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	p.103	√
G4-EN4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	p.51	√
G4-EN5	에너지 집약도	●	p.37	√
G4-EN6	에너지 소비 감축량	●	p.103	√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	pp.51, 66-67	√
Water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수원별 총 취수량	●	p.103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Emissions				
G4-DMA	경영접근방식	●	pp.37, 49-51	√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	p. 102	√
G4-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	p. 103	√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	pp.50-51, T-map, EMS, 스마트 시티 등 ICT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 추진함	√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	p. 102	√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	p. 102	√
G4-EN20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	산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	산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Euentes and Waste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	pp.103-104	√
Products and Services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	pp.51, 66-67	√
Compliance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	환경 법규 위반은 0건이며 과징금 및 벌금 납부 사실이 없음	√
Overall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	p. 105	√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G4-DMA	경영접근방식	●	pp.121-125	√
G4-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pp.122-124	√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	p. 123	√
Environmental Grievance Mechanisms				
G4-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	p.62	√
Social – Labor Practices and Decent Work				
Employment				
G4-DMA	경영접근방식	●	pp.92-93	√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	pp.92-93	√
G4-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 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	p. 93	√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무 비율	●	p.93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4-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	p.95	√
Training and Education				
G4-DMA	경영접근방식	●	pp.94-95	√
G4-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	p.94	√
G4-LA10	지속적인 고용과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	p.94	√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	p.95	√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G4-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	pp.54-55, 92	√
Supplier Assessment for Labor Practices				
G4-DMA	경영접근방식	●	pp.121-125	√
G4-LA14	노동관행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pp.122-123	√
G4-LA15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	p.123	√
Labor Practices Grievance Mechanisms				
G4-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노동관행 관련 고충 건수	●	p.62	√
Social – Human Rights				
Child Labor				
G4-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pp.116-120	√
Forced or Compulsory Labor				
G4-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pp.116-120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Assessment				
G4-HR9	인권 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	pp.118-120	√
Supplier Human Rights Assessment				
G4-DMA	경영접근방식	●	pp.121-125	√
G4-HR10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pp.122-124	√
G4-HR11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	p.123	√
Labor Practices Grievance Mechanisms				
G4-HR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 고충 건수	●	p.62	√
Social – Society				
Local Communities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	매출 95% 이상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한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실시	√
G4-SO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 · 실질적 ·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음	√
Anti-corruption				
G4-SO3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	p.68, 전사 윤리경영 진단 프로세스가 있으며, 정량 비율은 산정 불가능	√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	pp.68-70	√
G4-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p.69	√
Public Policy				
G4-SO6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	p.70,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부 사실 없음	√
Anti-competitive Behavior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	p.106	√
Compliance				
G4-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	p.106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3rd Party Assurance
Supplier Assessment for Impacts on Society				
G4-DMA	경영접근방식	●	pp.121-125	√
G4-SO9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	pp.122-124	√
G4-SO10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사회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	p.123	√
Grievance Mechanisms for Impacts on Society				
G4-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 영향 관련 고충 건수	●	p.62	√
Social – Product Responsibiltiy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G4-DMA	경영접근방식	●	pp.36, 45	√
G4-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	pp.98-99	√
G4-PR4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	p.106	√
G4-PR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p.45	√
Marketing Communications				
G4-DMA	경영접근방식	●	pp.36, 45	√
G4-PR6	금지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제품의 판매	●	0건.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되거나 사회적 논란 또는 금지된 제품이 확인되지 않음	√
G4-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	p.106	√
Marketing Communications				
G4-DMA	경영접근방식	●	pp.36, 45	√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p.98	√
Compliance				
G4-PR9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	p.106	√

SK텔레콤은 2007년 국내 4대 기업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한 이래, 로컬 협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창립 멤버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외 사회 문제 해결 및 글로벌 CSR 트렌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개 부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유엔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우수 기업 협의체인 리드(LEAD) 기업에 편입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 기업으로서 리드(LEAD) 중점 프로젝트인 보드(Board) 프로그램(이사회 대상 CSR 교육)을 기업시민위원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글로벌 CSR의 우수 실천 사례를 국내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Y-CSR 컨퍼런스, 한·중·일 라운드 테이블 등의 UNGC한국협회 주최의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CSR 분야 선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유엔 인권 기본 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CEO 명의로 천명 하였습니다.

UNGC 협회 활동 현황		
협회/이니셔티브	가입일	목적 / 비고
UNGC 본부	’07년 5월	글로벌 책임 경영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당사 CSR 체계 고도화 및 국내외
UNGC 한국협회	’07년 9월	CSR Reputation 제고
UNGC LEAD	’11년 1월	

유엔글로벌콤팩트 Advanced Criteria Index

UNGC Advanced Criteria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전략과 운영에 있어 UNGC 10대 원칙 이행		
Criterion 1	UNGC 10대 원칙을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편입하려는 노력	pp.20-23, 63
Criterion 2	UNGC 10대 원칙에 대한 가치사슬 내 구현	p.63, pp.116-117, 121

UNGC Advanced Criteria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확고한 인권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3	인권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116-117
Criterion 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p.118-120
Criterion 5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118-1120
확고한 노동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6	노동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95
Criterion 7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95,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실시하여 노동 원칙을 반영함
Criterion 8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62, 95,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 중이며 노동조합이 관련 이슈를 확인함
확고한 환경 정책과 절차		
Criterion 9	환경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20-23, 49-51
Criterion 10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p.49-51, 102-105
Criterion 11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49-51, 102-105
확고한 반부패 정책과 절차		
Criterion 12	반부패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68-70
Criterion 13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p.68-70
Criterion 1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68-70
보다 넓은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		
Criterion 15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통한 공헌	pp.46-51
Criterion 16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와 자선활동	pp.46-51, 101
Criterion 17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pp.46-51, 63
Criterion 18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과 외부이니셔티브 활동	pp.63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배구조와 리더십		
Criterion 19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추진의지와 리더십	pp.20-23
Criterion 20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안전 채택과 관리 감독	pp.58-59, 63
Criterion 21	이해관계자 참여	pp.61-62

136

SASB Index

Activity Metric			
측정 지표		코드	페이지
무선가입자		TC0301-A	p.30
유선가입자		TC0301-B	p.33
광대역(브로드밴드) 가입자		TC0301-C	p.33
네트워크 트래픽, 이동통신 망 비율, 고정통신 망 비율		TC0301-D	p.97
네트워크 대역폭 용량 및 임대 비율		TC0301-E	pp.47-48,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망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회선을 임대하고 있음
Disclosure Metric			
측정 지표		코드	페이지
운영상의 배출량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그리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셀룰러 및 고정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량	TC0301-01	pp.102-103
고객정보보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련 정책과 고객 정보 및 개인 식별정보 보유 정책	TC0301-02	pp.98-99
	고객정보 2차사용을 위해 수집된 고객 비율 및 동의 비율		-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총액 및 제재조치 현황	TC0301-04	p.106
	고객 정보 관련 법적 제재 건 수 및 공개 비율	TC0301-05	p.106
	정보보안 위반 건 수 및 비율	TC0301-06	정보보안과 관련된 위반 사실 없음
정보 보안	(개인식별정보 포함)		
	정보 보안 리스크 식별 및 규명에 대한 경영 접근 방식	TC0301-07	p.98
폐기물 관리	자원 회수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TC0301-08	pp.103-104
	- 자원 재이용률, 재활용률, 매립율		
통신(네트워크) 두절로 인한 시스템적	통신(네트워크) 두절 빈도 및 평균 지속기간	TC0301-09	-
위험 관리	통신(네트워크) 두절 시 대응 체계	TC0301-10	p.65
공정경쟁	불공정경쟁과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TC0301-11	p.106
	총액 및 제재조치 현황		

137

재무 성과표(개별)

제 32 기 2015.12.31 현재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자산			
유동자산	2,713,529	2,689,913	2,817,782
현금및현금성자산	431,666	248,311	448,459
단기금융상품	121,500	143,000	166,000
단기투자자산	92,262	197,161	102,042
매출채권	1,528,751	1,559,281	1,513,138
단기대여금	47,741	67,989	72,198
미수금	264,741	305,990	388,475
미수수익	7,505	6,354	5,682
선급금	80,926	51,619	9,112
선급비용	92,220	86,070	82,837
채고자산	45,991	23,694	24,596
기타의유동자산	226	444	1,57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3,667
비유동자산	20,433,411	20,022,549	20,009,637
장기금융상품	10,062	69	7,569
장기투자자산	726,505	608,797	729,703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	8,810,548	8,181,769	8,010,121
유형자산	7,442,280	7,705,906	7,459,986
영업권	1,306,236	1,306,236	1,306,236
무형자산	1,766,069	1,928,169	2,239,167
장기대여금	35,080	38,457	39,925
장기선급비용	29,802	28,551	23,007
보증금	166,656	156,807	152,057
파생금융자산	139,923	67,728	41,712
기타의비유동자산	250	60	154
자산총계	23,146,940	22,712,462	22,827,419

제 32 기 2015.12.31 현재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부채			
유동부채	3,491,306	3,378,046	4,288,073
미지급금	927,170	1,086,485	1,556,201
선수금	50,100	39,148	43,599
예수금	607,690	801,119	574,166
미지급비용	540,770	615,488	653,742
미지급법인세	375,189	91,315	104,564
선수수익	10,014	92,783	178,569
유동파생금융부채	0	0	21,170
유동충당부채	37,551	50,456	66,559
단기차입금	230,000	200,000	26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592,637	211,863	622,703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20,185	189,389	206,800
비유동부채	5,876,174	5,792,195	5,223,938
사채	5,033,495	4,655,137	4,014,777
장기차입금	72,554	80,147	85,125
장기미지급금	550,964	657,001	828,721
장기선수수익	2,768	19,544	50,894
확정급여부채	4,006	15,555	22,886
파생금융부채	89,296	130,889	100,210
비유동충당부채	20,055	27,676	19,537
이연법인세부채	56,274	144,876	44,601
기타의비유동부채	46,762	61,370	57,187
부채총계	9,367,480	9,170,241	9,512,011
자본			
자본금	44,639	44,639	44,639
기타불입자본	369,446	433,894	433,894
이익잉여금	13,418,603	12,996,790	12,665,699
기타자본구성요소	(53,228)	66,898	171,176
자본총계	13,779,460	13,542,221	13,315,408
자본과부채총계	23,146,940	22,712,462	22,827,419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영업수익	12,556,979	13,012,644	12,860,379
매출액	12,556,979	13,012,644	12,860,379
영업비용	10,898,203	11,275,484	10,890,695
총업원급여	694,666	588,635	598,885
지급수수료	5,102,723	5,591,245	5,333,869
감가상각비	2,155,531	2,095,702	2,006,896
망점속정산비용	720,879	771,786	770,125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358,031	370,549	412,217
광고선전비	175,776	213,605	237,291
임차료	403,317	377,112	362,659
상품및기타구입비용	462,256	457,049	399,810
기타영업비용	825,024	809,801	768,943
영업이익	1,658,776	1,737,160	1,969,684
금융수익	246,394	82,276	81,196
금융비용	314,191	293,338	422,764
기타영업외수익	15,277	37,422	47,618
기타영업외비용	132,993	184,177	417,25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3,819	57,593	37,6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69,444	1,321,750	1,220,797
법인세비용	362,683	293,209	310,640
당기순이익	1,106,761	1,028,541	910,157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15,233	14,262	12,837
희석주당순이익(원)	15,233	14,262	12,837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당기순이익	1,106,761	1,028,541	910,157
기타포괄손익	(119,740)	(118,086)	22,515
후속기간에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386	(13,808)	5,927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386	(13,808)	5,927
후속기간에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120,126)	(104,278)	16,58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21,528)	(66,103)	4,795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402	(38,175)	11,793
당기총포괄손익	987,021	910,455	932,672

140

자본변동표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자본 합계	
			주식발행	자기주식	자기주식	신종자본증권	기타	기타불입			
			초과금		처분손실			자본 합계	구성요소		
2013.01.01 (기초자본)		44,639	2,915,887	(2,410,451)	(18,855)	0	(722,741)	(236,160)	12,413,981	154,588	12,377,048
배당금의지급		0	0	0	0	0	0	0	(655,946)	0	(655,946)
기타자본변동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발행		0	0	0	0	398,518	0	398,518	0	0	398,518
신종자본증권의이자		0	0	0	0	0	0	0	(8,420)	0	(8,420)
자기주식의취득		0	0	0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처분		0	0	270,768	768	0	0	271,536	0	0	271,53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910,157	0	910,157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5,927	16,588	22,515
2013.12.31 (기말자본)		44,639	2,915,887	(2,139,683)	(18,087)	398,518	(722,741)	433,894	12,665,699	171,176	13,315,408
2014.01.01 (기초자본)		44,639	2,915,887	(2,139,683)	(18,087)	398,518	(722,741)	433,894	12,665,699	171,176	13,315,408
배당금의지급		0	0	0	0	0	0	0	(666,802)	0	(666,802)
기타자본변동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0	0	0	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0	0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처분		0	0	0	0	0	0	0	0	0	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1,028,541	0	1,028,541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13,808)	(104,278)	(118,086)
2014.12.31 (기말자본)		44,639	2,915,887	(2,139,683)	(18,087)	398,518	(722,741)	433,894	12,996,790	66,898	13,542,221
2015.01.01 (기초자본)		44,639	2,915,887	(2,139,683)	(18,087)	398,518	(722,741)	433,894	12,996,790	66,898	13,542,221
배당금의지급		0	0	0	0	0	0	0	(668,494)	0	(668,494)
기타자본변동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0	0	0	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0	(490,192)	0	0	0	(490,192)	0	0	(490,192)
자기주식의처분		0	0	369,249	18,087	0	38,408	425,744	0	0	425,74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1,106,761	0	1,106,761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386	(120,126)	(119,740)
2015.12.31 (기말자본)		44,639	2,915,887	(2,260,626)	0	398,518	(684,333)	369,446	13,418,603	(53,228)	13,779,460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947,129	3,221,433	3,022,473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3,219,373	3,580,032	3,315,722							
당기순이익		1,106,761	1,028,541	910,157							
수익·비용의조정		2,811,718	2,886,389	3,120,427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699,106)	(334,898)	(714,862)							
이자수익의수취		18,786	20,954	29,695							
배당금의수취		59,462	13,048	20,641							
이자비용의지급		(221,309)	(224,119)	(246,632)							
법인세납부		(129,183)	(168,482)	(96,95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062,182)	(2,622,617)	(2,393,76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745,965	319,389	531,208							
단기투자자산의순감소		105,158	0	0							
단기금융상품의순감소		21,500	30,500	13,300							
단기대여금의회수		387,922	197,925	279,815							
장기금융상품의감소		7	2,522	0							
장기투자자산의처분		22,106	54,218	29,762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자의처분		185,557	0	1,808							
유형자산의처분		23,372	25,677	3,148							
무형자산의처분		343	1,127	965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처분		0	3,667	190,393							
장기대여금의회수		0	3,660	11,727							
기타의비유동자산의처분		0	93	29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808,147)	(2,942,006)	(2,924,971)							
단기투자자산의순증가		0	94,802	45,031							
단기대여금의증가		364,687	195,700	275,913							
장기금융상품의증가		10,000	2,522	7,500							
장기투자자산의취득		296,254	28,801	9,313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자의취득		306,382	210,060	206,791							
유형자산의취득		1,752,804	2,319,016	2,201,354							
무형자산의취득		77,830	91,060	179,069							
기타비유동자산의증가		190	0	0							
장기대여금의대여		0	45	0							

제 32 기 2015.01.01부터
2015.12.31까지
제 31 기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
제 30 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제 32 기	제 31 기	제 30 기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01,420)	(798,911)	(436,749)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927,204	801,035	1,529,858
단기차입금의차입	30,000	0	0
장기차입금의차입	0	3,552	96,45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398,518
사채의발행	897,029	797,364	1,014,859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입	175	119	20,02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628,624)	(1,599,946)	(1,966,607)
단기차입금의상환	0	60,000	70,000
장기차입금의상환	12,814	12,814	457,110
장기미지급금의상환	190,134	207,668	161,575
사채의상환	250,000	629,940	621,976
배당금의지급	668,494	666,802	655,946
자기주식의취득	490,192	0	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6,840	16,840	0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출	150	5,882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83,527	(200,095)	191,96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48,311	448,459	256,577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72)	(53)	(7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31,666	248,311	448,459

미국

SK Telecom Americas
310 De Guigne Drive, Sunnyvale, CA 94085
TEL : 1-408-328-2900
FAX : 1-408-328-2931

중국

SK Telecom (China) Holding Co., Ltd.
25F, SK Tower, No. 6 Ji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TEL : 86-10-5920-7777
FAX : 86-10-5920-7724

말레이시아

SK Malaysia Representative Office
Suite 53A, Level 53, Vista Tower, The Intermark, 348
Jalan Tun Razak, 504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2166-9011

미국

SK Telecom Co., Ltd. New York Office
10F, 55 East 59th Street, New York, NY 10022, USA
TEL : 1-646-737-3462

일본

SK Telecom Co., Ltd. Tokyo Office
8F, NBF Hibiya Bldg., 1-1-7, Uchisaiwai-cho, Chiyo-
da-ku, Tokyo 100-0011, Japan
TEL : 81-3-3591-3800

베트남

The Representative Office of SK Telecom Co.,Ltd. in Ho Chi Minh City, Vietnam
Unit 1212A, 12F,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Ben Ngha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3822-9145

투자자 정보(Investor Information)

본사 주소 / CORPORATE HEADQUARTERS	
SK텔레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100-999) 02-6100-2114 http://www.sktelecom.com	SK Telecom Co., Ltd. 11, Euljiro 2-ga, Jung-gu, Seoul 100-999, Korea 82-2-6100-2114 http://www.sktelecom.com
설립일자 / DATE OF ESTABLISHMENT	
1984년 3월 29일	March 29, 1984
불입자본금 / PAID IN CAPITAL	
44639백만 원 (2015.12.31 기준)	KRW 44,639 million As of December 31, 2015
발행주식 총 수 / NUMBER OF COMMON SHARES	
80,745,711 주 (2015.12.31 기준)	80,745,711 Shares As of December 31, 2015
상장 증권거래소 현황 / SECURITIES LISTINGS	
한국증권거래소: 017670.KS (보통주) 뉴욕증권거래소: SKM (미국주식예탁증권)	Korea Stock Exchange: 017670.KS (Common Stock) New York Stock Exchange: SKM (ADS)
TRANSFER AGENT AND REGISTRAR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02-2073-8100 02-2073-8111	Kookmin Bank Securities Agency Business Department, 36-3, Yeo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2073-8110 Fax: 82-2-2073-8111
AVAILABLE FILINGS	
Form 20-F Form 6-K: Quarterly Reports, Proxy Statements, and other material announcements	
연례주주총회 /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2016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 1 SK텔레콤 보라매사옥	Tuesday, March 22, 2015, at 10 AM SK Telecom Boramae Building, 1, Boramaero-5gil, Gwanak-gu, Seoul, Korea
회사 홈페이지 / COMPANY WEBSITE	
www.sktelecom.com/en/	
문의처 / INVESTOR RELATIONS	
Email: SKT.IR@sktelecom.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SK텔레콤 (100-999)	Email: SKT.IR@sktelecom.com 11, Euljiro 2-ga, Jung-gu, Seoul 100-999, Korea

Contacts

SK Telecom Annual Report 2015	
인쇄일 2016년 7월	
발행 SK텔레콤	
발행인 장동현	
제작 책임 전략기획부문 재무관리실 IR팀 (문의: hyeseung.han@sk.com)	
기획 & 자문 한국생산성본부	
편집 및 디자인 IM creative	